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책임연구원 정은주

공동연구원 김정숙



연구보고 18-R09

국가 미래인적 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책임연구원_ 정은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대상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2018년 연구는 유럽 지역 중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재외동포청소년, 학부모, 관련 전문가,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독일과 프랑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대상은 독일 235명, 프랑스 249명이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청소년 실태, 한글학교 경험, 한민족정체성, 동포청소년들과의 교류 경험 및 욕구, 동포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등과 관련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면담조사는 독일 및 프랑스 한글학교 재학 재외동포청소년, 부모, 교사 및 차세대 청년 3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담조사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집중하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전문가 FGI는 독일 및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한글학교 발전 방안 및 재외

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주제로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4개 정책 영역-1)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한글학교 기반 마련, 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3)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4)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의 주제로 정책 영역을 제안하였다. 또한, 4개 정책 영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개 세부 과제를 정책 과제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재외동포, 재외동포청소년, 미래 인적자원, 한민족정체성, 독일 재외동포청소년,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대상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18년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되었던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III와 연계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하고 그 내용의 수정·보완에 목적이 있음.
- 특히, 2018년 연구는 유럽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지역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 정책 도출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 진행 과정에 맞춰 재외동포청소년, 특히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의 현안 및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또한, 재외동포청소년 연구 및 활동과 관련한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이를 통한 논의와 제안 내용을 정책 제언에 반영함.
- 설문조사는 독일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독일 235명, 프랑스 249명의 조사결과가 분석에 활용함. 설문조사는 실태조사, 정체성, 동포청소년들과의 교류 경험 및 욕구, 동포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면담조사는 독일 및 프랑스 한글학교 재학 재외동포청소년, 부모, 교사 및 차세대 청년 34명을 대상으로 함. 면담조사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집중하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적용함.
- 전문가 FGI는 독일 및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한글학교 발전 방안 및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주제로 FGI를 실시함.

3. 주요결과

1)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 재외동포청소년의 다인종·다민족화
 - 독일과 프랑스에서 출생한 후 성장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의 비율이 높음.
 - 부모 모두가 한인인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프랑스의 경우는 한-불 가정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약 18% 정도로 높게 나타남.
- 한글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부모의 권유’,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 순으로 나타남.
- 한글 또는 관련 교육 기관 경험
 - 한글학교 재학 경험이 있는 거주국 출생 재외동포청소년은 재학 경험이 없는 청소년과 비교하여 자신의 한국어 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등)이 높다고 생각함.
 - 한글학교 재학 경험이 있는 거주국 출생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음.
- 정체성
 - 거주국 출생자일수록 이중정체성(예: 독일계 한국인, 프랑스계 한국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민족정체성 중 한민족, 역사, 전통에 대한 자부심의 평균은 5점 만점 중 4점 이상으로 나타남.
- 그러나 거주국 한인 이주사 등과 관련한 역사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 중 2점대로 낮게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 관련 지식의 평균이 높고, 한국 관련 인식이 긍정적인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류 경험 및 욕구

- 재외동포청소년과 주로 교류하거나 만나는 장소는 종교시설(교회, 성당 등), 한글학교 순으로 나타남.
- 재외동포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희망하는 내용은 한국 방문기회 제공, 한국 관련 교육 지원의 순으로 나타남.

● 동포사회 기여 의지

- 회귀분석 결과, 한국 관련 지식의 평균이 높고, 한국 관련 인식이 긍정적인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기여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 독일의 경우 사회적 책임의식,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순으로 평균이 높았으며,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 의사소통능력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남.
-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한 회귀분석 결과, 세계시민의식과 국가정체의식이 높은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포사회 기여 의지와 관련한 회귀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 사회적 책임의식, 국가정체의식이 높은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기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 한글학교는 거주국 내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현지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한인회와 활발한 교류활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거주국 사회에서 한글학교가 지니는 의미

- [학부모] 한글학교는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곳으로 인식됨.
- [교사]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울타리이자,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전파자 및 홍보대사,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곳으로 인식됨.

[청소년] 또래 한인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장소.

- 한글학교 발전 방안 및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

- 한글학교 발전 방안: 교사 수급 문제 및 전문성 제고, 한국어 수준별 수업 진행이 가능한 지원 필요, 유아용 교재 지원, 한글학교 학부모 및 청소년 특강 지원, 한글학교 재정 지원 기준 검토, 영세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필요, 유럽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재 개발 및 보급, 한글학교 교육과정 편성 보급 등.
-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 모국 방문 기회 확대,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활동 프로그램 확대, 한국학교 체험 기회 확대 및 한국 교류·교환 학습 기회 제공, 거주국 내 진학·진로 정보 제공, 차세대 청년을 위한 지원, 재외한인 학부모 교육 실시 등.

3) 재외동포청소년 전문가 FGI 결과

- 한글학교의 역할 및 목표 재설정

- 한글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 목표 수립 필요

- 한글학교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요인

- 한글학교 전문성 제고 방안 필요(교육과정, 교사, 교재 관련 개선 방안)
- 중등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글학교 이탈 방지 및 한국어교육 저변 확대
-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 역할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특강 필요

-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

- 거주국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 개설 노력, 재외동포청소년 현장 전문가의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 한국교육원의 역할 강화, 교육자료 및 도서 지원,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최 지원

4. 정책제언

1)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한글학교 기반 마련

- 한글학교 운영 목표 및 기능에 따른 지원

-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현지인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파 기능, 재외동포청소년 교류활동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에 부합하는 운영 목표 설정 필요

- 한글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 교육과정 편성 및 거주국에 적합한 교재 개발 및 보급
- 교사의 전문성 강화

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 재외동포 이민사를 포함한 한국사 교재 개발 및 보급
- 유아용 교구 지원 및 다양한 교육자료 지원
 - 한글학교 유아반 운영에 필요한 교구 지원
 - 온라인, 오프라인 재외동포 교육자료 제공
- 재외동포 학부모 및 청소년 교육특강 지원
- 한글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 보완
 - 재외동포 학생수가 적고 현지인 수가 많은 한글학교, 영세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보완 필요
- 한글학교 지원 사업 다양화

3)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매트릭스 개발 및 관련 프로그램 연계
- 모국 연수 기회 확대
- 한국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
- 재외동포 차세대 청년 지원
- 한국 중고등학교 교류·교환학습 기회 제공
- 진로 및 취업 정보 서비스 제공

4)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

-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한국-거주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거주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거주국-한국 지자체 및 중고등학교 간 교류 기반 조성
- 거주국 정규학교에 한국어 채택 지원

국가 미래인적자원
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18-R09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7
3. 연구방법	12
4. 연구추진체계	15
5. 연구의 제한	17
II. 논의의 배경	19
1. 국가인적자원개발	21
2.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중요성	27
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 방향	33

III.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현황	35
1. 재외동포 인구와 교육기관 현황	37
2. 유럽 국가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 현황	51
3.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의 이주사와 주요 현황	59
IV.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67
1. 설문조사 개요	69
2. 설문조사 응답자 배경 특성	77
3. 설문조사 주요 결과	82
4. 소결	116
V. 재외동포청소년 면담조사 결과	119
1. 면담조사 및 FGI 개요	121
2. 독일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계자 면담조사 분석 결과	128
3.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계자 면담조사 분석 결과	149
4.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FGI 분석 결과	170
5. 소결	186
VI. 정책 제언	191
1. 정책 제언의 배경	193
2. 정책 과제	199
참고문헌	243
부 록	253
Abstract	273

표 목차

표 I-1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의	9
표 I-2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13
표 I-3 콜로키움 개최 내용	14
표 II-1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	22
표 II-2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	24
표 II-3 인적자원 개념을 포함한 재외동포 관련 법령	26
표 II-4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27
표 II-5 총인구와 연령 구간별 인구성장률	28
표 III-1 재외동포 인구 현황 총계	38
표 III-2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39
표 III-3 유럽 지역 재외동포 인구 현황	41
표 III-4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인구 현황	43
표 III-5 유럽 지역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인구 현황	44
표 III-6 대륙별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45
표 III-7 유럽 지역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46
표 III-8 재외 한국학교 현황	47
표 III-9 재외 한국교육원 현황	49
표 III-10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유럽 국가 지원 중심	52
표 III-11 재외동포 교육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유럽 국가 지원 중심 ..	54
표 III-12 독일 현지에서 실시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56
표 III-13 프랑스 현지에서 실시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58
표 III-14 독일 한글학교 현황 (2017년 기준)	62
표 III-15 프랑스 한글학교 현황 (2017년 기준)	66
표 IV-1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주요 조사 항목	71
표 IV-2 관련 요인의 신뢰도분석 결과	75
표 IV-3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7
표 IV-4 거주국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	79

표 V-5 이민 당시 연령	80
표 V-6 현재 국적	80
표 V-7 부모의 인종	81
표 V-8 한글·한국어 관련 교육기관 경험 유무	83
표 V-9 한글·한국어 관련 교육기관 평균 재학 기간	83
표 V-10 한글·한국어 관련 교육기관 평균 재학 기간별 분류	84
표 V-11 한글·한국어 관련 교육 기관에 다니게 된 이유	84
표 V-12 한국어 능력 - 문항별	86
표 V-13 한국어 능력	87
표 V-14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 교육 경험 - 거주국 출생자	87
표 V-15 한국어에 대한 관심 - 문항별	88
표 V-16 한국어에 대한 관심	89
표 V-17 가정 내 한국과 관련한 생활 - 문항별	90
표 V-18 가정 내 한국과 관련한 생활과 거주 이유	90
표 V-19 한국 관련 문화에 대한 관심	91
표 V-20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거주 이유	92
표 V-21 나의 정체성	93
표 V-22 거주 이유와 나의 정체성-독일	94
표 V-23 나의 정체성과 거주 이유-프랑스	95
표 V-24 한민족정체성-문항별	96
표 V-25 한민족정체성과 거주 이유	97
표 V-26 한국 관련 지식	98
표 V-27 한국 관련 지식과 거주 이유	99
표 V-28 한국 관련 인식	100
표 V-29 동포청소년과 교류 경험	101
표 V-30 동포청소년과 교류 장소	101
표 V-31 한국 관련 교류 욕구	102
표 V-32 한국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요인	103
표 V-33 한국 관련 경험을 어렵게 하는 요인	104
표 V-34 지원에 대한 욕구	105
표 V-35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	105
표 V-36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106
표 V-37 의사소통능력 측정문항별 평균	107
표 V-38 창의적사고 측정문항별 평균	108
표 V-39 문제해결력 측정문항별 평균	108

표 IV-40 사회적 책임의식 측정문항별 평균	109
표 IV-41 세계시민의식 측정문항별 평균	109
표 IV-42 국가정체의식 측정문항별 평균	110
표 IV-43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12
표 IV-44 동포사회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14
표 IV-45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16
표 V-1 면담조사 참여자	124
표 V-2 면담조사 참여자 개요	125
표 V-3 FGI 참여자 및 조사내용	126
표 V-4 A, B 한글학교 기본 정보(2018년 5월 기준)	129
표 V-5 C, D 한글학교 기본 정보(2018년 6월 기준)	151
표 V-6 면담조사, FGI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86
표 VI-1 연구내용별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	194
표 VI-2 부처별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사업 중 한글학교 지원 관련 내용 ..	201
표 VI-3 「국어기본법」의 관련 내용	202
표 VI-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유아용 자료 지원 내용 추가	212
표 VI-5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 보완(안)	217
표 VI-6 2018년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선발 대상	224
표 VI-7 해외동포 학생 조국학교 체험 기회 제공 지침(서울시교육청) ..	225
표 VI-8 재외동포청소년 참여 국내 체험 프로그램	226
표 VI-9 전주시의 '2018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227
표 VI-10 독일 헤센주 교류 교환학습 프로그램	230
표 VI-11 경기도교육청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230
표 VI-1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전략(안) ..	241

그림 목차

그림 I-1 연도별 추진 계획	15
그림 I-2 1차년도 연구추진체계	16
그림 II-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29
그림 II-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29
그림 II-3 2015-2060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30
그림 II-4 미래 인재상의 변화	32
그림 II-5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향	34
그림 III-1 재외동포 다수거주 상위 30개국 현황(2017년 기준)	40
그림 III-2 유럽 지역 재외동포 다수거주 상위 5개국 현황(2017년 기준) ..	42
그림 III-3 재독한인총연합회 홈페이지	61
그림 III-4 프랑스한인회 홈페이지	65
그림 IV-1 설문 개발 절차	70
그림 IV-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8
그림 IV-3 거주국 거주 이유	79
그림 IV-4 부모의 인종	81
그림 IV-5 한글·한국어 관련 교육 기관에 다니게 된 이유	85
그림 IV-6 한국어 능력-문항별	86
그림 IV-7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 교육 경험	88
그림 IV-8 가정 내 한국 관련 생활과 거주 이유	91
그림 IV-9 나의 정체성	93
그림 IV-10 거주 이유와 나의 정체성 - 독일	94
그림 IV-11 거주 이유와 나의 정체성 - 프랑스	95
그림 IV-12 거주 이유와 한민족정체성	97
그림 IV-13 한국 관련 지식	98
그림 IV-14 한국 관련 인식	100
그림 IV-15 한국 관련 교류 욕구	102
그림 IV-16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107

그림 IV-17 한민족정체성과 동포사회 기여를 예측하는 요인	116
그림 V-1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의 분석내용	128
그림 VI-1 정책 과제의 근거와 내용	197
그림 VI-2 정책 과제 영역 및 세부 추진과제	198
그림 VI-3 한글학교 기능에 따른 지원 정비	203
그림 VI-4 재외동포용 교재	207
그림 VI-5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매트릭스 개발(안)	222
그림 VI-6 Study korean사이트(학생)에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연계 ..	223
그림 VI-7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방안	233
그림 VI-8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한국-거주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236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연구추진체계
- 5. 연구의 제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고 있다. 재외국민은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²⁾. 외교부(2017)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재외동포 수는 약 740만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재외동포인구수는 집계가 시작된 1971년에는 약 70만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약 140만명, 2000년에는 560만명, 2017년에는 740만명으로 그 수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외교부, 2017: 42).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740만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주국의 모범 시민으로 자리매김하여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모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실제 모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들은 한민족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최근 남북평화와 같은 이슈와 관련해서 향후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1) 이 장은 정은주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97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에서 2018. 1. 29. 인출

협력이 기대된다. 또한, 재외동포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³⁾에 의하면, 2029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어 2032년부터 인구수의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노동 또는 지식 능력 등을 직·간접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며 또한, 자신의 거주국에서 우리 정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의 해외동포들은 자신의 거주국에서 민족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형성하여 자신의 모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돕거나, 모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거주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김경준, 정은주, 2016). 우리 재외동포도 거주국에서 이미 주류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1세대를 중심으로 한민족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형성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돕고, 모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의 변화와 한민족 정체성의 약화 또는 거주국 환경에 따라서 해외 거주 재외동포의 한민족 또는 모국에 대한 생각과 행동은 이전 세대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태어난 외국국적자인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이민 1세대나 대한민국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던 부모 세대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향후 재외동포청소년은 거주국에서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인재이며,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한민족 네트워크의 한 일원으로 활동할 가능성 있는 인적자원이다. 그러므로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재외동포 차세대로 재외동포청소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민족 개념에

3) 통계청(2018), 장래인구 추계.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N&menuId=M_1_1&themald=A01에서 2018. 1. 26. 인출

대해 고민을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령 제14839호 공직선거법에 의해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에게 대한민국 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재외 공관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⁴⁾. 실제 2017년 5월에 시행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외선거인수는 총 47,297명이며, 재외선거인 전체 투표율은 38.4%, 세계 82개국의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13~14).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제 투표율이 전체 77.2%인 것에 비해 38.4%는 그 수치가 낮아 보일 수 있으나, 국내 상황과는 다른 투표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단순 수치로 재외국민 투표율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재외국민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거주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영주권자들이 대한민국 국내 상황 및 정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현상은 향후 재외국민과 이들의 자녀를 위한 한민족 국가관과 정체성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정책 발굴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김경준·김태기(2015)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지원과 정책 마련의 시급함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한 통계 자료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 실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재외동포 수는 한인단체가 파악하는 명부와 입출국 기록을 토대로 추정되는 기록의 중복 기재로 그 인구수가 과도하게 추정되고 있고(연합뉴스, 2012. 8. 14.; 윤인진, 2013: 13, 재인용), 또한 전체 재외동포 인구수는 파악되고 있지만 재외동포청소년 현황에 대한 별도의 추정치나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동포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과 시설도 국가별, 지역별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839호,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에서 2018. 2. 13. 인출

로 인해 재외동포청소년 지원과 정책이 정부 부처 또는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관된 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 세부 정책과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I’를 주제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과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5년은 재외동포청소년 연구를 위한 틀을 마련하였고, 국내·외 재외동포청소년 전문가를 통해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분석과 전문가 의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에 방문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요구 분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후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2016년에는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중국과 미국의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과 재외동포청소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7년에는 CIS 지역 고려인 청소년과 남미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재외동포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 정책 지원방향은 일관성이 있어야겠지만, 전 세계 194개국에 거주하고 있는(외교부, 2017),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정책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난 3년간의 연구는 인구수가 많은 주요 지역과 중요도 등을 고려한 일부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이 거주하는 국가 중 지역과 국가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연구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개년에 걸쳐 연구가 수행될 계획이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재외동포청소년을 대한민국의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대상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8년 연구는 1차년도

연구이지만,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I’와 연계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2018년 이후 연구는 전반적 정책방향의 틀 안에서 연구 대상 지역 또는 국가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 대상 지역은 유럽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유럽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대안은 유럽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1) 용어의 정의

(1) 재외동포

재외동포를 의미하는 용어로 해외동포, 재외국민, 한국계 동포, 외국국적동포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재외동포’로 통일하여 사용되고 있다. 2008년 전문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의하면, ‘재외동포’는 첫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다⁵⁾. 즉, 재외동포는 재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97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에서 2018. 1. 29. 인출

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라 정의하고 있다.⁶⁾

재외동포 관련법의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를 일정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민족 혈통을 지닌 사람들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재외동포청소년

청소년의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문 분야, 교육 분야, 법률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의 연령을 수치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도 청소년의 연령을 법률 취지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⁷⁾. 「청소년복지 지원법」⁸⁾에서도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기본법」과 같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⁹⁾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¹⁰⁾ 제2조에서는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28245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에서 2018. 1. 29. 인출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5208호, ‘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에서 2018. 1. 29. 인출.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5210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www.law.go.kr/>에서 2018. 1. 29. 인출.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5352호, ‘아동·청소년보호법’. <http://www.law.go.kr/>에서 2018. 1. 29. 인출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5209호, ‘청소년보호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B2%AD%EC%86%8C%EB%85%84#undefined>에서 2018. 1. 29. 인출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연령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재외동포청소년은 일정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민족 혈통을 지닌 사람들 중 그 연령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1-1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의

구 분	정의	관련 법률
재외동포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1497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대통령령 제28245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소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15208호, ‘청소년기본법’ • 법률 제15210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재외동포청소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중 만9세~24세 연령인 자	

2) 주요 연구 내용

(1)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의의 파악

국가의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의의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학적 배경에 근거한 관점과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인재상의 변화에 근거하여 그 의의를 논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 관점에서 본 재외동포청소년의 지원방향과 의의를 파악하였다.

(2) 유럽 지역 재외동포청소년과 정책 현황 분석

주요 정책 대상인 재외동포청소년의 규모와 주요 이슈,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인구현황과 대한민국에서 지원하는 교육 기관 및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의 이주 역사를 살펴보고, 한인사회의 현재 모습 및 교육 관련 현황도 분석하였다.

(3)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특성과 정책 요구 분석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과 주요 연구 대상인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분포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유형, 특성, 정책 요구를 분석하였다. 비확률 표집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는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나타낼 것이고,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조사가 매우 제한적인 연구 환경에서 이들과 관련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질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 과제 개발을 위하여 독일과 프랑스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지 전문가와 학부모와의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4) 유럽 지역 재외동포청소년 정책방향 설정 및 정책과제 개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다양하여 정책적 요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환경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 방향과 특성화된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조사대상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를 중점적으로 특성화된 정책 방향과 과제를 개발하고 유럽 지역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다.

(5) 조사 대상 국가의 선정

유럽 지역 국가 중 독일과 프랑스가 조사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다. 조사 국가의 선정은 첫째, 연구 예산, 연구 기간, 연구 인력을 고려하여 유럽 약 50여개 국가 중 2개 국가로 조사 범위를 정하였으며, 둘째, 문헌연구,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자문에 기초하고 향후 정책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조사 국가 선정의 주요 이유는 독일과 프랑스의 재외동포 규모와 관련이 있다. 유럽에서 독일은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이며, 프랑스는 세 번째로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이다(외교부, 2017). 독일은 2017년 기준으로 유럽 지역 중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유럽 내 재외동포 규모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독일은 한국 이민사 측면에서도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이민 1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의미 있는 재외동포 거주 국가이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인구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는 최근 들어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불 130주년 수교를 기념하여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 정부와도 경제·문화적 교류 등을 고려, 조사 대상 국가의 중요성, 정책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목적을 위해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인적자원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인적자원의 의미, 국가 인적자원과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재외동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재외동포의 전반적인 현황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유럽 지역 재외동포 관련 선행 연구를 조사 분석하여 선행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운영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조사와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관련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유관 부처 공무원, 특히 조사대상 국가의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진을 구성하여 자문회의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연구 내용에 반영하였다. 전문가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내용에 대한 요약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2 전문가 자문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차수	주요내용	전문가	개최시기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내용의 구성과 추진 방향 설정 재외동포 지원 교육기관 현황과 정책 논의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2월
2차		교육부 관계자	3월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거주 재외동포청소년 특성, 현 정책의 문제점 파악과 조사 내용에 대한 논의 	프랑스 지역 관련 전문가	3월
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동포재단 지원 한글학교 현황과 정책 지원 방향 논의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3월
5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거주 재외동포청소년 특성, 현 정책의 문제점 파악과 조사 내용에 대한 논의 	독일 지역 관련 전문가	4월
6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지역 재외동포청소년 현황과 지원 현황 논의 	유럽 지역 관련 전문가	4월
7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과 프랑스 지역 한글학교 발전 방안 논의 	독일과 프랑스 한글학교 관련 전문가	5월
9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교육 관련 전문가	9월
10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재외동포재단, 전문가, 외교부, 교육부, 학계	10월
1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과제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외교부, 교육부	11월

3) 양적 연구

유럽 지역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민족의식, 참여욕구,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독일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청소년 500여명이며, 조사내용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지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한국어능력, 생활실태, 한민족의식, 참여욕구,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는 국가별 할당 표집(독일, 프랑스 각 250명 내외)이며 조사 전문 업체를 통해 설문지 조사 방식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질적 연구

유럽 지역 재외동포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지 국가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문제점, 정책 지원방향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연구진이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여 섭외된 면담 참여자와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통해 실시하였고 현지 사정에 따라 개별 면담 및 집단 면담 형태를 모두 활용하였다. 면담대상자는 독일과 프랑스 모두 한국교육원 원장 및 관계자, 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 또는 재외동포사회 관계자, 한글학교 교장 및 교사, 재외동포 청소년 및 학부모를 포함하였다.

5) 콜로키움 개최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콜로키움은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논의'라는 주제로 재외동포 연구기관의 연구소장이면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전문가의 발표와 참가자들의 토의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콜로키움은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자 연수 및 차세대 연수 -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콜로키움 중 논의되었던 전주시의 우수 사례와 내용들은 제안된 정책 과제 내용에 포함되었다.

표 1-3 콜로키움 개최 내용

차수	주제	발표자	개최시기
1차	•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논의	재외동포 연구소 소장	2월
2차	•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자 연수 및 차세대 연수 -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	9월

4. 연구추진체계

2018년부터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본 연구는 연차별로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연구 조사 대상국가의 청소년 실태 파악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은 그림 I-1과 같다.

<p>1차년도 (2018년)</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 방향 설정 • 1~4차년도 세부 연구계획 수립과 연구 지역 세분화 • 유럽(독일, 프랑스)의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파악 • 유럽(독일, 프랑스)의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지원방향 설정 <p>※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와 연계한 연구 방향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은 중국과 미국, 2017년은 CIS 지역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남미 지역의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행함 <p>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 • 설문조사, 면담조사, 해외사례 조사, 콜로키움 개최
<p>2차년도 (2019년)</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 모델 개발 •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파악 •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지원방향 설정 <p>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 • 설문조사, 면담조사, 해외사례 조사, 콜로키움 개최
<p>3차년도 (2020년)</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별·맞춤형 세부 모델 개발 • 동북·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파악 • 동북·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지원방향 설정 <p>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 • 설문조사, 면담조사, 해외사례 조사, 콜로키움 개최
<p>4차년도 (2021년)</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차년도 연구 종합 정리 및 정책 방향 제시 • 북중미 지역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파악 • 북중미 지역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지원방향 설정 <p>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 •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면담조사, 세미나 개최

그림 I-1 연도별 추진 계획

2018년은 유럽 지역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본 연구의 1차년도 추진체계는 [그림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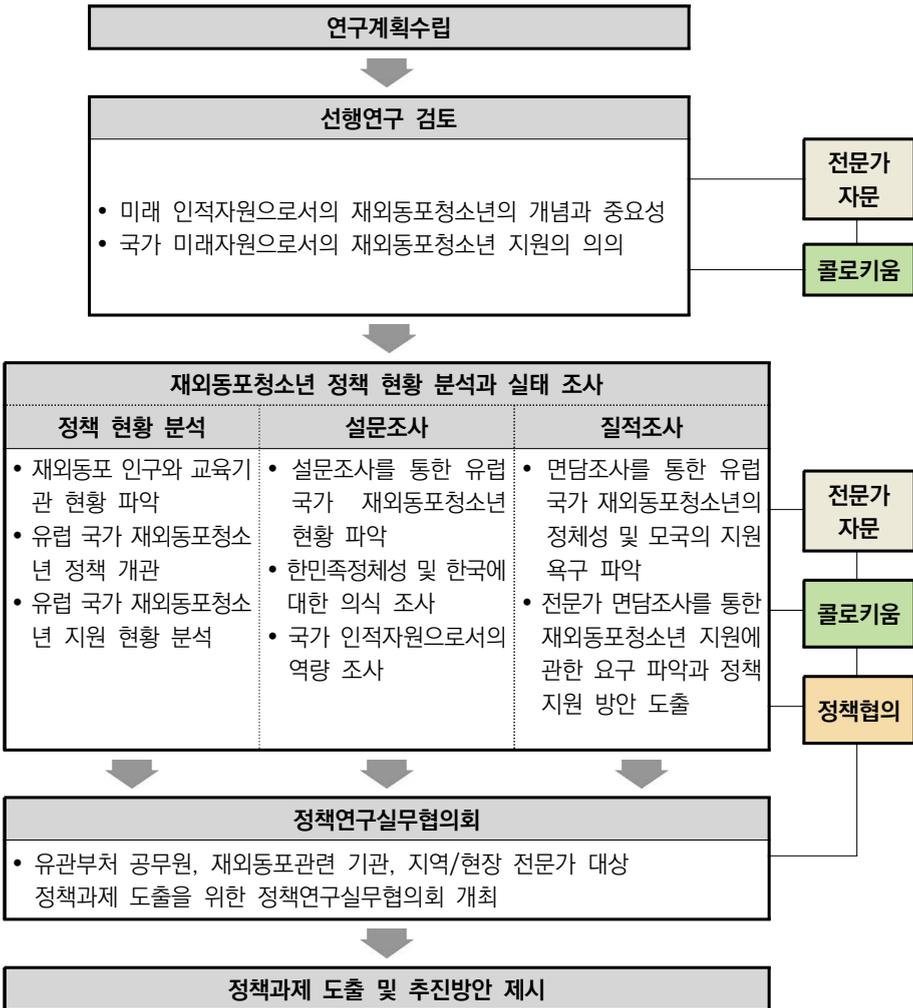


그림 1-2 1차년도 연구추진체계

5.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유럽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제 도출을 목표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지역 중 독일과 프랑스의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적·질적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으나 조사 대상의 선정, 방법, 결과의 해석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조사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다. 연구비, 연구 기간, 연구 인력 등의 자원의 제한으로 유럽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부득이 조사 대상 국가를 한정하였고, 국가의 중요도와 정책 과제 실현의 효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국가를 독일과 프랑스로 정하였다. 비록 조사 대상 국가가 유럽 지역 중 재외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두 국가의 조사 결과로 유럽 전체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 현황과 실태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해당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와 지역 전문가의 면접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와 정책 과제는 두 국가의 맞춤형 정책 과제로 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유럽 대륙 전반적인 정책 과제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현재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는 국가별로 제공되고 있으나, 국가 내 지역, 연령, 성별 등의 세부적인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조사에서 사용하는 비례표집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과 현지 조사의 어려움으로 대규모의 조사 대상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적·질적 조사결과,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 토의 등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국가별 맞춤형 정책 과제와 유럽의 공통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 ————— 제2장 논의의 배경

- 1. 국가인적자원개발
- 2.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중요성
- 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 방향

1. 국가인적자원개발

2005년 도이치 은행 연구소(Deutsche Bank Research)는 “인적자본이 성장의 열쇠(Human Capital is the Key to Growth)”라고 보고하였다(채장균, 백성준, 2006: 12, 재인용). 대한민국 정부도 2001년 ‘제1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첫째, 인적자원개발과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둘째, 우리 정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기본법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포함한 인적자원 관련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

(1)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은 물적자원과는 달리 사람의 지식과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국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자원빈국인 한국의 국가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일이

11) 이 장은 정은주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었다. 일반 기업환경에서 바라보는 인적자원과 국가차원의 인적자원의 성장과 개발 전략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업 혹은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개인 또는 사회구성원의 역량과 능력이 핵심적 가치이며 중요 요소라는 개념은 공유하고 있다(김장호, 2005: 3).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은 물적자원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물적자원은 자연 상태의 자원을 여러 과정을 거쳐 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면, 인적자원은 사람이 습득하여 내재화되어 있는 지식, 정보, 능력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 또는 교육 받는 과정을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김형만, 2005: 64~66).

인적자원개발은 “Swanson & Elwood(2001)에 의하면 성과를 개선할 목적으로 개인의 훈련 및 개발과 조직의 개발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한다(김형만, 2005: 64, 인용). 이렇듯 일반적으로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은 기업차원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개인과 조직의 학습과 성과가 주요한 요소이다. 기업이나 작은 조직에 적용되었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논의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로 인하여 인적자원개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1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량(Stock) • 사람이 습득하여 내재화되어 있는 지식, 정보, 기술, 기능, 경험과 지혜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역량 • 지식, 기능, 경험, 태도, 건강 등 인적요소의 종합으로서 축적된 저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량(Flow) • 개인의 역량은 교육, 훈련, 연구개발 등의 활동 과정을 통해 축적하고, 축적된 개인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활동 • 저량 개념의 숙련(지식, 기능, 기술, 태도, 경험) 등 쌓아가는 과정

(2)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등장 배경은 세계화에 따른 국경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본, 기술, 정보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중요 기술과 정보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우수인력의 확보와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술과 정보에 비해 이동에서 상대적 제약이 있는 인적자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전략적이고 정책적 측면에서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즉,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개념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다(강경중, 2006: 293).

강경중(2006)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특징을 실행주체의 다양성, 네트워킹, 공공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차원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실행주체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정부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이 포함된다. 둘째,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각 부처, 산업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간의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점이다. 셋째,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은 공정성과 공평성에 기반을 두어 공공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강경중, 2006: 296~297).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은 실행의 주체가 다르며 목표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실행의 주체는 국가는 국가 차원의 활동으로 공정성과 공공성을 중시하지만, 인적자원개발에서는 단일 조직의 목표와 효율성을 중시하며 단일 조직 내 활동이 실행의 주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목표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두고 있지만, 인적자원개발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의 핵심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강경중, 2006: 297). 이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1-2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개발

	국가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
실행	국가 차원의 활동	단일한 조직 내 활동
	공정성·공공성 중시	조직의 목표와 관련한 효율성 중시
목표	국가 경쟁력 제고	조직의 목표 달성
	개개인의 기초역량 강화와 사회적 신뢰구축	조직 구성원의 핵심역량 강화

2)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약칭:인적자원법)은 2003년 제정되었으며, 14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제15489호이다. 인적자원법에서는 ‘인적자원’을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으로 정의하고 있고,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¹²⁾. 인적자원법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평가와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인적자원법에 근거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1차(2001년~2005년)와 2차(2006년~2010년)가 수립되어 시행되었다. 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부부처에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세부 내용을 추진하였다.

인적자원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재외동포를 인적자원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7조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는 인적자원 분야 중 일부에서 해외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5489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http://www.law.go.kr/>에서 2018. 3. 27. 인출

인적자원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제7조 2항 ‘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 사항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는 해외 인적자원의 국내 유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 인적자원 개념을 포함한 재외동포 관련 법령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교육부가 주요 부처이지만 이와 관련한 각종 법령 또는 하위 내용은 여러 부처 관련 법령으로 산재해있으며, 인적자원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법령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의 6개 법령에 나타나있다.¹³⁾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의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의 재외교육기관과 관련한 필요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4절 한국학교와 관련한 내용과 제4장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나타내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사용의 촉진과 국어의 발전·보전·기반 마련에 목적으로 두고 제정되었다. 제19조(국어의 보급 등)에서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를 통해 직접적으로 재외동포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출입국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재외동포 출입국과 체류 자격에 대한 내용 등은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3) '(2)인적자원 개념을 포함한 재외동포 관련 법령'항에 인용된 모든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인용함. <http://www.law.go.kr/>에서 2018. 3. 27. 인출

‘재외동포재단법’은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의 모범적 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법률은 재외동포재단과 관련한 내용을 주요 조항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제7조(사업)에서 재외동포사회를 위한 조사와 연구, 교류 사업 등을 통해 이들을 인적자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재외국민등록법’의 목적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을 돕고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법률은 재외국민 등록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010년 제정된 후 2013년 개정되었다. 법률 제정의 목적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지원과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도모이다. 제6조(지원사업 등)를 통해 국내 체류자격 취득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교육 등의 지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2항에서는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표 II-3 인적자원 개념을 포함한 재외동포 관련 법령

소관부처	법명	
교육부	법률 제15042호, 2017.11.2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국민교육법)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4625호, 2017.3.21	국어기본법
법무부	법률 제14973호, 2017.10.3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외교부	법률 제13348호, 2015.6.22	재외동포재단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재외국민등록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 고려인동포법)

* 출처: 법률과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018. 3.27.)에서 조회함.

2.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중요성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는 해외 고급인력 활용을 포함한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의 글로벌화의 관점에서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지원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백성준, 2005: 642). 본 절에서는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적자원의 구조변화 측면과 새로운 산업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 고령화로 인한 대한민국 인적자원의 구조변화

인구학적 측면에서 국가 인적자원으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서 2065년에는 4,302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65년의 예상 인구수는 대한민국 1990년대 초반의 인구수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¹⁴⁾와 관련한 설명에 의하면, 인구 변동 요인은 출생, 사망, 국제이동이 있으나,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구의 자연감소는 202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이동으로 인하여 실제 인구는 2032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II-4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년도 변화	1965	1975	1985	1995	2005	2015	2025	2031	2035	2045	2055	2065
총인구 (만명)	2,870	3,528	4,081	4,509	4,818	5,101	5,261	5,296	5,283	5,105	4,743	4,302
인구 성장률(%)	2.54	1.68	0.99	1.01	0.21	0.53	0.20	0.00	-0.12	-0.52	-0.89	-1.03

* 출처: 통계청(2018). 장래인구 추계¹⁵⁾

14) 통계청(2018), 장래인구 추계.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N&menuId=M_1_1&themald=A01에서 2018. 1. 26. 인출

총인구를 연령계층으로 나누어 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0에서 14세를 유소년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 65세 이상을 고령인구 연령계층으로 구분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3,744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7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생산가능 인구와 유소년인구 연령계층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연령계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65년 대한민국의 생산가능 연령계층은 인구 중 47.9%로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5 총인구와 연령 구간별 인구성장률

구분 \ 년도	1965	1975	1985	1995	2005	2015	2025	2035	2045	2055	2065
인구(0-14세, 만명)	1,258	1,361	1,230	1,054	922	703	635	598	515	443	413
인구(15-64세, 만명)	1,525	2,045	2,676	3,190	3,464	3,744	3,576	3,168	2,772	2,442	2,062
인구(65세 이상, 만명)	88	122	174	266	432	654	1,051	1,518	1,818	1,857	1,827
구성비(0-14세, %)	43.8	38.6	30.2	23.4	19.1	13.8	12.1	11.3	10.1	9.3	9.6
구성비(15-64세, %)	53.1	58.0	65.6	70.7	71.9	73.4	68.0	60.0	54.3	51.5	47.9
구성비(65세 이상, %)	3.1	3.5	4.3	5.9	9.0	12.8	20.0	28.7	35.6	39.2	42.5

* 출처: 통계청(2018). 장래인구 추계¹⁵⁾

15) 통계청(2018), 장래인구 추계.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N&menuId=M_1_1&themald=A01에서 2018. 1. 26. 인출

16) 통계청(2018). 장래인구추계.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N&menuId=M_1_4&themald=D01에서 2018. 1. 2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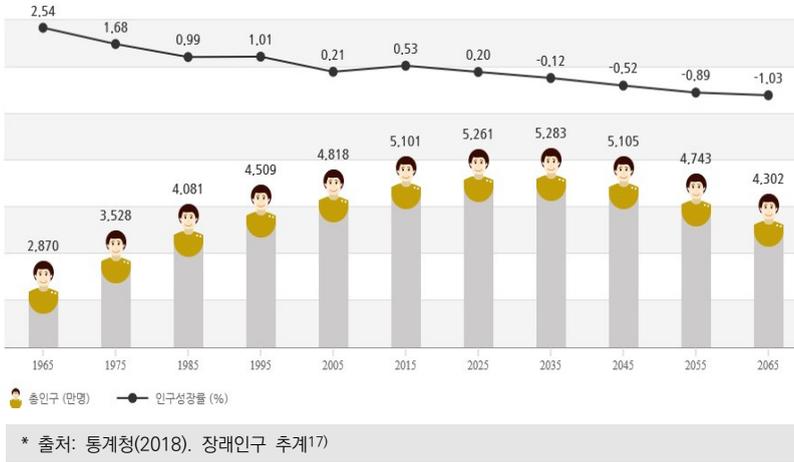


그림 II-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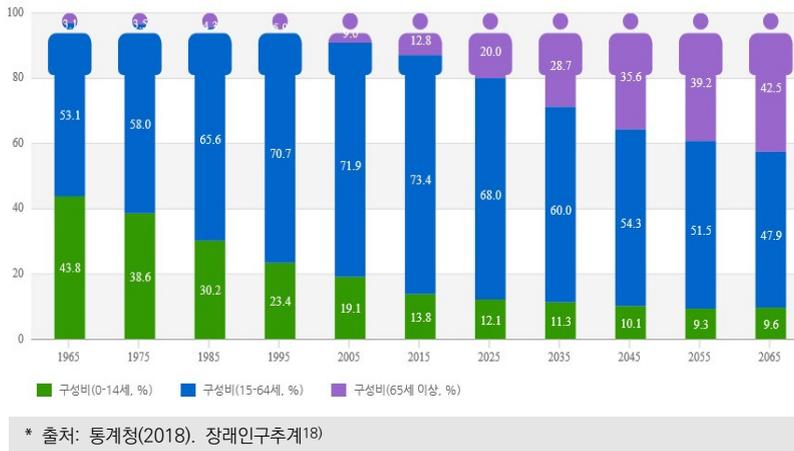


그림 II-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 17) 통계청(2018), 장래인구 추계.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N&menuId=M_1_1&themald=A01에서 2018. 1. 26. 인출
- 18) 통계청(2018). 장래인구추계.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N&menuId=M_1_4&themald=D01에서 2018. 1. 25. 인출

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유독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세계 연령별 인구 비율에 비해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2015년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연령의 65.8%를 차지하고 있고, 2060년에는 6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15년 생산가능인구는 73.0%였으나 2060년에는 49.7%로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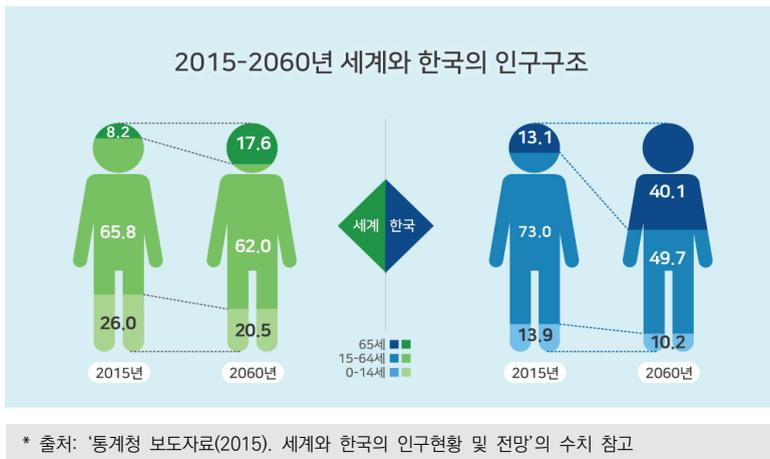


그림 II-3 2015-2060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¹⁹⁾

대한민국은 향후 전체 인구수의 감소와 함께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전 세계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국가의 미래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년 740만으로 집계된 재외동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외교부, 2017). 아쉽게도 재외동포의 연령별 통계수치가 정확

19) 통계청 보도자료(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4710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84%B8%EA%B3%84%EC%99%80+%ED%95%9C%EA%B5%AD%EC%9D%98에서 2018. 1. 25. 인출

히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재외동포의 증가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재외동포 차세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이들을 대한민국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지원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 재외동포를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과 정책 고민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는 청소년시기 또는 낮은 연령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2) 산업구조의 변화와 미래인적자원

미래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첨단 정보통신 기술 등의 기술이 중요시 될 것이며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나타나고 새로운 연결을 창조하는 혁신적인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는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경험할 것이라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산업,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와는 다른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들을 양성·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김형만 외, 2017: 3, 재인용).

최근 들어,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 역량과 인적자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특정 부분의 일자리의 감소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의 양적인 측면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지식, 숙련, 태도와 같은 질적인 측면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습방식과 교육 방법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요약하면, 새로운 산업혁명을 통해 개인의 지식, 숙련, 태도가 융·복합된 인적자원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성장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국가 또는 기업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 한다(김형만 외, 2017: 39).

과거에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인재가 역량 있는 사람이었다면, 미래의 인재상은 과거 인재상에 더해 다른 또는 추가된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미래사회에서는 창의적, 전문적, 멀티플레이형, 융합형 인재, 즉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 인적자원은 현재의 획일적 교육에 의한 전문적이지만 동질적인 노동 역량 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의 소질과 능력이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김형만 외, 2017: 98).



그림 II-4 미래 인재상의 변화

미래 인적자원의 확보와 활용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재외동포청소년은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재외동포는 세계 각국에서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분야, 통일한국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한 민간 외교, 로비스트 등으로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기업 상품의 1차 소비자가 되고 광고자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우리 문화를 거주국에 전파

하고 홍보하는 문화 사절단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통일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경준, 김태기, 2015: 22~23).

이러한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던 재외동포 1세대에서 그 핵심세력이 점차 그 이후세대로 바뀌고 있다. 재외동포 1세대의 주요 역할과 함께 거주국의 문화와 환경에 더욱 익숙한 재외동포청소년은 향후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 방향

김경준·정은주(2016)는 인재개발 관점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외동포청소년이 ‘대한민국 발전의 촉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함이 확인된 재외동포청소년을 발굴하여 성장시키거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발전의 촉진자’로 재외동포청소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영입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 또는 그 이전부터 인재개발 계획에 따라 재외동포청소년의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재외동포청소년이 ‘한민족 발전의 후원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외동포 이주 역사가 길어지고 있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재외동포 모두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후원자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력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김경준, 정은주, 2016: 20~22).

셋째, 재외동포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성장한다면 장기적으로 이들은 ‘한민족 문화의 계승자’로 세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준, 정은주, 2016: 20~22).



그림 II-5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향

거주국에서 출생 후 살아가야 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 모국 또는 한민족 보다는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에 있어서 이들이 거주국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과 함께 이들을 미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모국이나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제3장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현황

- 1. 재외동포 인구와 교육기관
현황
- 2. 유럽 국가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 현황
- 3.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의
이주사와 주요 현황

1. 재외동포 인구와 교육기관 현황²¹⁾

1) 재외동포 인구와 교육기관 현황

(1) 재외동포 인구 현황

외교부 발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재외동포는 7,430,66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5년 7,184,872명 대비 3.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 2017)²²⁾. 2015년 대비 가장 많은 인구수의 증가를 보인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가 속한 북미 지역으로 10.97%의 재외동포가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외동포 인구수가 9.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재외동포 인구수는 2.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북아시아가 3,366,656명으로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미 지역이 2,733,194명, 유럽 지역이

20) 이 장의 1절과 2절은 정은주 연구위원, 3절은 김정숙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1) 이 절은 정은주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2) 외교부는 재외동포현황 자료의 수집 및 취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외교부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재외동포현황 통계자료를 발표함. '2017 재외동포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파악된 재외동포 현황을 취합하여 발표한 자료임. 외교부 재외동포현황(2017) 통계에 사용된 자료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출장소)에서 작성 보고한 현황과 동포가 거주하는 주재국가의 인구 관련 통계, 한인회와 동포단체의 조사 자료, 재외국민등록부 등의 자료를 통해 산출한 추산·추정치임.

630,730명, 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이 557,739명, 중남미 지역이 106,78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재외동포 인구에서 동북아시아 재외동포 인구 비율이 45.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북미 지역 36.78%, 유럽 지역 8.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재외동포 인구 현황 총계

지역별	연도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백분율 (%)	전년비 증감률(%)
총계		7,175,654	7,012,917	7,184,872	7,430,664	100	3.42
동북 아시아	일본	913,097	893,129	855,725	818,626	11.02	-4.34
	중국	2,704,994	2,573,928	2,585,993	2,548,030	34.29	-1.47
	소계	3,618,091	3,467,057	3,441,718	3,366,656	45.31	-2.18
남아시아태평양		453,420	485,836	510,633	557,739	7.51	9.23
북미	미국	2,075,590	2,091,432	2,238,989	2,492,252	33.54	11.31
	캐나다	231,492	205,993	224,054	240,942	3.24	7.54
	소계	2,307,082	2,297,425	2,463,043	2,733,194	36.78	10.97
중남미		112,980	111,156	105,243	106,784	1.44	1.46
유럽		656,707	615,847	627,089	630,730	8.49	0.58
아프리카		11,072	10,548	11,583	10,854	0.15	-6.33
중동		16,302	25,048	25,563	24,707	0.33	-3.35

* 출처: 외교부(2017). 2017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 14.

재외동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며 2,548,030명으로 집계되었다. 상위 5개의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외동포 인구수 대비 중국 재외동포 비율은 34.29%, 미국 재외동포 비율은 33.54%로 나타났다. 유럽 중 독일은 40,170명, 영국은 39,934명, 프랑스는 16,251명으로 12위, 13위, 20위의 다수 거주 국가로 나타났다.

표 III-2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순위	국가명	동포수(명)	순위	국가명	동포수(명)
1	중국	2,548,030	16	아르헨티나	23,194
2	미국	2,492,252	17	태국	20,500
3	일본	818,626	18	싱가포르	20,346
4	캐나다	240,942	19	키르기스공화국	19,035
5	우즈베키스탄	181,077	20	프랑스	16,251
6	호주	180,044	21	말레이시아	13,122
7	러시아	169,680	22	우크라이나	13,070
8	베트남	124,458	23	멕시코	11,673
9	카자흐스탄	109,132	24	아랍에미리트	10,852
10	필리핀	93,093	25	캄보디아	10,089
11	브라질	51,534	26	인도	10,388
12	독일	40,170	27	대만	6,293
13	영국	39,934	28	과테말라	5,312
14	뉴질랜드	33,403	29	파라과이	5,090
15	인도네시아	31,091	30	스페인	4,520
기타 동포 수		87,458명			
전체 해외 동포수 (194개국) 7,430,659명					

* 출처: 외교부(2017). 2017 재외동포현황, p.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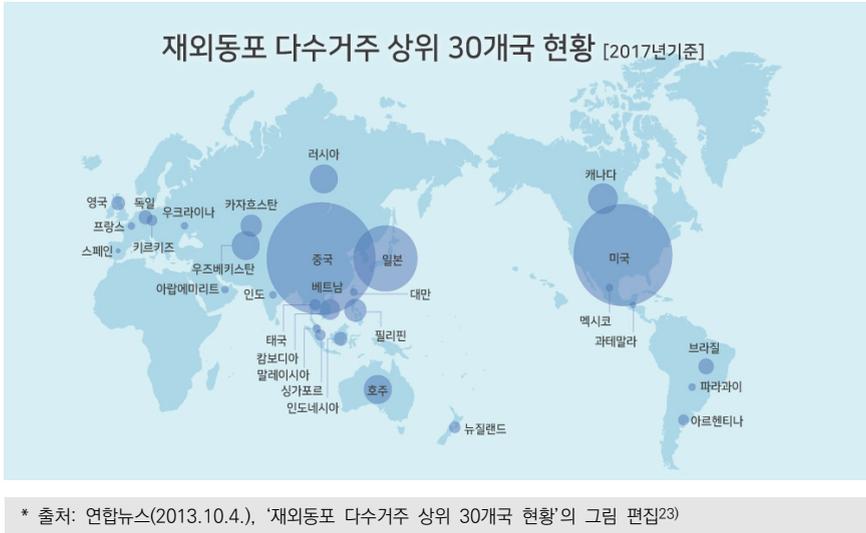


그림 III-1 재외동포 다수거주 상위 30개국 현황(2017년 기준)

유럽 지역의 재외동포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630,730으로 2015년 627,089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지역 중 가장 많은 재외동포수가 집계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으로 181,077명이며, 러시아 169,680명, 카자흐스탄 109,132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다음은 독일 40,170명, 영국 39,934명으로 나타났다. 외교부(2017) 자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을 유럽 지역에 포함하여 통계표를 작성하였으나, 위 국가들은 CIS 또는 독립국가연합으로 분리하여 지역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CIS 지역 국가들을 제외하고 유럽 국가의 재외동포 인구수를 살펴보면, 독일의 재외동포수가 가장 많고 다음은 영국의 재외동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4).

23) 연합뉴스(2013.10.4.), 재외동포 다수 거주 상위 30개국 현황.
<http://www.yonhapnews.co.kr/medialabs/info/graph/overkor/index.html>에서 2018. 1. 30. 인출
 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7년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연구를 통해 CIS 지역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표 III-3 유럽 지역 재외동포 인구 현황

지역별	연도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백분율(%)
총계		656,707	615,847	627,089	630,730	100
우즈베키스탄		173,600	173,832	186,186	181,077	28.71
러시아		218,956	176,411	166,956	169,680	26.90
카자흐스탄		107,130	105,483	107,613	109,132	17.30
독일		31,518	33,774	39,047	40,170	6.37
영국		46,829	44,749	40,263	39,934	6.33
키르기스공화국		18,230	18,403	18,709	19,035	3.02
프랑스		12,684	14,000	15,000	16,251	2.58
우크라이나		13,053	13,083	13,103	13,070	2.07
이탈리아		4,141	4,054	4,148	4,311	0.68
스페인		4,080	3,787	3,708	4,520	0.72
터키		2,837	3,093	3,839	2,332	0.37
스웨덴		2,050	2,510	2,789	3,174	0.50
네덜란드		1,771	2,602	2,663	2,966	0.47
오스트리아		2,387	2,374	2,473	2,553	0.40
스위스		2,472	2,295	2,468	2,674	0.42
아일랜드		1,068	1,182	2,336	3,063	0.49
슬로바키아		1,587	1,537	1,557	1,638	0.26
체코		1,332	1,449	1,553	2,061	0.33
폴란드		1,156	1,413	1,435	1,745	0.28
투르크메니스탄		884	1,329	1,425	1,451	0.23
헝가리		1,295	1,252	1,405	1,437	0.23
벨라루스		1,343	1,381	1,395	1,356	0.21
노르웨이		605	692	1,121	1,043	0.17
벨기에		824	893	1,050	1,085	0.17
그 외 30개 국가		4,875	4,269	4,847	4,972	0.01

* 출처: 외교부(2017). 2017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 22-24 편집함

주: 외교부(2017)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을 유럽 지역에 포함하여 통계표를 작성 하였으나, 위 국가들은 CIS 또는 독립국가연합으로 분리하여 지역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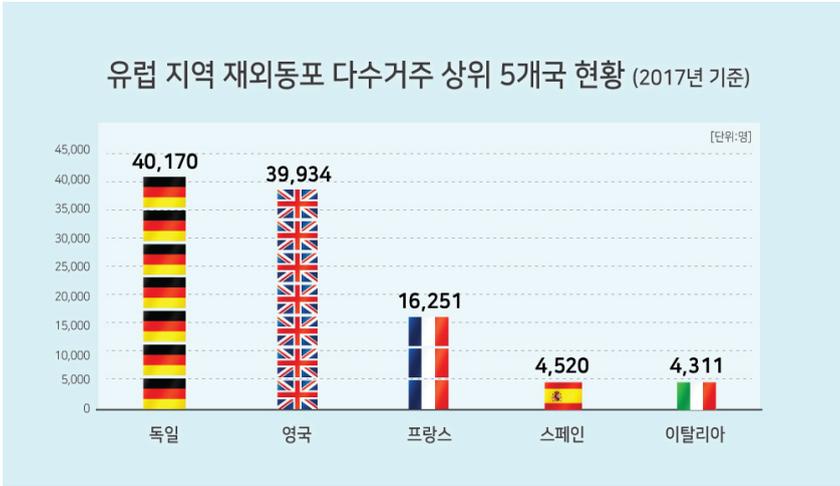


그림 III-2 유럽 지역²⁵⁾ 재외동포 다수거주 상위 5개국 현황(2017년 기준)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은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는 해당국가의 시민권자로 그 거주 자격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재외동포 전체적으로 외국국적자(4,758,528명, 약 64%)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반 체류자(1,354,220명, 약 18%), 영주권자(1,049,210명, 약 14%), 유학생(260,284명, 약 4%) 순으로 집계되었다.

유럽의 재외동포는 전체 630,730명이며 이중 외국국적 재외동포는 508,062명으로 전체 유럽 재외동포 중 약 80.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유럽 지역의 재외동포의 재외국민 비율은 19.4%정도이고 거주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한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80.6%로 높았으며, 이는 전체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자의 비율이 약 64%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 CIS 지역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국가들로 표를 구성함.

표 III-4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인구 현황

거주자격별 지역별	재 외 국 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 학 생	계			
총계	1,049,210	1,354,220	260,284	2,672,052	4,758,528	7,430,659	
동북 아시아	일본	379,940	57,718	15,438	453,096	365,530	818,626
	중국	6,602	275,338	62,056	349,404	2,198,624	2,548,030
	소계	386,542	333,056	77,494	802,500	2,564,154	3,366,656
남아시아태평양	104,071	343,346	46,115	496,462	61,185	557,739	
북미	미국	416,334	546,144	73,113	1,035,591	1,456,661	2,492,252
	캐나다	57,137	28,861	25,396	111,394	129,548	240,942
	소계	473,471	575,005	98,509	1,146,985	1,586,209	2,733,194
중남미	52,412	15,234	563	68,209	38,585	106,784	
유럽	30,258	56,243	36,172	122,673	508,062	630,730	
아프리카	2,342	7,534	816	10,692	157	10,854	
중동	114	23,802	615	24,531	176	24,707	

* 출처: 외교부(2017). 2017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 28

반면 독일과 프랑스의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비율은 전체 비율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 시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는 24.7%(9,927명)이고 재외국민은 75.3%(30,243)으로 재외국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에서 외국국적 재외동포보다 재외국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럽 국가들의 국적법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독일과 프랑스에서 출생한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도 거주국 시민권자 보다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거주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아래 표의 유럽 지역 총계의 거주자격별 비율은 재외동포수가 많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외국국적 재외동포 비율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II-5 유럽 지역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인구 현황

거주자격별 지역별	재 외 국 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 학 생	계		
총계	30,258	56,243	36,172	122,673	508,062	630,729
우즈베키스탄	18	2,363	89	2,470	178,607	181,077
러시아	370	4,277	1,666	6,313	163,367	169,680
카자흐스탄	132	1,729	102	1,964	107,169	109,133
독일	8,187	14,490	7,566	30,243	9,927	40,170
영국	11,104	8,036	11,183	30,323	9,611	39,934
키르기스공화국	11	1,416	651	2,078	16,957	19,035
프랑스	2,825	5,681	6,655	15,161	1,090	16,251
우크라이나	25	260	74	359	12,711	13,070
이탈리아	1,122	2,008	877	4,007	304	4,311
스페인	1,879	652	1,088	3,619	901	4,520
스웨덴	351	870	80	1,301	1,873	3,174
그 외 43국가	4,234	14,461	6,141	24,835	5,545	30,374

* 출처: 외교부(2017). 2017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 36-38 표를 편집함.

(2)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① 한글학교 및 학생 수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학교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자료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대륙별 한글학교 수는 총 1,788개교, 교사수는 15,789명, 학생수는 100,063명으로 집계되었다(재외동포재단, 2017). 대륙별로 살펴보면, 북미 지역의 한글학교가 96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아시아가 298개교로 나타났다. 반면 아프리카·중동 지역은 한글학교가 46개로 조사되어 다른 대륙에 비해 현저하게 적음을 알 수 있다. 유럽 지역의 한글학교는 112개교, 교사수는 917명, 학생수는 6,132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III-6 대륙별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지역	국가	공관	학교수	교사수	학생수
아시아	19	42	298	2,310	19,034
대양주	4	7	71	899	5,796
북미	2	16	969	9,924	52,863
중남미	20	21	85	723	5,321
유럽	26	31	112	917	6,132
러시아/CIS	10	14	207	653	9,037
아프리카/중동	32	29	46	363	1,880
총계	113	160	1,788	15,789	100,063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7). 2017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p. 9

② 유럽 지역 한글학교 및 학생 수

유럽 지역의 한글학교는 26개 국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수는 112개교, 교사수 917명, 학생수 6,132명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한글학교가 있는 독일로 32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은 영국으로 20개의 한글학교, 프랑스 13개의 한글학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부분 유럽 지역의 국가에는 평균 1~2개 정도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7).

표 III-7 유럽 지역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번호	국가	학교수	교사수	학생수
1	그리스	1	11	67
2	네덜란드	2	52	424
3	노르웨이	1	11	49
4	덴마크	2	11	62
5	독일	32	241	1,678
6	루마니아	1	9	26
7	몰도바	1	7	50
8	벨기에	2	17	122
9	불가리아	1	8	45
10	스웨덴	2	15	132
11	스위스	5	31	187
12	스페인	3	33	249
13	슬로바키아	2	20	143
14	아일랜드	2	12	59
15	알바니아	1	2	25
16	영국	20	140	839
17	오스트리아	4	21	135
18	이탈리아	4	38	224
19	체코	2	19	118
20	코소보	1	3	10
21	터키	4	45	259
22	포르투갈	1	5	27
23	폴란드	3	25	130
24	프랑스	13	113	980
25	핀란드	1	18	32
26	헝가리	1	10	60
총계		112	917	6,132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7). 2017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p. 14-15

③ 재외 한국학교 현황

재외 한국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로부터 설립·운영 승인을 받은 학교로 해외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한국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학교별로 해당 국가와 지역의 교육과정에 따라 국내형·현지형·국제형으로 학교 형태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15개국 32개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전체 학생수는 13,770명, 전임교원은 1,354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국 12개교, 일본 4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한국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와 남미 지역이며, 유럽 지역의 경우 운영 중인 한국학교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8 재외 한국학교 현황

학교명	대한민국 정부인가	학생 수 (학급 수)	전임 교원
동경한국학교	'62.03.16	1,383(37)	68
교토국제학교	'61.05.11	130(9)	30
오사카금강학교	'61.02.24	220(15)	34
건국한국학교	'76.10.01	461(23)	50
소계(4개교)		2,194(84)	182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1,033(41)	97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5	817(33)	92
상해한국학교	'99.07.06	1,312(51)	130
무석한국학교	'08.03.01	503(21)	52
소주한국학교	'13.02.22	274(15)	25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43(14)	30
연대한국학교	'02.07.12	611(26)	55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30	816(33)	67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274(16)	42
선양한국국제학교	'06.07.26	262(15)	37

학교명	대한민국 정부인가	학생 수 (학급 수)	전임 교원
연변한국학교	'98.02.19	86(12)	23
광저우한국학교	'15.03.01	234(13)	32
소계(12개교)		6,365(290)	682
타이베이한국학교	'61.10.01	56(7)	8
까오슝한국국제학교	'61.01.25	46(6)	7
소계(2개교)		102(13)	15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6.03.21	1,423(45)	71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98.08.04	1,775(55)	113
소계(2개교)		3,198(100)	184
젯다한국학교	'76.09.18	12(4)	4
리아드한국학교	'79.04.24	20(4)	5
소계(2개교)		32(8)	9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77.04.25	709(33)	0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93.02.17	435(22)	0
방콕한국국제학교	'02.02.18	73(12)	0
필리핀한국국제학교	'05.07.11	182(12)	0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118(9)	0
아르헨티나한국학교	'95.01.23	222(13)	0
모스크바한국학교	'92.02.14	88(9)	0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10(3)	0
카이로한국학교	'80.04.15	22(6)	0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16.04.12	20(7)	0
소계(10개교)		1,879(126)	0
합 계(15개국, 32개교)		13,770(621)	1,354

* 출처: 교육부(2018b). 재외동포교육 게시판. 2017년 재외한국학교현황.²⁶⁾

26) 교육부(2018b). 재외동포교육 게시판. 2017년 재외한국학교현황.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6&boardSeq=71639&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11&opType=에서> 2018. 2. 6. 인출

④ 한국교육원 현황

재외 한국교육원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와 민족 교육, 해당 국가에서 지역 거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교육부에서 설립 지원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18개국에서 41개 한국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교육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전체 15개의 한국교육원이 설립되어 있고, 다음은 미국으로 7개의 한국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다.

유럽 지역의 한국교육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 위치해 있다. 유럽 지역에서는 프랑스 한국교육원이 1975년에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이후 1981년에 영국과 독일 한국교육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III-9 재외 한국교육원 현황

관할 재외공관	교육원명	설립 연월일	파견자	관할 내 한글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주일대사관	동경한국교육원	'66.05.01	1	30	1,186	115
	사이타마한국교육원	'70.01.26	1	7	489	29
	치바한국교육원	'70.01.21	1	4	348	27
요코하마(총)	가나가와한국교육원	'63.04.02	1	11	442	45
주니가타(총)	나가노한국교육원	'70.02.26	1	3	47	3
주삿포로(총)	삿포로한국교육원	'63.05.16	1	3	292	15
주센다이(총)	센다이한국교육원	'64.07.25	1	5	188	22
주오사카(총)	오사카한국교육원	'63.04.01	1	34	1,400	89
	나라한국교육원	'77.02.01	1	2	59	7
	교토한국교육원	'63.04.12	1	14	523	37
주고베(총)	고베한국교육원	'63.04.01	1	11	877	57
	오카야마한국교육원	'66.04.01	1	3	291	22
주후쿠오카(총)	후쿠오카한국교육원	'63.06.28	1	5	145	14

관할 재외공관	교육원명	설립 연월일	파견자	관할 내 한글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주히로시마(총)	히로시마한국교육원	'63.05.16	1	27	901	1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95.02.01	1	3	273	3
일본지역 소계 (15개원)			15	162	7,461	486
주미대사관	워싱턴한국교육원	'80.07.01	1	75	3,860	787
주뉴욕(총)	뉴욕한국교육원	'81.07.01	1	152	8,485	1,750
주시카고(총)	시카고한국교육원	'81.07.01	1	121	4,744	1,104
주휴스턴(총)	휴스턴한국교육원	'88.08.10	1	50	3,303	647
주LA(총)	로스엔젤레스한국교육원	'80.04.15	2	224	12,557	1,969
주샌프란시스코(총)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87.08.17	1	76	4,600	941
주애틀랜타(총)	애틀랜타한국교육원	'17.03.13	1	115	4,364	894
미국지역 소계 (7개원)			8	813	41,913	8,092
모스크바대사관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01.09.19	1	40	1,514	132
주유주노 사할린스크(총)	사할린한국교육원	'93.12.10	1	9	554	25
주블라디보스톡(총)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95.03.24	1	13	368	43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97.08.07	1	6	121	17
러시아지역 소계 (4개원)			4	68	2,557	217
주우즈베키스탄(대)	타슈켄트한국교육원	'92.05.27	2	60	3,464	3,464
주카자흐스탄(대)	알마티한국교육원	'91.08.22	2	45	1,457	120
주키르기스스탄(대)	비슈켄트한국교육원	'01.05.28	1	4	234	34
CIS지역 소계 (3개원)			5	109	5,155	3,618
주우크라이나(대)	우크라이나한국교육원	'17.02.28	1	18	675	80
주토론토(총)	캐나다한국교육원	'81.07.31	1	78	4,099	451
주시드니(총)	시드니한국교육원	'89.08.01	1	43	3,513	483
주영국대사관	영국한국교육원	'81.07.01	1	21	792	142
주프랑스대사관	프랑스한국교육원	'75.12.31	1	13	993	113
주프랑크푸르트(총)	독일한국교육원	'81.08.04	1	32	1,738	234
주파라과이(대)	파라과이한국교육원	'80.01.01	1	4	234	24
주아르헨티나(대)	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	'87.08.21	1	16	991	152

관할 재외공관	교육원명	설립 연월일	파견자	관할 내 한글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주상파울루(총)	상파울루한국교육원	'88.09.01	1	27	1,700	216
오클랜드(총)	뉴질랜드한국교육원	'12.04.01	1	17	1,074	277
타이왕국대사관	태국한국교육원	'12.03.20	1	5	452	66
주호치민(총)	호치민시한국교육원	'12.11.13	1	3	521	60
기타지역 소계 (12개원)			12	277	16,782	2,298
합계	18개국 41개원		44	1,429	73,868	14,711

* 출처: 교육부(2018a). 재외동포교육 계시판. 2017년도 재외한국교육원현황.27)

2. 유럽 국가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 현황²⁸⁾

1) 외교부(재외동포재단)의 관련 정책 및 사업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재외동포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아래 표는 2017년도 결산보고서 내용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사업 중 유럽 국가 지원과 관련한 청소년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육성을 위해 운영비와 교육자료 지원 등의 각종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터디코리아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어, 한국 역사 등의 관련 자료와 교재를 제공하고 교사 자격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에서 교사 연수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에 한글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교수법 공유와 최신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7) 교육부(2018a). 재외동포교육 계시판. 2017년도 재외한국교육원현황.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6&boardSeq=7164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11&opType=N>에서 2018. 1. 30. 인출

28) 이 절은 정은주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동포 교류와 지원을 위해서 차세대 단체 지원과 함께, 2017년에는 파리 한글학교 리모델링 사업 자금도 지원하였다. 또한, 조사와 연구 사업 지원을 통해 재외동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조사 발표회에 유럽 분과를 따로 만들어 유럽 지역 재외동포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모국연수 초청 사업에 유럽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도 참여하여 모국을 직접 체험하고 동포청소년들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표 III-10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유럽 국가 지원 중심

정책 및 프로그램	주요내용
한글학교 육성 ²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스티디코리아(study.korean.net) 운영 • 교육자료 지원 사업 •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 • 유럽지역 입양인 대상 사업 시행 (2018 예정)
한글학교 교사 육성 ³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29개국, 59건) (유럽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한글학교협의회 지원 ▣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글학교 교사연수 ▣ 프랑스: 프랑스 한글학교 교사연수회 • 한글학교 전문 강사 파견을 통한 교수 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과 프랑스에 전문 강사 파견하여 현지 환경과 실정에 맞는 한국어 교수법 공유와 최신 교육자료 제공 •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48개국, 13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박 8일 국내 초청 연수 • 한글학교 교장 초청 연수(29개국, 5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박 5일 국내 초청 연수 • 사이버 교사 연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연수기관을 통한 온라인 교원양성 과정 지원
재외동포 교류지원 ³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단체 지원(12개국, 36개 단체, 37개 사업) • 세계 한민족 청년 지도자 대회 지원
동포사회숙원 사업 지원 ³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한글학교 리모델링 사업자금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주요내용
조사연구사업 ³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 사업 지원(연구비 지원, 학술 대회개최 등) ▣ 학술대회에서 유럽 분과 별도 운영 • 조사연구 활동 지원(연구 단체, 학술기관 지원 등)
재외동포 장학사업 ³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 사업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 ³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생, 대학생 모국연수 초청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박 8일 국내 초청 연수 • OK Friends 자원봉사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연수를 통한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의 네트워크 형성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8b). 재외동포교육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주: 본 내용은 2017년 실시되었거나 진행되었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2) 교육부의 관련 정책 및 사업

교육부의 재외동포 교육지원 정책은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부분과 재외동포 한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설립과 지원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재외한국학교는 일본, 동남아, 남미 등 일부 대륙에 설립되어 있으며, 유럽지역에는 교육부 인가 한국학교는 설립되어 있지 않다. 유럽지역에는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에 한국교육원이 설립되어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외교육기관 지원과 함께,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교육지원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29) 재외동포재단(2018b). 재외동포재단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33~47
30) 재외동포재단(2018b). 재외동포재단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48~58
31) 재외동포재단(2018b). 재외동포재단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62~104
32) 재외동포재단(2018b). 재외동포재단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129
33) 재외동포재단(2018b). 재외동포재단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139~143
34) 재외동포재단(2018b). 재외동포재단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148
35) 재외동포재단(2018b). 재외동포재단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151~153

교육부의 주요 지원 사업 중 하나는 재외동포용 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다. 현재 전 세계 100여개국에 재외교육기관을 통하여 교과서를 배포하고 있다. 그 외에 재외동포교육 진흥 사업과 재외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의 한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초청사업이 있다. 재외동포청소년 초청사업은 장기, 단기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청소년이 한국에 방문하여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장기교육과정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의 재외동포청소년, 단기교육과정에는 유럽 지역의 여러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참여하여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 교육부에서는 한국사 바로 알리기 사업과 해외에 한국어 알리기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바른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우리말을 알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이 거주국의 국공립 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럽지역 중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교육원을 통하여 한국어 채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III-11 재외동포 교육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유럽 국가 지원 중심

정책 및 프로그램	주요내용
재외동포교육 운영 지원 ³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교육기관 (한국교육원)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한국어 보급,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 재외한국교육원 : 18개국 41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음 •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지원 •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지원 • 재외동포교육지원 포털시스템 구축·운영

정책 및 프로그램	주요내용
재외동포 한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청소년 초청교육 ³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교육과정 수료자(2010년~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23명, 프랑스 3명, 영국 1명 포함 (전체 1,603명) • 단기교육과정 수료자(2000년~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1명, 덴마크 1명, 독일 100명, 스웨덴 2명, 스위스 11명, 스페인 6명, 프랑스 1명, 영국 1명, 벨기에 1명 포함 (전체 1,415명) • 재외동포 하계 동계학교 수료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5명, 영국 7명, 스위스 2명, 프랑스 2명, 스페인 1명 포함 (전체 52명)
한국사 정확히 알리기 ³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역사와 독도 관련 교육 및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지역 역사와 독도 관련 현안에 대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이해,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 활동 - “영어로 공부하는 동아시아사 역사강좌” 신규 개설. (국외) 해외 공관을 통해 모집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연간 1~2회 프로그램 운영
해외에 한국어 알리기 ³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채택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29개국 1,309개교 개설 중 ▣ 영국 한국교육원 10개교, 독일 한국교육원 21개교, 프랑스 한국교육원 34개교 운영 지원 중

* 출처: 교육부(2018c). 2018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72703&lev=0&statusYN=C&s=moe&m=0606&opType=N&boardSeq=73294>, 2018. 10. 16. 인출

3) 독일과 프랑스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독일과 프랑스 현지에서 최근 3~4년간 진행되었던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를 아래 표로 제시하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한국교육원 또는 한글학교가 주체가 되어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교육부(2018c). 교육부 2018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세종: 교육부. pp.1598~1619

37) 교육부(2018c). 교육부 2018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세종: 교육부. pp.1878~1885

38) 교육부(2018c). 교육부 2018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세종: 교육부. p.1197

39) 교육부(2018c). 교육부 2018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세종: 교육부. pp.1618~1632

독일에서는 한글학교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 글쓰기, 한국 문화체험, 설날과 추석에 한국 명절 체험하기 등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활동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 세미나 등을 통해 재외동포 자녀의 정체성 혼란과 같은 어려움을 이해하고 거주국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표 III-12 독일 현지에서 실시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내용
2015	프랑크푸르트 한글학교 교사세미나	• 글쓰기 지도 방법론
	에센 한글학교 가족캠프	• 한국전통놀이 및 캠프활동, 학부모 특강
	비스바덴 한글학교 다도와 한국 전통예절과 한지 공예 수업	• 다도, 한지공예 실습
	하노버 한글학교 캠프	• 위인이름 보물찾기, 퀴즈, 위인성장과정 살펴보기
	하이델베르크 다문화 축제	• 사물놀이 공연 등
	비스바덴 한글학교 우리말 캠프	• 특강, 제기 만들기, 우리말 낱말퀴즈 등
	다름슈타트 한글학교 추석행사	• 송편 만들기 등 추석 관련 행사
2016	하노버 한글학교 겨울캠프	• 설잔치 준비
	프라이부르크 한글학교 가족캠프	• 가족과 함께 하는 한글학교 활동
	하노버 한글학교 운동회	• 체육 관련 활동 등
	마인츠 무궁화 한글학교 '합기도의 날' 행사	• 합기도 체험, 한국무술경험
	함부르크 한인학교 2016년 여름캠프	• 한국전통 인사예절 교육, 태권도, 전통놀이 등
	하노버 한글학교 송편 빚기 추석행사	• 송편 만들기 등 추석 관련 행사
	에센 한글학교 추석행사	• 추석의 의미와 유래, 전통음식체험, 전통놀이
	프랑크푸르트 한글학교 교사 세미나	• 글쓰기 지도 방법론, 교수방법론 관련 세미나
	2016 비스바덴 한글학교 통일 역사 캠프	• 1박2일 통일 역사 캠프

	프로그램	주요내용
2017	마인츠 한글학교 설날행사	• 떡국 만들기, 세배하기 등 설날 체험 행사
	2017 제23회 청소년 우리말 우리문화 집중교육	• 특강 및 문화수업, 체육대회 등
	프라이부르크 한글학교 전통음악 캠프	• 전통음악 학습 및 체험
	비스바덴 한글학교 캠프	• 독일재외동포 1세대 역사캠프 (파독광부 간호사 역사 특강, 뿌리 찾기-춘수 배우기 등)
	마인츠 무궁화 한글학교 정체성 캠프	• 이중 언어 교육의 장점과 한글학교의 중요성
	마인츠 한글학교 외국인의 날 행사	• 한국음식 홍보, 한국 전통 무용 공연 등 한국문화 전달
	마인츠 무궁화 한글학교 추석맞이 체육대회	• 추석 관련 활동과 체육대회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 교사세미나	• 교수방법 활용 및 전달, 토의
	프라이부르크 한글학교 학부모 세미나	• 2017년 재독 한글학교 관계자 연수에서 배운 교육 자료 공유 및 세미나
	프라이부르크 한글학교 사물놀이 특강	• 전통문화 사물놀이 수업
	제1회 라인펠덴 한글학교 한마당 축제	• 한국과 한국음식, 민속놀이 등 한국문화 체험
2018	마인츠 무궁화 한글학교 설날행사	• 설날 노래 부르기, 설날 관련 동영상시청 등
	비스바덴 한글학교 역사캠프	• 주제: 너희가 고려시대를 아느냐?
	브레멘 한국학교 35주년 기념 학예회	• 한글 글짓기, 그림 그리기 등
	하이델베르크 한글학교 학예회	• 사물놀이, 짧은 글짓기, 시 낭독

* 출처: 독일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keid.de/board.php?board=keidb302&page=2&command=list&no=&command=list&page=1>,
 2018. 10. 2. 인출

* 주: 1) 본 내용은 2015년 이후부터 자료 조회 시점까지 진행되었던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프랑스의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한국어와 문화, 역사 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다음표의 결과는 인터넷을 통한 제한된 자료 조사로 인하여 실제 실시되었던 프로그램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III-13 프랑스 현지에서 실시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내용
2015	제39회 한국어 능력시험 시행	• 총 7개의 시험장에서 252명 지원자 시험응시
	제2회 재불교민자녀 수학경시대회	• 프랑스 6개 도시에서 동시개최, 프랑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교민자녀 • 재불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 주관, 32명 참여
	2015 재외교육기관장 역량강화 연수	• 재외교육기관 발전 방안 관련 강연
	제4회 프랑스 한글학교 어린이 청소년 한국문화 캠프	• 민화 및 부채춤, 태권도, 탈 만들기, 한국 역사·지도 책 만들기 등 • 80여명 참여
2016	한국의 날 문화원 행사	• k-pop댄스 배우기, 학생들이 만든 한국문화 및 역사에 관한 자료 전시 등
	제4회 한국학 학생과 기업인과의 만남	• 기업소개 및 취업관련정보 제공
	모철민 대사 한국관련 고등학교 컨퍼런스	• 한국과 프랑스 독립 운동사 전시물 관람, 대금연주 등
2017	빅토르뒤리 고교 설날 한국어반 한복 체험 및 한국관련 전시	• 지역 고등학교에 한국 관련 문화 체험 행사 진행과 관련 전시 활동
	파리 한글학교와 설 행사	• 줄다리기, 절 배우기, 한복입기 등

* 출처: 프랑스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educoree.fr/>, 2018. 10. 2. 인출

* 주: 1) 본 내용은 2015년 이후부터 자료 조회 시점까지 진행되었던 지원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2) 프랑스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 2018년 행사 내역은 미기재 상태임.

3.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의 이주사와 주요 현황⁴⁰⁾

1960년 이전 유럽으로 이주한 한인은 그 수가 매우 적고, 정치적 활동목적으로 인한 이주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1960년 이후, 유럽으로의 한인 이주 역사는 광산노동자와 간호사가 파견된 독일의 사례와 나머지 유럽 국가의 사례로 구분된다. 이는 유럽으로의 한인 이주 역사가 비교적 짧고, 이주 양상이 매우 유사한 데에서 기인한다(나혜심, 2016: 113).

유럽지역 내 재외동포의 정착은 네 가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과의 인연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이다. 둘째, 유학을 이유로 10년 이상 체류하여 영주하게 된 경우이다. 셋째, 유럽지역 중에서도 독일과 같이 광산노동자와 간호사로 계약 노동자로 파견되었다가 영주한 경우이다. 넷째, 유럽으로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들 등이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정주한 경우이다(허성태, 임영언, 2016: 145). 이 중 독일의 한인사회는 세 번째 요인에 의해, 프랑스 한인사회는 주로 두 번째 요인에 의해 형성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한인 이민사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각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실태를 한글학교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독일

(1) 독일의 한인 이민사와 한인사회 현황

한인들의 독일 이주는 1960~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독일 내 한인사회 형성은 당시 초청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으로 인한 광산노동자와

40) 이 절은 김정숙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간호사 파견에 의해 이루어졌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서독에 파견된 광산노동자는 8,395명에 달하였고, 간호사는 1965년부터 1977년까지 10,371명이 파견된 것으로 보고된다(허성태, 임영인, 2016: 145~146). 1970년 중반 이후 독일의 이주노동자 정책 변화로 이들 중 일부는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제3국으로, 나머지 30% 정도가 독일에 남아 한인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나혜심, 2012: 145).

당시 독일로 이주한 광산노동자와 간호사들은 결혼적령기의 미혼이 많았다. 이들 중 독일에 정착한 한인 광부는 한국 간호사와 결혼하여 장기 체류가 가능하였고, 한인 간호사들 중에서는 독일 남성과 결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시 초청노동자로 정착했던 독일 한인들은 대부분 은퇴하였으며 현재 독일 한인사회는 부부 모두가 한국인인 한-한 가정, 한국인과 독일인으로 구성된 한-독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다. 그 외, 유학생, 주재원, 독일에 입양된 한인들이 한인사회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나혜심, 2012: 149~152; 유정숙, 2012: 179~181).

독일에는 여러 한인 단체들이 존재한다. 우선 (사)재독한인총연합회의 전신은 1963년 유학생들의 학술토론 모임이었던 '퇴수회'였고, 1964년 재독한인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66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46개의 한인 산하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 외 직업별 단체에는 광산노동자 모임인 재독한인글릭아우프회, 재독한인간호협회 등이 있고, 기타 단체에는 재독대한체육회와 한인 문화 단체, 한인여성회 등이 있다.⁴¹⁾ 이외에도 한국과 독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정치, 사회, 문화, 학술 등 한독, 독한 단체들이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인 2세대들은 한국 유학생 및 독일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단체를 확장시켜 가고 있으며, 여기에는 Kyopocom Germany⁴²⁾와 한가람⁴³⁾ 등이 포함된다.

41) 재독한인총연합회 홈페이지. '독일 지역한인회 및 회원단체 현황'

<http://homepy.korean.net/~germany/www/data/index.htm>에서 2018년 4월 11일 검색.

42) <https://www.facebook.com/kyopo.de/> 참고

현재 독일 한인사회는 한인사회 1세대의 고령화와 그로 인한 노후 대책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한인사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또한 1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한인사회의 세대교체가 요구되면서 차세대 지도자 양성과 차세대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현안 중 하나로 제기된다(유정숙, 2012: 195~196).



* 출처: 재독한인총연합회 홈페이지(<http://homepy.korean.net/>)에서 2018. 4. 3. 인출

그림 Ⅲ-3 재독한인총연합회 홈페이지

(2) 독일 한글학교 현황

현재 독일에는 32개의 한글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독일대사관 소속 한글학교 3개, 주본 분관에 소속된 한글학교 12개,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소속 한글학교 12개,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소속 한글학교 5개가 포함된다.

43) 한가람 홈페이지(<http://hangaram.de/>) 참고

표 III-14 독일 한글학교 현황 (2017년 기준)

공관	학교명	교사수	총 학생수				
				일시	영주	청소년	성인
주독일 대사관	드레스덴한글학교	3	21	7	14	21	-
	라이프치히한글학교	5	30	-	30	27	3
	베를린한글학교	11	78	11	67	55	23
	도르트문트한글학교	6	28	2	26	18	10
	두이스부룩한글학교	4	35	1	34	32	3
	뒤셀도르프한글학교	7	53	-	53	45	8
	레버쿠젠한글학교	3	14	-	14	11	3
	보훤한글학교	9	66	-	66	40	26
주본 분관	본한글학교	6	38	15	23	38	-
	빌레펠트한글학교	3	13	2	11	9	4
	아헨한글학교	6	22	11	11	22	-
	자알란트한글학교	7	24	4	20	24	-
	켈른한글학교	17	70	2	68	57	13
	트리어한글학교	2	6	3	3	6	-
	독일에센한글학교	5	24	-	24	20	4
	다름슈타트한글학교	6	36	2	34	27	9
주프랑크 푸르트 총영사관	마인츠무궁화한글학교	11	60	2	58	53	7
	원헨한글학교	9	102	-	102	61	41
	비스바덴한글학교	7	36	13	24	32	4
	슈바벤한글학교	6	28	-	28	15	13
	슈투트가르트한글학교	8	57	-	57	51	6
	에얼랑엔-뉘른베르크한글학교	7	43	3	40	34	9
	카셀한글학교	5	16	4	8	10	6
	칼스루에한글학교	4	23	1	22	18	4

공관	학교명	교사수	총 학생수				
				일시	영주	청소년	성인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프라이부르크한글학교	6	31	10	21	21	10
	프랑크푸르트한국학교	40	490	175	315	481	8
	하이델베르크한글학교	7	44	-	44	38	6
	브라운슈바이크한글학교	4	28	-	28	9	19
	브레멘한글학교	5	24	2	22	17	7
	킬한글학교	3	10	-	10	6	4
	하노버한글학교	4	26	-	26	19	7
	함부르크한인학교	15	102	6	96	69	33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7). 『2017년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pp. 177-180.

이들 한글학교에는 유아, 초중등, 성인 학생들이 한국어, 한국 역사와 문화를 학습하고 있다. 독일 내 한글학교들 중 주재원 및 상사 자녀 비율이 높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국학교를 제외하면, 일시 체류자보다는 영주권자들의 참여 비율이 높다. 또한 브라운슈바이크 한글학교를 제외하면, 성인보다는 청소년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학교들은 지역사회 내 학교, 교회, 공공건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주 1회 수업을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역사와 문화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들은 정식 자격증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 대부분 유학생 또는 한인사회 내 자발적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교사 수급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글학교는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형식교육 기관으로 현재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

2) 프랑스

(1) 프랑스의 한인 이민사와 한인사회 현황

프랑스와 한국의 교류는 프랑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1949년 이전까지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일본이 조선 내에 있던 프랑스 외교관을 쫓아냄에 따라 프랑스와 한국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1906년부터 1949년 사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프랑스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던 것을 제외하면, 한인들의 프랑스 이주는 주로 입양인과 유학생이 주를 이룬다(강진희, 2012).

1950년 이후 프랑스로의 유학 인구가 증가하였고 현재 프랑스 한인들 중 약 75%는 유학생과 단기 체류자로 볼 수 있다. 이들의 프랑스 체류는 불연속성을 띠며 한인사회에서 이들은 연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 반면 프랑스인과의 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자와 10년 장기 체류증 소지자인 거주권자는 한인사회의 약 2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강진희, 2012: 227).

1990년대 말 이후 한인사회의 새로운 그룹으로 등장한 이들에게는 청소년 유학생,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자, 조선족들을 들 수 있다. 대체로 영어권 국가로 조기 유학을 떠났던 한국 청소년들이 1990년대 말 이후 공교육을 기반으로 학비 부담이 낮은 프랑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났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 중 일부가 프랑스 외인부대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 프랑스 외인부대에서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중국 동포들의 경우에도 일자리를 찾아 프랑스로 이주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합법적 체류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강진희, 2012: 230~231).



그림 III-4 프랑스한인회 홈페이지

프랑스의 대표적 한인단체는 프랑스한인회로 1968년 재불한인회로 출발하였다. 초대 회장은 화가 한묵이 선출되었다. 초기 프랑스 한인들은 당시 대부분 유학생이 많아 학업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갔으나, 1980년 이후에는 프랑스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진명, 2012: 273). 이 외에도 지방한인회, 재불한인여성회가 있고, 2015년 창립한 ‘프랑스한인차세대’도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 한인사회는 여타 유럽의 한인사회에 비해 응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프랑스인들의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적 성향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한인들의 특성, 한인회의 리더십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임영희, 2003: 125).

(2) 프랑스 한글학교 현황

프랑스에는 13개의 한글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파리한글학교가 가장 큰 규모로 257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파리에 소재한 파리한글학교와 파리오페라한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한글학교들은 성인학습자의 참여 비율이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독일의 한글학교와는 다른 차별성으로 볼 수 있으며, 독일에 비해 프랑스 한인사회는 일시 체류자 비율이 영주권자 비율보다 높다는 점과 프랑스 성인들이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엑상프로방스, 보르도, 디종, 몽펠리에한글학교에는 상당히 많은 성인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프랑스 한글학교의 운영 방향이나 교육 내용, 한국에서의 지원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15 프랑스 한글학교 현황 (2017년 기준)

공관	학교명	교사수	총 학생수				
				일시	영주	청소년	성인
주프랑스 대사관	그르노블한글학교	4	46	-	46	3	42
	클레르몽페랑한글학교	7	60	-	60	37	23
	디종한글학교	6	78	-	78	28	50
	툴루즈한글학교	5	28	-	28	10	18
	리옹한글학교	6	71	-	71	31	40
	몽펠리에한글학교	9	93	-	93	35	48
	보르도한글학교	6	70	3	67	17	53
	블르와한글학교	2	23	-	23	14	9
	솔레한글학교	6	24	-	24	4	20
	스트라스부르한글학교	8	45	8	37	20	25
	엑상프로방스한글학교	15	132	18	114	24	108
	파리오페라한글학교	15	53	5	48	48	-
	파리한글학교	24	257	39	218	257	-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7). 2017년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pp. 186-188.

○ — 제4장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개요
- 2. 설문조사 응답자 배경 특성
- 3. 설문조사 주요 결과
- 4. 소결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민족 혈통을 지닌 사람들 중 그 연령이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이다. 본 조사에서는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유럽 지역 50여개 국가 중 독일과 프랑스의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외교부, 2017: 22-24). 조사 국가 선정에 관한 이유는 보고서 서론에서 논의하였다.

2) 조사내용과 설문 개발 절차

(1)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 개발 절차

본 연구의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항목은 2016년과 2017년에 중국, 미국, CIS, 남미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을 조사하였던 설문항목을 참고하여 필요 문항을 도출하고 유럽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항과 본 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문항을 구성하였다.

44) 이 장은 정은주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유럽 지역 중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개발은 문헌 검토, 전문가 자문과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의 설문지에 기초하였다. 설문지 초안에는 연구진이 재외동포청소년의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량을 묻는 질문과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한 공통 문항을 도출하여 포함하였다.

이후 각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 현지 관계자 감수 등을 통해 조사 대상 지역과 대상을 고려한 설문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조사 대상 국가 전문가와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항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조사 문항 개발이 완료된 설문 조사지는 조사 국가 언어인 독어와 불어로 번역되었다. 설문 번역은 전문 번역 업체를 통해 번역 후, 원어민 감수를 실시하였다. 이후, 번역된 설문지는 해당 국가 전문가의 검토와 현지인의 2차 감수를 통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쳤다. 이후 예비조사와 연구진 검토를 거쳐 최종 설문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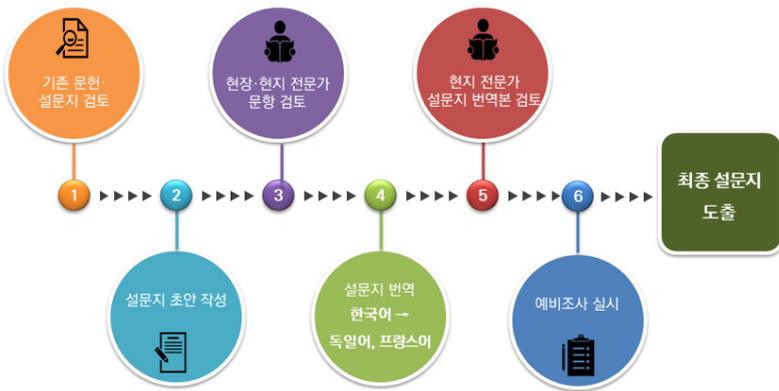


그림 IV-1 설문 개발 절차

(2) 설문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주요 조사 영역은 첫째, 응답자의 배경 특성, 둘째, 한국 또는 한국어 관련 교육기
관 경험, 한국어 사용 능력과 관심, 한국 관련 실생활과 관련한 실태조사, 셋째,
나의 정체성, 한민족정체성, 한국관련 지식과 인식과 관련한 정체성 조사, 넷째,
동포청소년과의 교류경험과 욕구 조사, 다섯째,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자신의 역할
기여에 대한 의지 조사, 여섯째,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역량 조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과제에서 조사한 설문 영역 및 주요 조사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V-1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주요 조사 항목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배경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주 국가, 출생년도, 성별, 신분 • 거주국 거주 이유, 가장 먼저 이민 온 세대 • 국적, 부모 인종
실태 조사	한글학교 경험	• 한국 관련 또는 한글학교 경험, 기간, 동기
	한국어 사용능력과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 한국어에 대한 관심
	한국 관련 관심과 실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한국어 사용, 한국음식 만들기 등 • 개인적 관심과 문화생활
정체성	한국 관련 지식과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역사, 문화 등에 관한 지식 • 한국에 대한 인식
	나의 정체성	•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동포청소년 간 교류경험 및 욕구	한민족 정체성	• 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 자심감 등
	동포청소년 간 교류경험	• 거주국 내 한인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
	한국 관련 교류 희망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 • 한국 방문의 이유와 요인 등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역할 기여		• 한인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

조사 영역		조사 항목
국가 미래 인적자원 역량	의사소통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개인의 역량 • 타인의 대화 이해, 타인의 생각과 선택 존중 등
	세계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라에 대한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자세 •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사회적 책임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와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책임의식 • 직접적 노력, 생각, 관심과 관련한 의식
	창의적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능력 중 창의적 사고와 관련 • 새로운 생각, 통합적 사고 등
	문제해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능력 중 문제해결력 •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모색,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등
	국가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 자국의 문화, 역사, 국민의 우수성 인식

위에서 제시한 설문 영역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의 개발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응답자의 배경변인

배경변인의 설문 문항은 거주 국가와 도시, 출생년도, 성별, 현재 신분, 거주국에 살게 된 이유, 거주국으로 최초로 이민 온 세대, 현재 국적, 부모의 인종이 문항에 포함되었다. 여기 포함된 문항들은 김경준·정은주(2017)의 재외동포청소년 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실태조사

한글학교 재학 경험, 기간, 동기와 관련한 문항은 한국교육원 또는 한글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어 학습의 경험, 재학 기간, 동기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김경준·정은주(2017)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 사용능력은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하기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김경준·정은주(2017)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배우고 싶은 의지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진이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한국 관련 실생활은 가정 내와 개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정 내 영역은 부모와 생활할 때의 사용 언어, 음식, 문화를 어떻게 접하는지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김경준·정은주(2017) 연구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개인 영역은 청소년의 개인적 관심과 직접적 활동에 관한 2문항으로 연구진이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 민족정체성

정체성과 관련한 문항은 응답자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민족정체성을 묻는 1문항과 한민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한민족정체성 관련 4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나의 민족정체성을 묻는 질문은 연구진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하여 본 설문에 포함하였다. 한민족정체성 관련 문항들은 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역사와 전통에 대한 생각, 긍정적인 마음 등을 묻는 문항을 통해 질문하였다. 한민족정체성 항목은 4개의 세부항목을 통해 설문하였으며, 김경준·정은주(2017)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동포청소년 간 교류경험 및 욕구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을 묻는 항목은 재외동포청소년이 거주국에서 한인 청소년과 교류한 경험과 단체 등을 통해 활동한 경험이 있는 지를 묻는 3문항과 캠프나 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와 관련한 2문항으로 설문하였다.

한국 관련 교류 욕구는 한국에서 학업, 일, 일시적 체류를 하고 싶은지를 묻는 3문항과 그 이유, 하고 싶지만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 등에 관한 2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관련한 문항은 한국 방문 기회, 교류 기회 등의 지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자 6문항으로 내용을 구체화하여 설문하였다. 관련 설문 항목들은 김경준·정은주(2017)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역할 기여

재외동포청소년이 거주국의 동포사회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 항목은 김경준·정은주(2017)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역량은 6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의사소통능력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개인의 역량으로 이해 안 되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기, 타인의 생각과 말에 대해 생각하기, 타인의 의견 존중 등을 묻는 내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요인이 된 설문항목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의 설문 항목이며, 본 연구는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의 설문 내용을 활용하였다(김경준·정은주, 2017; 장근영 외, 2015: 434-435).

둘째, 세계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에 대한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묻는 항목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과 관련한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책임은 개인들의 사회와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책임의식을 묻는 항목으로 개선을 위한 직접적 노력, 관심 등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국가정체성은 자국 문화, 국민 등에 대한 자부심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세계시민의식, 사회적 책임, 국가정체성 요인은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연구’의 설문 항목에 기초하였으며, 본 연구는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

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의 설문 내용을 활용하였다(김경준·정은주, 2017; 지은림·선광식, 2007: 122).

다섯째,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은 응답자의 창의적 능력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I)'의 설문에 기초하였으며, 본 연구는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의 설문 내용을 활용하였다(김경준·정은주, 2017; 최상덕, 2014: 53-54).

(3) 분석에 활용된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목적에 한 개 문항과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V-2 관련 요인의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 α	요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 α
한국어 능력	4	.90	역할기여	4	.77
한국어에 대한 관심	2	.81	의사소통능력	4	.60
가정 내 한국 관련 생활	3	.71	창의적사고	3	.72
한국 관련 문화 관심	2	.82	문제해결력	3	.67
한민족정체성	4	.77	책임의식	3	.77
한국 관련 지식	3	.75	시민의식	4	.77
한국 관련 인식	4	.72	국가정체성	3	.76

3)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유럽 지역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는 6월~8월 사이에 만 9세~24세의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국가와 청소년 대상자의 선정 관련 내용은 1장 서론에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의 구성은 재외동포 특성을 고려하여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으로 목적적 할당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다. 재외동포 국가별 인구수는 외교부가 제공한 통계자료로 우리 정부가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재외공관, 주재국 인구 관련 통계, 한인회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추산·추정치이다(외교부, 2017: 3). 재외동포 인구 현황에 기초해서는 국가별 재외동포 인구수는 추정할 수 있지만 연령별 인구수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모집단 추정의 어려움과 표본의 규모가 작다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조사가 한인 협회나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협조를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서 한국어 관련 교육 기관 경험이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다수가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글학교 교육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포함하고자 임의 할당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사례 중 30~40%의 한글학교 경험이 없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포함하여 한글학교 경험이 있는 재외동포청소년과 비교하려 하였다. 또한 남녀는 비슷한 수준으로 설문조사 사례수를 유지하려 하였다.

설문조사는 독일과 프랑스어로 번역된 설문과 한국어 설문지가 동시에 제공되었으며, 현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독일과 프랑스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지 설문조사원이 한글학교 또는 재외동포단체를 통해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가능여부를 문의한 후 방문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완료 후 9월 동안 조사 자료 검수를 완료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501부(독일 250부, 프랑스 251부) 중에서 최종 분석된 설문지는 독일 235부, 프랑스 249부로 최종 484부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목적과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t-검증, 회귀분석 등의 통계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2. 설문조사 응답자 배경 특성

최종분석에 활용된 설문조사 응답자수는 전체 484명이며, 독일 235명과 프랑스 249명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설문응답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독일 응답자 중 여학생은 51.5%, 남학생은 48.5%였으며, 응답자 중 대부분의 청소년은 현재 학생(96.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16.69세였다.

프랑스 응답자 중 여학생은 52.6%, 남학생은 47.4%였으며, 독일과 비슷하게 프랑스도 응답자 중 대부분의 청소년이 현재 학생(97.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연령도 독일 응답자와 비슷하게 평균 16.11세로 나타났다.

표 IV-3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235	100	249	100	
성별	남	114	48.5	118	47.4
	여	121	51.5	131	52.6
현재 신분	학생	227	96.6	243	97.6
	직장인	7	3.0	4	1.6
	기타	1	0.4	2	0.8
평균연령(년)	16.69(3.84)		16.11(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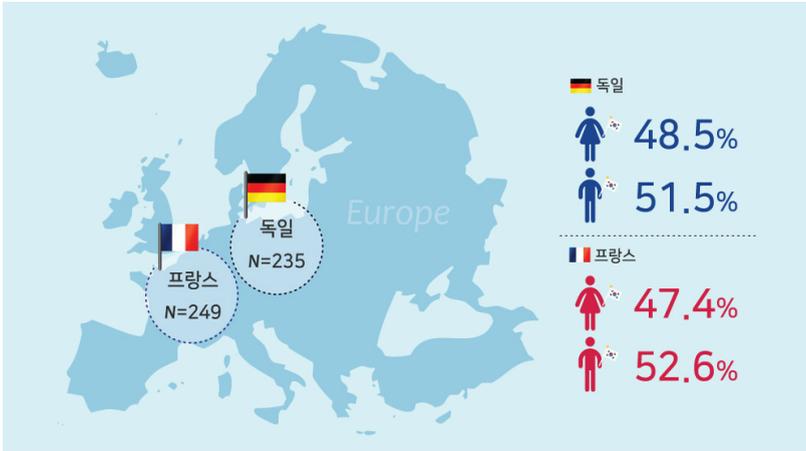


그림 IV-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재외동포청소년이 현재 거주국에 살게 된 이유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거주국에서 출생하게 되어 거주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두 국가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독일 40.9%, 프랑스 46.2%). 즉, 부모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가 독일과 프랑스에 이주하여 해당 거주국에서 태어난 재외동포청소년이 본 조사의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민이 독일과 프랑스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독일 26.4%, 프랑스 32.1%). 독일의 경우 유학과 기타의 비율이 비슷하였지만 유학이 18.7%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도 유학의 비율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15.3%), 독일에 비해 기타의 비율과는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4 거주국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출생	96	40.9	115	46.2
유학	44	18.7	38	15.3
이민	62	26.4	80	32.1
기타 주 ¹⁾	33	14.0	16	6.4

* 주: 1) 기타 사유로는 '부모님 직장 이전'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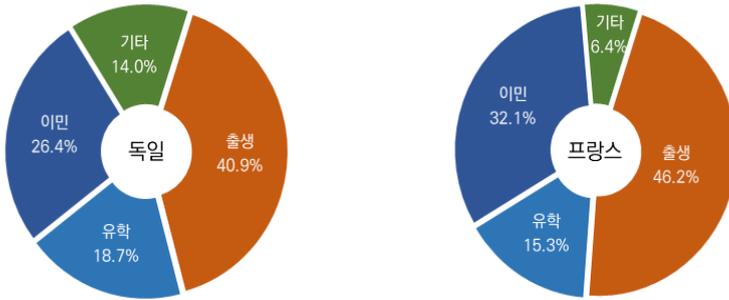


그림 IV-3 거주국 거주 이유

이민 당시 연령을 묻는 질문은 거주국 거주 이유가 이민인 경우에 해당하며, 독일의 경우 이민이라고 응답한 62명 중 59명이 응답하였으며, 프랑스는 80명이 질문에 응답하였다. 독일과 프랑스 두 국가 모두의 이민 시 평균 연령은 각각 8.51세, 8.58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의 범위는 1세에서 18세 혹은 19세로 나타났다.

표 IV-5 이민 당시 연령

구 분	독일		프랑스	
	평균연령	범위	평균연령	범위
이민 당시 연령(년)	8.51(4.92)	1~18	8.58(4.36)	1~19

* 주: 응답 유효수; 독일 N=59, 프랑스 N=80

응답자의 현재 국적을 묻는 질문에 두 국가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항목은 대한민국이었다(독일 60.4%, 프랑스 51.4%).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 응답자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은 대한민국, 다음으로 독일 시민권자(28.9%), 이중국적(8.5%) 순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도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은 대한민국, 다음으로 프랑스 시민권자(30.5%), 이중국적(18.1%)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프랑스의 국적법은 우리나라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IV-6 현재 국적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현재 거주국 시민권자	68	28.9	76	30.5
이중국적 (거주국+대한민국)	20	8.5	45	18.1
대한민국	142	60.4	128	51.4
기타	5	2.1	0	0.0

부모의 한국인 여부는 부모의 국적 보다는 인종이 무엇인지로 질문하였다. 독일의 경우 응답자 중 94.0%가 부모 모두 한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어머니만 한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5.5%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부모 모두 한인이라는 응답은 82.3%로 독일보다 낮게 나타났고, 어머니만 한인이라는 비율은 17.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 응답자 부모의 국제결혼 비율이 독일보다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소수 응답이지만 아버지만 한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두 국가 모두에서 0.4%로 나타났다.

표 IV-7 부모의 인종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부모 모두 한인	221	94.0	205	82.3
어머니만 한인	13	5.5	43	17.3
아버지만 한인	1	0.4	1	0.4
부모 모두 한인 아님	0	0.0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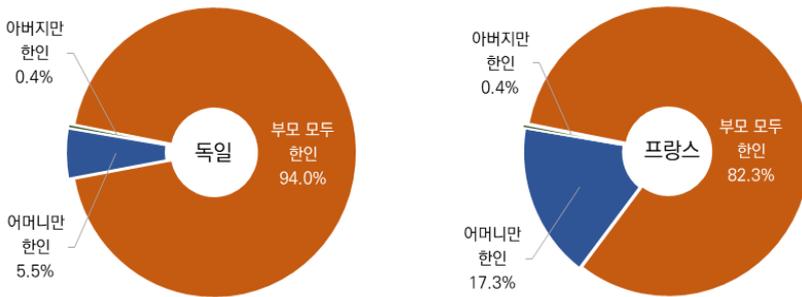


그림 IV-4 부모의 인종

3. 설문조사 주요 결과

설문조사 분석은 먼저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의 실태와 정체성 관련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재외동포청소년들과의 교류 경험 및 욕구와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자신의 역할 기여,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1) 실태조사 결과

(1) 한국·한국어 교육기관 관련

한글학교 혹은 한국어 관련 교육기관을 다녀본 경험 여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다녀본 응답자가 61.7%, 다녀본 적이 없는 응답자가 38.3%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결과는 다녀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67.9%, 다녀본 적이 없는 응답자가 32.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한글학교나 한국어 관련 교육기관에 다녀본 적이 있음을 시사한다.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여자 응답자가 55.9%로 남자 응답자 44.1%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남자 응답자의 비율이 51.5%로 여자 응답자 48.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8 한글·한국어 관련 교육기관 경험 유무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있다	전체	145	61.7	169	67.9
	여	81	55.9	82	48.5
	남	64	44.1	87	51.5
없다	전체	90	38.3	80	32.1
	여	40	44.4	49	61.2
	남	50	55.6	31	38.8
χ^2		2.90 (d.f.=1)		3.53 (d.f.=1)	

*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글학교 혹은 한국어 관련 교육기관을 다녀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평균 재학기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4.37년, 프랑스의 경우 2.72년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재학기간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독일 응답자의 경우 재학 경험이 있는 145명 중 재학기간에 응답한 응답자는 71.7%(104명)이었지만, 프랑스의 경우 재학 경험이 있는 169명 중 94.7%(160명)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두 국가의 평균 재학기간의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표 IV-9 한글·한국어 관련 교육기관 평균 재학 기간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재학 기간(년)	전체	104	4.37	2.58	160	2.72	1.59
	여	57	4.61	2.49	78	2.83	1.81
	남	47	4.01	2.68	82	2.62	1.36
F		1.14			.68		

* 주: 1) * $p < .05$, ** $p < .01$, *** $p < .001$

평균 재학기간의 범위를 살펴보면, 독인은 0.1년~9년, 프랑스는 0.4년~8년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최빈값 결과를 살펴보면, 독인 응답자는 3년, 프랑스는 1년 정도 한글학교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한글·한국어 관련 교육기관 평균 재학 기간별 분류

구 분	평균 (년)	범위	중위수	최빈값	백분위수		
					25	50	75
독일	4.37	0.1~9.0	4.00	3.00	2.00	4.00	7.00
프랑스	2.72	0.4~8.0	2.50	1.00	1.50	2.50	4.00

한국어 관련 교육기관에 다니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두 국가 모두에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한글학교나 한국어 교육기관에 다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모의 관심과 권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부모의 권유 42.6%, 나는 한국인라고 생각해서 22.6%, 진로나 취업에 도움이 6.8%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도 독일의 결과와 유사하게 부모의 권유 54.6%,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 25.3%, 진로나 취업에 도움이 1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 한글·한국어 관련 교육 기관에 다니게 된 이유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	53	22.6	63	25.3
진로나 취업에 도움	16	6.8	28	11.2
한국어,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10	4.3	21	8.4
부모님의 권유	100	42.6	136	54.6
친구의 권유	4	1.7	6	2.4
기타	5	2.1	6	2.4

* 주: 1. 중복응답 가능 질문; 2. 비율은 항목 응답자/전체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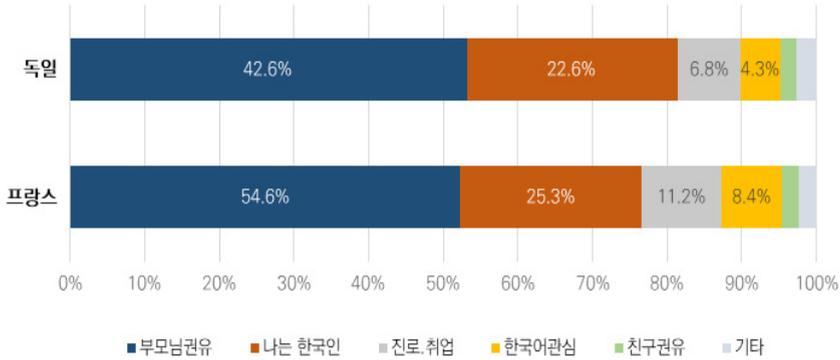


그림 IV-5 한글·한국어 관련 교육 기관에 다니게 된 이유

(2) 한국어 능력과 관심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살펴보았다.

국가별·문화별로 살펴보면, 독일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는 응답이 평균 4.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가 4.51점으로 타나났다. 프랑스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가 4.69점으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가 4.66점으로 높았다.

흥미롭게, 두 국가 모두에서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높은 평균, 한국어 쓰기 능력이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서 한국어 듣기와 이해하기 능력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재외동포청소년의 부모가 한국인 이어서 가정 내 부모가 한국어로 대화했을 가능성과 한국어 관련 교육 기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어 쓰기의 평균은 두 국가 모두에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쓰기 능력에 대한 낮은 주관적 평가는 언어 습득 과정 중 글을 쓰는 과정이 가장 늦게 학습하는 과정이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일 가능성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표 IV-12 한국어 능력 - 문항별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4	4.48	0.74	249	4.50	0.70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233	4.46	0.84	249	4.66	0.70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234	4.55	0.71	248	4.69	0.56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	234	4.51	0.81	249	4.41	0.89
한국어를 쓸 수 있다	234	4.38	0.91	249	4.25	1.04

* 주: 전체는 한국어 사용 능력과 관련한 4문항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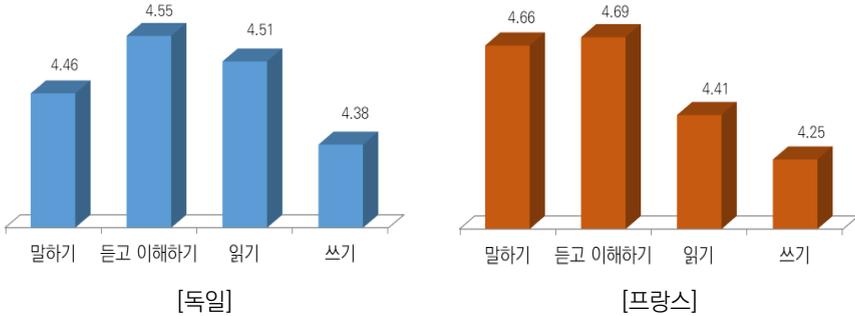


그림 IV-6 한국어 능력-문항별

설문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을 한국어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국가 모두에서 한국어 교육 경험의 유무와 주관적 한국어 능력 평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동포청소년의 특성인 거주국에서 출생, 이민, 유학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출생자와 초등학교 이후 이민 온 청소년, 유학 등의 이유로 거주국에 거주하게 된 응답자의 특성이 다양하여 그 결과가 주관적 한국어 능력 평가의 평균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IV-13 한국어 능력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능력	전체	234	4.48	0.74	249	4.50	0.70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144	4.50	0.75	169	4.46	0.65
	한국어 교육 경험 없음	90	4.44	0.72	80	4.59	0.79
<i>F</i>		.30			1.95		

* 주: * $p < .05$, ** $p < .01$, *** $p < .001$

재외동포청소년 중 거주국 출생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경험의 유무와 주관적 한국어 능력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에서 출생한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 평균이 4.25점으로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평균인 3.63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0.01$, $p < .01$).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독일의 경우에도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한국어 능력 평균(4.30점)이 경험이 없는 응답자(3.99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국에서 출생한 재외동포청소년에게 한국어 관련 교육 경험이 이들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주관적 평가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4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 교육 경험 - 거주국 출생자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능력	전체	95	4.22	0.87	115	4.16	0.77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70	4.30	0.87	98	4.25	0.69
	한국어 교육 경험 없음	25	3.99	0.86	17	3.63	0.97
<i>F</i>		2.29			10.01**		

*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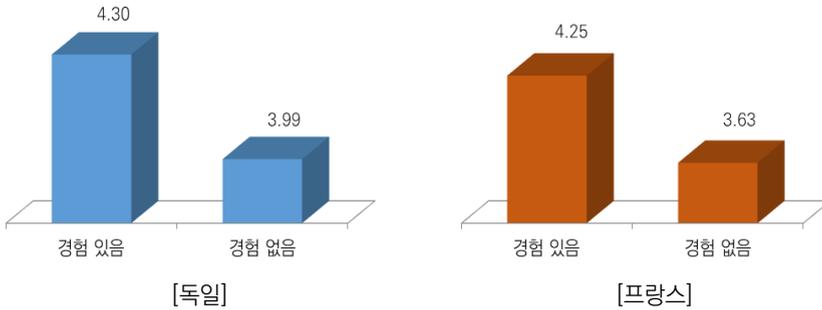


그림 IV-7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 교육 경험

응답자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인 관심과 계속 배우고 싶은지를 묻는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국가별·문항별로 살펴보면, 독일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평균이 4.00점, 배우고 싶은 의지의 평균이 3.82점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도 비슷하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평균이 3.97점, 배우고 싶은 의지의 평균이 3.82점으로 나타났다.

표 IV-15 한국어에 대한 관심 - 문항별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4	3.91	0.99	249	3.89	0.94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234	4.00	0.98	249	3.97	0.86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다	234	3.82	1.18	249	3.82	1.18

* 주: 전체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관련한 2문항의 평균임

설문 응답자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한국어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국가 모두에서 한국어 교육 경험의 유무와 주관적 한국어 능력 평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응답자의 경우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평균이 4.01점으로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평균인 3.74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28, p<.05$). 프랑스도 유사하게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평균이 4.03점으로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평균인 3.61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1.23, p<.001$).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 경험이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동기 유발과 관련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6 한국어에 대한 관심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관심	전체	234	3.91	0.99	249	3.89	0.94
	한국어 교육 경험 있음	144	4.01	0.91	169	4.03	0.90
	한국어 교육 경험 없음	90	3.74	1.09	80	3.61	0.97
<i>F</i>		4.28*			11.43***		

* 주: * $p<.05$, ** $p<.01$, *** $p<.001$

(3) 한국 관련 관심과 실생활

부모와 한국과 관련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이 부모와 한국어로 대화하는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지, 음악 등을 듣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전체 평균은 독일 4.27점, 프랑스 4.15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한국어 사용과 음식과 관련하여서는 4.48점으로 평균이 같았으며, 문화 관련 활동은 3.8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어 사용이 4.5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식 만들어 먹기가 4.35점, 문화 관련 활동이 3.5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7 가정 내 한국과 관련한 생활 - 문항별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7	4.27	0.76	249	4.15	0.89
부모와 대화 시 한국어 사용	227	4.48	0.92	249	4.53	0.86
부모와 한국 음식 만들어 먹기	227	4.48	0.78	249	4.35	0.87
부모와 한국 드라마, 음악 시청	227	3.85	1.28	249	3.57	1.46

* 주: 전체는 관련한 3문항의 평균임

재외동포청소년이 거주국에 거주하게 된 이유를 중심으로 가정 내 한국과 관련한 생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거주 이유에 따른 한국 관련 생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5.15, p<.01$). 사후분석 결과, 이민과 기타 사유로 독일에 거주하게 된 응답자의 가정 내 한국 관련 생활의 평균이 출생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5.71, p<.001$), 사후분석 결과도 독일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가정 내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어 사용, 음식, 문화 등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표 IV-18 가정 내 한국과 관련한 생활과 거주 이유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거주 이유	출생	90	4.10	0.95	115	3.93	1.00
	유학	43	4.16	0.62	38	4.25	0.83
	이민	62	4.46	0.54	80	4.29	0.72
	기타	32	4.57	0.50	16	4.73	0.44
F (사후분석)		5.15** (이민, 기타 > 출생)			5.71*** (이민, 기타 > 출생)		

* 주: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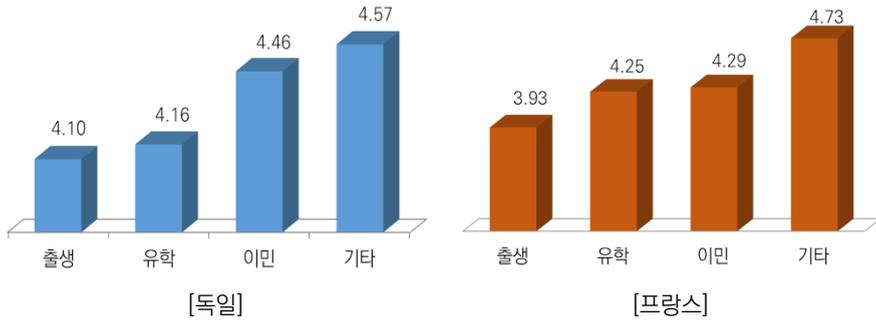


그림 IV-8 가정 내 한국 관련 생활과 거주 이유

응답자의 한국 관련 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평균은 독일 3.78점, 프랑스 3.71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 모두에서 관심의 정도 보다는 실제로 찾아서 보고 즐기는 활동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한국 관련 문화에 대한 관심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7	3.78	1.19	249	3.71	1.24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227	3.89	1.18	249	3.89	1.17
한국 대중문화 등을 찾아봄	226	3.67	1.48	249	3.67	1.47

* 주: 전체는 관련한 2문항의 평균임

거주 이유에 따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경우 거주 이유에 따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4.47, p<.01$). 사후분석 결과, 이민과 기타 사유로 프랑스에 거주하게 된 응답자가 출생자에 비해 한국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거주 이유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거주 이유	출생	90	3.65	1.29	115	3.43	1.19
	유학	43	3.70	1.18	38	3.86	1.14
	이민	62	3.97	1.06	80	3.91	1.27
	기타	32	3.91	1.19	16	4.38	1.20
F (사후분석)		1.06			4.47** (이민, 기타 > 출생)		

* 주: * $p<.05$, ** $p<.01$, *** $p<.001$

2) 정체성 조사 결과

(1) 나의 정체성

응답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 모두에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독일 52.4%, 프랑스 59.3%). 다음으로 한국계 독일인 또는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독일 38.0%, 프랑스 30.6%).

표 IV-21 나의 정체성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한국인	120	52.4	147	59.3
한국계 독일인/프랑스인	87	38.0	76	30.6
제3의 정체성(한국인도 독일/프랑스인도 아닌)	7	3.1	16	6.5
독일인/프랑스인	9	3.9	8	3.2
기타	6	2.6	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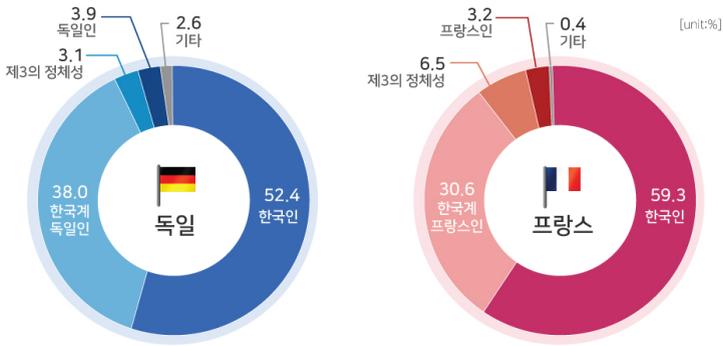


그림 IV-9 나의 정체성

응답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거주 이유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일 출생자의 경우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26.1%)보다 한국계 독일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63.0%)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민을 온 응답자의 경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이라고 규정하는 비율(72.6%)이 한국계 독일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22.6%)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동포청소년이 거주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할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순수 한국인 보다는 거주국의 한국계로 인식, 즉 이중정체성을 가지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독일 출생자라도 응답자는 자신을 독일인으로 인식하는 비율(7.6%)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22 거주 이유와 나의 정체성-독일

구분	한국인		한국계 독일인		제3의 정체성		독일인		기타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출생	24	26.1	58	63.0	1	1.1	7	7.6	2	2.2
유학	21	50.0	15	35.7	3	7.1	1	2.4	2	4.8
이민	45	72.6	14	22.6	1	1.6	0	0.0	2	3.2
기타	30	90.9	0	0.0	2	6.1	1	3.0	0	0.0
χ^2	70.57*** (d.f.=12)									

*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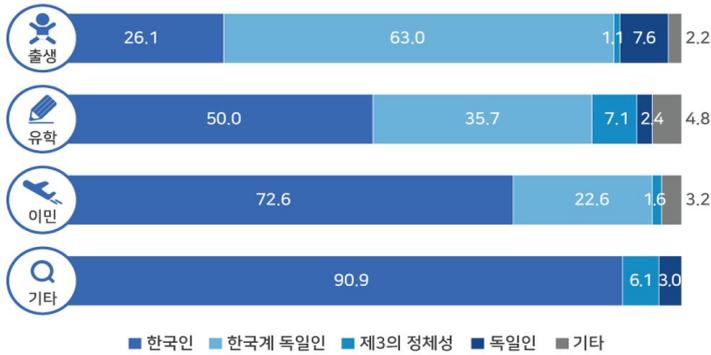


그림 IV-10 거주 이유와 나의 정체성 - 독일

프랑스의 경우도 출생 또는 유학과 이민에 따라 응답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프랑스 출생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1.7%였지만, 한국계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9.1%로 높았다. 반면 이민 온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1.2%로 한국계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인 7.5%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과 유사하게, 재외동포청소년이 거주국에서 출생할 경우는 거주국의 한국계(이중정체성)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자신을 프랑스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23 나의 정체성과 거주 이유-프랑스

구분	한국인		한국계 프랑스인		제3의 정체성		프랑스인		기타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출생	25	21.7	68	59.1	14	12.2	8	7.0	0	0.0
유학	35	94.6	1	2.7	1	2.7	0	0.0	0	0.0
이민	73	91.2	6	7.5	1	1.2	0	0.0	0	0.0
기타	14	87.5	1	6.2	0	0.0	0	0.0	1	6.2
χ^2	142.82*** (d.f.=12)									

*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11 거주 이유와 나의 정체성 - 프랑스

(2)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정체성은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주하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평균은 독일 3.99점, 프랑스 4.12점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문항별로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4.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3.94점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4.2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타인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4.16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

또는 프랑스 한인사회의 역사와 관련한 평균은 두 국가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독일 2.75점, 프랑스 2.58점). 이러한 결과는 독일과 프랑스의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 역사에 대한 자부심 등은 평균 4점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거주국의 이민이나 동포 역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4 한민족정체성-문항별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5	3.99	0.86	249	4.12	0.72
한민족정체성 1	235	4.11	0.95	249	4.22	0.85
한민족정체성 2	235	3.94	1.03	249	3.99	0.86
한민족정체성 3	235	3.93	1.07	249	4.16	1.02
한민족정체성 4	235	2.75	1.08	249	2.58	1.45

* 주: 1) 전체는 한민족정체성1번~4번의 평균임
 2) 한민족정체성1: 나의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한민족정체성2: 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민족정체성3: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주한다, 한민족정체성4: 나는 독일/프랑스 한인사회의 역사에 대해 잘 안다.

거주 이유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경우는 거주 이유에 따라 한민족정체성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92$, $p<.01$).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민 온 응답자의 한민족정체성의 평균이 4.27점으로 프랑스 출생 청소년의 평균인 3.9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이민 온 청소년의 평균점수가 4.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국에서 출생한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이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도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25 한민족정체성과 거주 이유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거주 이유	출생	96	3.94	0.89	115	3.98	0.74
	유학	44	3.84	0.91	38	4.32	0.72
	이민	62	4.12	0.83	80	4.27	0.64
	기타	33	4.09	0.74	16	3.96	0.81
F (사후분석)		1.19			3.92** (이민 > 출생)		

*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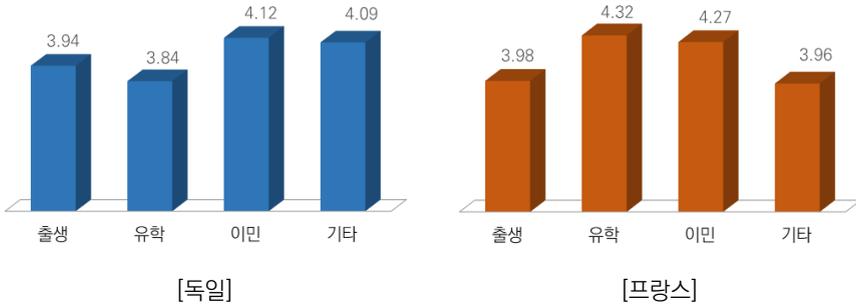


그림 IV-12 거주 이유와 한민족정체성

(3) 한국 관련 지식과 인식

한국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역사, 문화, 기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독일의 경우, 알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다는 응답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 문화 3.78점, 역사가 3.42점 순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독일과 비슷하게 프랑스 응답자의 평균도 기업(4.31점), 문화(3.37점), 역사(2.66점) 순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는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2.66점으로 평균 3점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지만, 기업에 대한 지식 정도는 4.3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표 IV-26 한국 관련 지식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5	3.78	0.84	249	3.45	0.84
한국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35	3.42	1.03	249	2.66	1.11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34	3.78	0.94	249	3.37	1.02
알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다	233	4.16	1.01	249	4.31	0.91

* 주: 전체는 관련한 3문항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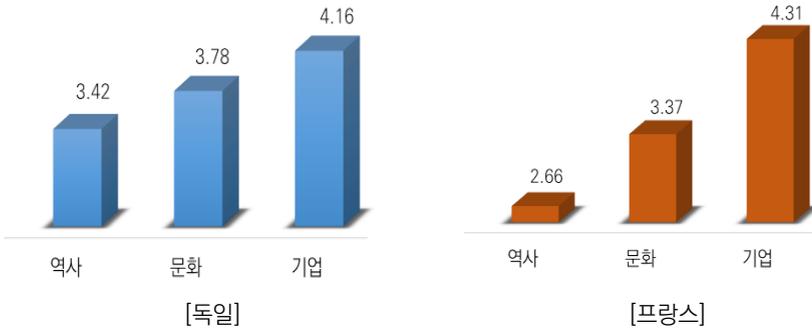


그림 IV-13 한국 관련 지식

거주 이유에 따른 한국에 대한 지식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에서 거주 이유에 따른 한국에 대한 지식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독일 $F=8.33, p<.001$, 프랑스 $F=14.37, p<.001$).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국가 공통적으로 이민 온 응답자의 한국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7 한국 관련 지식과 거주 이유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거주 이유	출생	96	3.50	0.82	115	3.15	0.76
	유학	44	3.75	0.60	38	3.60	0.79
	이민	62	4.09	0.82	80	3.62	0.82
	기타	33	4.04	0.93	16	4.33	0.58
<i>F</i> (사후분석)		8.33*** (이민, 기타 > 출생)			14.37*** (기타 > 유학, 이민 > 출생)		

*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국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국가 모두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라는 인식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독일 4.24점, 프랑스 4.46점) 시민의식이 성숙한 국가라는 인식의 평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독일 3.41점, 프랑스 3.53점). 독일의 경우는 경제(4.24점), 문화(4.04점), 안전(3.62점), 시민의식(3.41점) 순으로 한국 관련 인식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경제(4.46점), 안전(4.43점), 문화(4.10점), 시민의식(3.53점)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과 프랑스의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발전한 국가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보이지만, 시민의식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국가로 보인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표 IV-28 한국 관련 인식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5	3.83	0.68	249	4.13	0.68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	234	4.24	0.80	248	4.46	0.65
문화적으로 발전한 국가	234	4.04	0.86	248	4.10	0.95
시민의식이 성숙한 국가	230	3.41	1.03	245	3.53	1.24
어디든 갈 수 있는 안전한 국가	235	3.62	1.04	249	4.43	0.73

* 주: 전체는 관련한 4문항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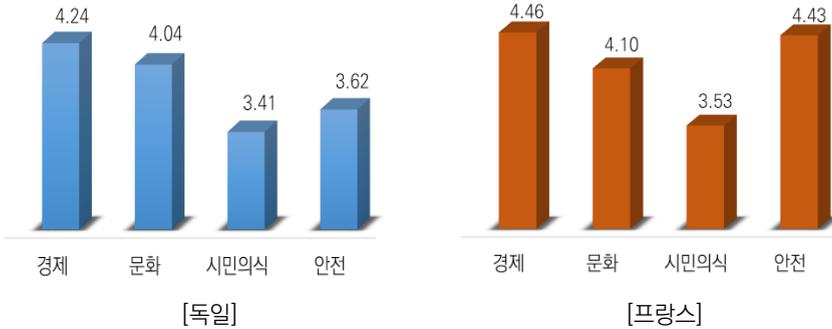


그림 IV-14 한국 관련 인식

3) 교류 경험 및 욕구 조사 결과

(1)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경험

한인 청소년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매우 자주라는 응답 비율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주라고 응답한 비율도 26.1%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 많은 청소년들이(약 67%) 자주 혹은 매우 자주 한인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매우 자주라고 응답한 비율은

19.7%이고 자주라는 응답의 비율은 16.9%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3%, 거의 없다는 응답도 26.1%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9 동포청소년과 교류 경험

구 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한인 청소년들과 만나거나 연락한다	독일	14(6.0)	21(9.0)	43(18.4)
	프랑스	43(17.3)	65(26.1)	50(20.1)	42(16.9)	49(19.7)

* 주: 내용은 사례수(명)와 비율임.

한인 청소년들의 교류 장소는 두 국가 모두에서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에서 교류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독일 38.3%, 프랑스 44.0%), 다음으로 한글학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독일 21.2%, 프랑스 21.9%). 이러한 결과는 이민 사회에서 종교단체가 재외동포의 중요한 교류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한글학교가 한국어 교육과 함께 동포청소년의 교류 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표 IV-30 동포청소년과 교류 장소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정규학교	56	12.8	49	13.1
한글학교	93	21.2	82	21.9
교회, 성당 등 종교단체	168	38.3	165	44.0
학교 밖 여가활동	90	20.5	59	15.7
기타	32	7.3	20	5.3

(2) 한국 관련 교류 욕구와 관련 요인

한국 관련 교류 욕구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공부와 일과 관련해서는 아니오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시적 체류는 예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공부와 일은 예와 아니오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일시적 체류는 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동포청소년이 한국에서 공부나 직업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장기간 체류하는 것보다는 여행이나 단기 체류와 같은 일시적 체류를 선호함을 시사한다.

표 IV-31 한국 관련 교류 욕구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공부(유학)	예	79	34.2	127	51.0
	아니오	152	65.8	122	49.0
일	예	78	33.6	117	47.0
	아니오	154	66.4	132	53.0
일시적 체류	예	190	81.9	171	68.7
	아니오	42	18.1	78	31.3



그림 IV-15 한국 관련 교류 욕구

응답자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개인적 한국 방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0.8%), 한류의 영향 (18.5%)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는 부모 등의 관심과 교육(18.9%)과 인터넷의 영향(18.4%)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한국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요인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	91	13.2	140	18.9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	115	16.6	113	15.3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 등	128	18.5	108	14.6
인터넷사이트 방문이나 SNS활동	92	13.3	136	18.4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38	5.5	51	6.9
개인적 한국 방문	144	20.8	103	13.9
교환학생	22	3.2	3	0.4
거주국에서 열린 한민족 캠프나 축제 참여	35	5.1	47	6.4
한국에서 열린 한민족 캠프나 축제 참여	26	3.8	38	5.1

* 주: 1. 중복응답 가능 질문; 2. 비율은 항목 응답자/전체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

반대로 응답자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 혹은 관련한 경험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에서 한국 조직이나 기업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독일 19.9%, 프랑스20.8%). 다음으로 관련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방해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IV-33 한국 관련 경험을 어렵게 하는 요인

구 분	독일		프랑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한국 국적	30	6.2	40	10.0
한국어 능력	76	15.8	38	9.5
군복무	47	9.8	12	3.0
한국 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	94	19.5	67	16.8
한국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 부족	67	13.9	58	14.5
경제적 어려움	46	9.5	77	19.3
한국 조직/기업문화 적응에 대한 두려움	96	19.9	83	20.8
혼자 생활의 두려움	26	5.4	25	6.3

* 주: 1. 중복응답 가능 질문; 2. 비율은 항목 응답자/전체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

(3)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재외동포청소년이 한국과의 교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을 원하는지 조사하였다. 평균 4점 이상의 항목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한국 방문기회 4.42점, 한국 관련 교육 지원 4.19점,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4.05점, 거주국 내 한인 청소년들과 직접 교류 지원 4.01점 순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 방문 기회 4.51점, 한국 관련 교육 지원 4.37점, 취업 등 정보 제공 4.14점,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4.08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독일과 프랑스 모두에서 한국 방문 기회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모국을 방문해 경험하고 다양한 기회를 얻고자 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욕구가 이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관련 교육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국에서 한국어 또는 관련한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 받고 싶은 청소년들의 희망이 포함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표 IV-34 지원에 대한 욕구

구 분	독일			프랑스		
	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평균	표준편차
한국 방문 기회	1	4.42	0.79	1	4.51	0.75
한국 관련 교육 지원	2	4.19	0.88	2	4.37	0.80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	3	4.05	0.96	4	4.08	1.00
거주국 내 한인청소년들과 직접 교류	4	4.01	0.92	5	3.85	0.98
취업 또는 진로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5	3.99	1.00	3	4.14	1.10
온라인 교류 기회	6	3.71	1.12	6	3.43	1.21

4)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

응답자들이 재외동포사회와 한국 사회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할 수 있을지 질문 하였다. 독일의 경우 거주국에서 한국문화를 알린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3.69점). 반면 남북통일 기여의 점수는 2.8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도 거주국에서 한국문화를 알린다는 응답이 4.10점으로 가장 높게, 남북통일에 기여는 3.3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기여는 거주국에서 한국문화를 알리는 등의 가능성 있는 직접적 활동들이다. 반대로 남북통일과 같은 이슈에서는 실제 기여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해당 이슈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표 IV-35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

구 분	독일		프랑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거주국에 한국문화를 알림	3.69	1.00	4.10	0.91
거주국 내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	3.50	1.02	3.81	0.96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을 도움	3.34	1.09	3.96	0.94
국제사회에서 남북통일에 기여	2.87	1.21	3.37	1.14

5)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재외동포청소년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사소통능력, 창의적사고, 문제해결력,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 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의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 책임의식이 4.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사소통능력 3.96점, 세계 시민의식 3.80점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균은 국가정체의식 역량(3.21점)으로, 국가정체의식은 독일의 문화와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명성을 유지하려는 역량이다. 독일 재외동포청소년 응답자들의 국가정체의식은 다른 역량의 평균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점수이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 책임의식이 4.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계 시민의식 4.19점, 의사소통능력이 3.98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균은 창의적사고 역량으로 3.79점이었다.

두 국가 모두에서 사회적 책임의식 역량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세계 시민의식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이는 유럽 지역인 독일과 프랑스의 문화와 교육 환경에 따른 영향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IV-36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구 분	독일		프랑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능력	3.96	0.66	3.98	0.60
창의적사고	3.52	0.76	3.79	0.73
문제해결력	3.77	0.68	3.92	0.74
사회적 책임의식	4.05	0.72	4.34	0.72
세계 시민의식	3.80	0.68	4.19	0.61
국가정체의식	3.21	0.93	3.81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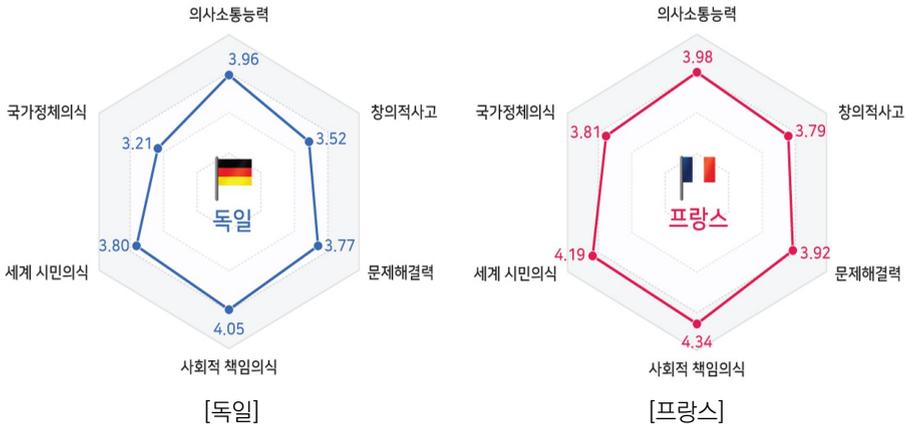


그림 IV-16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의사소통능력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 두 국가 모두에서 타인과 생각이 달라도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독일 4.12점, 프랑스 4.28점).

표 IV-37 의사소통능력 측정문항별 평균

구 분	독일		프랑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3.87	0.94	4.11	0.84
2.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4.00	0.88	3.87	0.96
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 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3.89	0.91	3.68	1.12
4.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4.12	0.92	4.28	0.77

창의적사고 역량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부분적 내용을 듣고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의 경우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3.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38 창의적사고 측정문항별 평균

구 분	독일		프랑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3.48	0.95	3.91	0.84
2.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3.65	0.90	3.82	0.93
3.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지어 생각한다.	3.44	0.92	3.65	1.04

문제해결력 역량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문제 해결 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문항의 평균이 3.83점으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의 경우는 새로운 과제 시작 전 과거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문항이 3.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39 문제해결력 측정문항별 평균

구 분	독일		프랑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3.80	0.82	3.84	0.99
2.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3.83	0.86	3.94	0.97
3. 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할 때 지난 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	3.69	0.97	3.99	0.90

사회적 책임의식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타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17점으로 나타났고, 프랑스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4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0 사회적 책임의식 측정문항별 평균

구 분	독일		프랑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7	0.93	4.32	0.85
2.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09	0.88	4.49	0.75
3.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89	0.85	4.21	0.96

세계시민의식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와 관련한 문항의 평균이 4.05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프랑스의 경우 세계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4.2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1 세계시민의식 측정문항별 평균

구 분	독일		프랑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3.26	1.01	4.08	0.87
2.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3.88	0.93	4.29	0.80
3.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4.00	0.86	4.18	0.74
4.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4.05	0.85	4.21	0.76

국가정체의식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독일 응답자의 경우 독일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평균이 3.3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독일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 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2.9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15점의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나, 프랑스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4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42 국가정체의식 측정문항별 평균

구 분	독일		프랑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독일/프랑스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3.30	1.06	4.15	0.89
2. 나는 독일/프랑스의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3.37	1.09	3.40	0.91
3. 나는 독일/프랑스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	2.97	1.10	3.88	0.99

6) 재외동포청소년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변수와 분석 방법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과 동포사회 기여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어 또는 한국 관련 인식과 관련 생활태도,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 첫 번째 분석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을 투입하여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고, 두 번째 분석에서는 동포사회 기여에 대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변인인 거주 국가, 성별, 나이, 거주 이유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한국어 관련 교육경험, 3단계에서는 한국 관련

활동, 관심, 지식 관련 변인을 투입하고, 4단계에서는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과 관련한 변인을 투입하였다.

개인 변인 중 거주 국가 구분은 독일=1, 프랑스=0, 성별은 남성=1, 여성=0, 거주 이유는 출생=1, 이민, 유학, 기타=0로 나이는 평균중심화 점수를 투입하였다. 한국어 관련 교육경험 중 교육 기관 경험은 있다=1, 없다=0, 다닌 기간은 평균중심화 점수(년)를 투입하였다. 3단계와 4단계에 투입된 한국 관련 요인과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변수 모두는 평균중심화 점수를 사용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2) 분석 결과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 Model 4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6.75, $p < .001$).

개인변인 중 성별과 나이가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한민족정체성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관련한 변인 들 중 한국어에 대한 관심, 한국어 능력, 한국 관련 지식, 한국 관련 인식의 평균이 높을수록 한민족정체성의 평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재외동포청소년,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재외동포청소년, 한국관련 지식이 많다고 인식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중, 세계시민의식과 국가정체의식이 높은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에 대한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자세와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을 측정하는 요인이다. 즉, 타 문화에 대해 수용력이 높은 재외동포청소년이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정체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거주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우수성에 대한 측정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의 거주국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재외동포 청소년이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과 자신감도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V-43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 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s.e)	β	B(s.e)	β	B(s.e)	β	B(s.e)	β
상수	4.24*** (.07)		4.14*** (.14)		4.07*** (.12)		3.96*** (.12)	
개인변인								
거주국가(독일=1, 프랑스=0)	-.14 (.07)	-.09	-.13 (.08)	-.08	-.10 (.07)	-.06	.09 (.07)	.06
성별(남=1, 여=0)	-.07 (.07)	-.04	-.06 (.07)	-.04	-.08 (.06)	-.05	-.14* (.06)	-.09
나이	-.05*** (.01)	-.23	-.05*** (.01)	-.21	-.04*** (.01)	-.17	-.04*** (.01)	-.19
거주이유(출생=1, 이민 등=0)	-.16* (.08)	-.10	-.20** (.02)	-.13	-.07 (.07)	-.04	-.08 (.07)	-.05
한국어 관련 교육 경험								
교육 기관 경험(유=1, 무=0)			.15 (.11)	.09	.10 (.09)	.06	.14 (.09)	.09
교육 기관 다닌 기간(년)			.00 (.02)	-.018	-.02 (.02)	-.05	-.03 (.02)	-.08
한국 관련 활동, 관심, 지식								
가정 내 관련 활동					.02 (.05)	.02	.03 (.05)	.03
문화에 대한 자발적 관심					.06 (.03)	.09	.04 (.03)	.06
한국어에 대한 관심					.21*** (.03)	.26	.20*** (.06)	.25
한국어 능력					.05 (.06)	.04	.07* (.05)	.07
한국 관련 지식					.16*** (.05)	.18	.12** (.05)	.13
한국 관련 인식					.29*** (.05)	.26	.26*** (.06)	.23

구 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s.e)	β	B(s.e)	β	B(s.e)	β	B(s.e)	β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의사소통능력							-.01 (.05)	-.01
창의적사고							.07 (.05)	.07
문제해결력							-.01 (.04)	-.01
사회적책임							.05 (.04)	.04
세계시민의식							.20*** (.05)	.17
국가정체의식							.10** (.04)	.10
통계량	R^2	.063	.065	.389	.436			
	R^2 변화량	.072	.007	.328	.054			
	F 변화량	8.13***	1.53	38.17***	6.75***			

* 주: * $p < .05$, ** $p < .01$, *** $p < .001$

동포사회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모형 Model 4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15.37, $p < .001$).

개인변인 중 거주국가, 성별, 거주이유가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청소년 또는 남학생이 동포 한인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거주국에서 출생한 재외동포청소년보다는 이민과 유학 등의 이유로 거주하게 된 재외동포청소년이 동포사회에서의 자신의 기여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관련한 변인들 중 한국 관련 지식과 한국 관련 인식의 평균이 높을수록 동포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인식이 긍정적인 재외동포청소년이 동포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중, 의사소통능력, 창의적사고, 사회적책임, 국가정체의식이 높은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기여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의사소통능력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개인의 역량을 파악하는 변수로 타인과 대화에서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아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에 기여에 대한 의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새로운 생각과 통합적 사고 역량을 파악하는 창의적사고 능력이 높은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기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책임은 지역사회 개선과 변화를 위한 노력과 관심으로, 이러한 역량이 높은 재외동포청소년이 동포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높은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체성은 거주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우수성과 관련한 역량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자신의 거주국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이 동포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높게 보였다.

표 IV-44 동포사회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구 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s.e)	β	B(s.e)	β	B(s.e)	β	B(s.e)	β
상수	3.86*** (.07)		3.75*** (.14)		3.73*** (.13)		3.69*** (.12)	
개인변인								
거주국가(독일=1,프랑스=0)	-.50*** (.07)	-0.31	-.50*** (.08)	-0.31	-.48*** (.08)	-.30	-.32*** (.08)	-.20
성별(남=1, 여=0)	.19** (.07)	0.12	.20** (.07)	0.12	.20** (.07)	.13	.17* (.07)	.10
나이	-.02 (.01)	-0.07	-.01 (.01)	-0.07	-.01 (.01)	-.06	-.01 (.01)	-.04
거주이유(출생=1,이민 등=0)	-.31 (.07)	-0.19	-.32*** (.08)	-0.19	-.14 (.08)	-.08	-.15* (.07)	-.09
한국어 관련 교육 경험								

구 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s.e)	β	B(s.e)	β	B(s.e)	β	B(s.e)	β
교육 기관 경험(유=1, 무=0)			-.02 (.11)	-0.01	.04 (.10)	.03	.01 (.09)	.00
교육 기관 다닌 기간(년)			.01 (.02)	-0.02	-.01 (.02)	-.02	-.01 (.02)	-.34
한국 관련 활동, 관심, 지식								
가정 내 관련 활동					.04 (.06)	.04	.04 (.05)	.04
문화에 대한 자발적 관심					.04 (.04)	.06	.04 (.04)	.06
한국어에 대한 관심					.01 (.04)	.01	-.01 (.04)	-.02
한국어 능력					.10 (.07)	.17	.17* (.06)	.06
한국 관련 지식					.16** (.05)	.17	.14** (.05)	.15
한국 관련 인식					.22*** (.06)	.19	.14** (.05)	.12
미래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의사소통능력							.25*** (.06)	.20
창의적사고							.10* (.05)	.10
문제해결력							-.08 (.05)	-.08
사회적책임							.18*** (.05)	.17
세계시민의식							-.04 (.06)	-.04
국가정체의식							.21*** (.04)	.22
통계량	R^2	.130	.126		.267		.393	
	R^2 변화량	.138	.001		.149		.131	
	F 변화량	16.86***	.16		14.46***		15.37***	

* 주: * p <.05, ** p <.01, *** p <.001



그림 IV-17 한민족정체성과 동포사회 기여를 예측하는 요인

4. 소결

지금까지 독일과 프랑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설문조사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표 IV-45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구분	주요 분석 결과	시사점
실태 조사	① 재외동포의 다민종·다민족화 - 거주국 출생 후 성장하는 재외동포청소년 증가 - 혼외 결혼(한-독, 한-불 가정)의 증가로 혼혈 재외동포청소년의 증가	• 거주국의 다양한 문화, 교육, 가정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한민족정체성, 한글 교육의 변화 필요
	② 한글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부모의 권유	• 한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부모 교육과 홍보가 뒷받침되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정책이 필요
	③ 한글(한국어 관련 교육기관)학교 경험 - 한국어 능력이 높음(거주국 출생자) - 한국어에 대한 관심 높음	• 한글학교의 긍정적 영향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할 정책 필요
	④ 거주국 출생 청소년 (vs. 이민, 유학 등) - 가정 내 한국 관련 활동 적음 -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적음	• 거주국 출생 재외동포청소년과 이민 또는 유학으로 이주한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 필요

구분	주요 분석 결과	시사점
정체성	① 이중정체성 - 거주국 출생자일수록 이중정체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음	• 이중정체성을 경험하는 재외동포청 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
	② 한민족정체성 - 한민족, 역사,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평균 4 점 이상임 - 거주국 한인역사(이주사 등)에 대한 인식은 낮음	• 한국의 역사와 함께 거주국 재외동 포 한인역사 또는 이주사와 관련한 역사 관련 교육의 필요성
	③ 거주국 출생 청소년 (vs. 이민, 유학 등) - 한국에 대한 지식의 평균이 낮음	• 거주국 출생 청소년을 위한 차별화 된 지원 정책 필요
	④ 한민족정체 의식이 높은 재외동포청소년 -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한국관련 지식의 평균이 높고, 한국 관련 인식이 긍정적임	•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어 교육 또는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교류 경험 및 욕구	①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장소는 종교시설 (교회, 성당 등) 또는 한글학교	• 한글학교의 중요 역할: 한글 교육기 관과 동포청소년들의 교류 장소
	②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 한국 방문기회 제공, 한국 관련 교육 지원에 대한 욕구가 1, 2위로 나타남	• 다양한 한국 방문 기회 제공(예: 모국 초청 연수, 방문 체험 프로그램 등)
동포 사회 기여	① 동포사회 기여 의지가 높은 재외동포청소년 - 한국관련 지식의 평균이 높고, 한국 관련 인 식이 긍정적임	•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활동 기회 제공의 중요성
인적 역량 과의 관계	① 한민족정체 의식이 높은 재외동포청소년 -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중 세계시민의식, 국 가정체의식이 높음	• 한민족정체성과 동포사회 기여 의 지와 관련한 역량 중 공통 요인인 국가정체성으로 나타남. 국가정체 성은 거주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 과 우수성과 관련한 역량임. 즉, 국 가인적자원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주국 에서 모범 시민으로 성장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② 동포사회 기여 의지가 높은 재외동포청소년 - 인적자원으로서의 역량 중 의사소통능력, 창의 적사고, 사회적 책임, 국가정체의식이 높음	



제5장 재외동포청소년 면담조사 결과

- 1. 면담조사 및 FGI 개요
- 2. 독일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계자 면담조사 분석 결과
- 3.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계자 면담조사 분석 결과
- 4.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FGI 분석 결과
- 5. 소결

1. 면담조사 및 FGI 개요

유럽지역 중 독일 및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 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FGI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에는 주로 유럽지역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한글학교 교사, 학부모, 청소년과 독일과 프랑스 내 한글학교교장협의회 임원, 한국교육원 원장, 한인회 관계자 등을 포함하였다.

1) 면담조사 개요

(1) 면담조사 절차 및 면담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 학부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독일과 프랑스 지역 내 한글학교 각 2곳씩을 방문하여 해당 한글학교에 소속된 교사, 학부모, 청소년을 면담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45) 이 장은 김정숙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면담조사는 독일과 프랑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한글학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를 소개받고, 그 중에서 각 국가별로 2곳의 한글학교를 선정하였다. 한글학교에 대한 분석의 통일성을 위해, 일시 및 영주 학생들이 섞여 있는 한글학교 1곳과 영주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한글학교 1곳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C, D 한글학교 선정이 가능하였으나, 독일의 경우 일시 및 영주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는 F 한글학교로부터 면담조사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2곳 모두 영주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A, B 한글학교를 선정하였다. 면담조사를 위한 방문 전에 A~D 한글학교 교장에게 조사 협조를 구하고, 성별, 연령, 참여유형(학부모, 청소년, 교사 등)별 면담조사 참여자 섭외를 의뢰하였다.

면담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여 진행하였으며, 면담내용과 면담과정에서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2018년 5월 16일부터 25일⁴⁶⁾ 동안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연구진이 직접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재외동포 청소년의 경우에는 30~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내용은 면담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녹음 자료는 면담 종료 이후 모두 전사하여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읽고 내용을 분류하였다. 면담은 1:1 개별면담 또는 2인씩 짝을 이루어 진행하였다.

46) 5월 17일~19일까지 독일에서 면담이 진행되었고, 5월 21일~25일까지 프랑스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경우, 면담조사가 이루어졌던 당일 A, B 한글학교의 수업이 진행된 반면, 프랑스의 경우 면담조사가 이루어졌던 주에 프랑스 공휴일(C 한글학교)과 소풍(D 한글학교)이 겹쳐 수업이 진행되는 장면을 관찰할 수 없었다. A, B 한글학교의 경우에도 수업이 진행되는 날 교사, 학부모, 청소년 모두에 대한 면담이 가능했기에 면담 진행과 수업에 대한 관찰조사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는 재외동포청소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로부터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된 초점이 있다. 따라서 한글학교 수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 파악을 위해 이루어지는 한글학교 수업에 대한 관찰조사가 반드시 병행될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조사에서 다양한 자료수집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관찰조사가 병행되지 못한 점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면담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면담참여자 별로 구분된다. 우선 면담참여자는 공통적으로 독일 및 프랑스로의 이주배경과 가족구성, 연령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 외, 한글학교 교사에게는 1) 한글학교 교사 경력 및 교사활동 계기, 2)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경험, 3)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학부모에게는 1) 독일/프랑스 정착과정과 이중문화에 대한 적응 경험, 2) 한인사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 3) 한글학교 참여 경험, 4) 자녀교육 및 진로에 대한 입장 등을 조사하였다.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는 1) 독일/프랑스에서의 생활(학교생활, 친구관계, 정체성 문제 등), 2) 한글학교 참여 경험, 3) 거주국에서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지원 욕구(모국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거주국에서 필요한 지원 등)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1) 거주국에서의 성장 경험, 2) 이중문화 적응 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 3) 재외동포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2) 면담조사 참여자

면담조사 참여자 섭외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우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독일과 프랑스 지역에서 의미 있는 지원활동을 하고 있거나 각 국가에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글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후, 재외동포재단과 독일 및 프랑스 내 한글학교협의회의 도움을 얻어 한글학교 4곳에 직접 연구자들이 연락하여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면담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면담 참여자 섭외를 의뢰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 내 한글학교별로 교사, 학부모, 청소년 5~1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이주배경과 한글학교 참여 경험을 지닌 재외동포청소년 및 부모를 포함하였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내 차세대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추가하였다. 이들은 20대~30대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차세대들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미 경험한 당사자이자,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거주국과 한국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면담참여자에 포함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조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의 목적과 출장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참여자에게 면담지를 미리 보내어 효율적인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1:1 면담을 원칙으로 진행하였으나, 대부분 한글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면담조사가 이루어져 학부모와 청소년의 경우 2명씩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면담조사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이 해외출장 중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개별면담은 모두 1회씩 진행하였으며, 면담조사 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메일을 통해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는 총 34명으로 국가별(독일 17명, 프랑스 17명), 참여자 유형별(교사 10명, 학부모 10명, 청소년 8명, 청년 6명) 인원은 <표 V-1>과 같다. 면담조사 참여자 개요는 <표 V-2>와 같다. 면담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V-1 면담조사 참여자

구 분	한글학교	면담 참여자				인원(명)	
		교사	학부모	청소년	청년		
독일	현지	A한글학교	3	2	2	7	
		B한글학교	2	2	2	6	
		차세대(청년)				4	4
프랑스	현지	C한글학교	3	1	2	6	
		D한글학교	2	5	2	9	
		차세대(청년)				2	2
총계			10	10	8	6	34

표 V-2 면담조사 참여자 개요

지역	구분	이름	성별	연령	이주기간	비고
독일	교사	이용철	남	44	4년	유학생
	교사	김승일	남	20	-	한-한 가정 2세, 한글학교 졸업생
	교사	김하연	여	48	26년	교장
	교사	송광호	남	45	16년	유학 후 정착, 한-한 가정
	교사	조정은	여	44	14년	교장
	학부모	문경원	여	46	19년	유학 후 정착, 한-한 가정
	학부모	고혜영	여	42	10년	영국에서 독일 이주
	학부모	이승연	여	42	17년	유학 후 정착, 한-한 가정
	학부모	성세희	여	42	12년	결혼 위해 독일 이주, 한-독 가정
	청소년	박미현	여	15	-	한-한 가정 2세
	청소년	선미	여	15	-	한-독 가정 2세
	청소년	김준성	남	16	-	한-한 가정 2세
	청소년	손승호	남	15	-	한-한 가정 2세
	청년	김미현	여	28	13년	치과의사, 고등학교 때 독일 유학
	청년	오현수	남	27	-	프리랜서, 한-한 가정 2세
	청년	김성훈	남	27	-	한국기업 근무, 한-한 가정 3세
청년	윤우영	남	33	-	한국기업 근무, 한-한 가정 2세	
프랑스	교사	지선경	여	47	20년	교장, 유학 후 정착, 한-불 가정
	교사	안희경	여	47	5년	교사, 결혼 후 이주, 한-불 가정,
	교사	정민옥	여	54	22년	교사, 유학 후 정착, 한-불 가정
	교사	최보영	여	35	7년	교사, 유학 후 정착, 한-불 가정
	교사	진성희	여	53	25년	교사, 유학 후 정착, 한-불 가정
	학부모	정수연	여	43	19년	프리랜서, 한-불 가정
	학부모	박소현	여	48	2년	자녀교육 목적 이주, 한-한 가정
	학부모	권현영	여	51	27년	유학 후 정착, 한-불 가정
	학부모	송민정	여	47	18년	결혼 후 프랑스 이주, 한-불 가정
	학부모	조혜선	여	34	12년	결혼 후 프랑스 이주, 한-불 가정
	학부모	현경아	여	43	21년	유학, 결혼 후 정착, 한-불 가정
	청소년	줄리	여	13	-	한-불 가정 2세
	청소년	소피	여	14	-	한-불 가정 2세
	청소년	한정아	여	15	-	한-한 가정 2세
	청소년	최마리	여	15	-	한-한 가정 2세
	청년	강민기	남	21	5년	한-한 가정, 중학생 때 유학
청년	류형식	남	20	15년	한-한 가정, 4세 때 이주	

2) FGI 개요

독일과 프랑스 내 한글학교 활성화 및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 활동에 헌신해 오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실무자이자 전문가들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사항과 정책 실효성이 높은 과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문가 대상 FGI에는 현지 한글학교 교장 및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FGI 참여자 및 조사 내용은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V-3 FGI 참여자 및 조사내용

구분	참여자	조사내용
FGI	• 독일 및 프랑스 내 한글학교교장 • 협의회 회원, 한국교육원 원장 등	•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한글학교 발전 방안 •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

3) 분석 방법

연구자는 면담조사 자료와 FGI 조사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내용 분석에 착수하였다. 한글학교 교사, 학부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핵심주제를 도출하고, 최종 분석 내용을 정리할 때는 면담참여자의 입장에서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 중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환경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 장소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방법이다(Clandinin & Connelly, 소경희 외 역,

2011; Clandinin & Huber, 2010). 본 연구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이주배경과 그들이 거주국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정체성 문제, 한글학교에서의 경험의 내용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므로, 분석방법으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 집중한다. 이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에서 '경험'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는 시간성(temporality), 사회성(sociality), 그리고 장소(place)를 고려한다(Clandinin & Huber, 2010). 우선 시간성은 어떤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기 위한 요소이다. 즉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그들의 부모세대가 거주국에 정착했던 과거, 재외동포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성은 사건에 대한 탐구를 함에 있어 그것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감정, 요구 등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문화적, 제도적 환경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라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적응과 그 과정에서 한글학교에서의 경험이 특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소는 어떤 사건을 물리적인 경계와 조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려하기 위한 요소이다. 즉 이는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성장 지원 방안은 그들의 교육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유지 및 성장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글학교와 한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거주국 내에서 한인들의 이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시간성) 동시에 거주국 내의 사회문화적, 제도적 맥락에서 한글학교와 한글학교 교육의 의미를 분석하면서(사회성), 한글학교라는 물리적 경계의 안팎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장소)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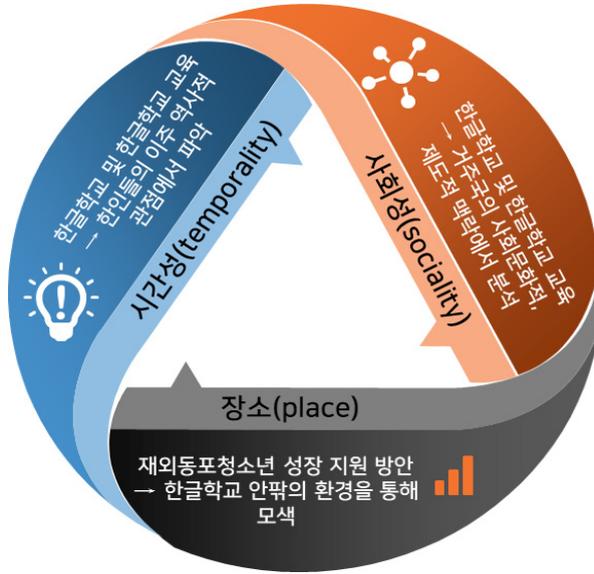


그림 V-1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의 분석내용

2. 독일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계자 면담조사 분석 결과

1) A, B 한글학교 소개: 한인회 및 독일 사회와의 관계

A 한글학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차로 5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소도시에 소재하고 있다. 1983년 한인회가 설립한 A 한글학교는 중소규모의 한글학교로, 매주 금요일 오후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글학교 교육과정은 한국어 수업과 특별활동으로 구성되며, 한국어 수업은 유아반,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B 한글학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소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1975년에 설립되었다. B 한글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B 한글학교 역시 A 한글학교와 동일하게 교육과정은 한국어 수업과 특별활동으로 구성된다. 두 학교 모두 독일 현지학교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V-4 A, B 한글학교 기본 정보(2018년 5월 기준)

구분	A 한글학교	B 한글학교
소속	•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설립일	• 1983년 한인회에서 설립	• 1975년
건물	• 독일 현지학교 건물 임대	• 독일 현지학교 건물 임대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반 편성	• 유아반, 초등반(1), 중등반(1), 고등반(2)	• 유아반, 초등(1)~(3)반, 중등(1)~(2)반, 고등반, 성인반
교육 과정	• 한국어 수업 • 특별활동: 역사, 동요, 미술, 연극 등	• 한국어 수업 • 특별활동: 역사, 동요, 미술, 무용, 전통 놀이, K-Pop, 체육 등

A 한글학교는 과거 한인회가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와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하였다. 독일 이주 1세대들은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면서 독일에서 적응하는 데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 때문에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보다는 독일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정에서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2세대들 중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재외동포들이 꽤 있다고 한다. 물론 A 한글학교는 한인회가 설립했고 당시 1세대들의 자녀가 한글학교를 다니던 시점에는 한글학교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지만, 1세의 자녀인 2세대들이 이미 40~50대가 된 현 시점에서 한글학교와 한인회 간 교류는 거의 없다.

반면, 1990년 전후로 독일 유학을 목적으로 이주해 정착한 이들은 1세대와는 이주배경과 자녀교육에 대한 입장에서도 차이가 있다. 1세대들 역시 한국에서 교육 수준이 높았던 인텔리가 다수였지만, 독일 유학을 위해 이주한 이들은 1세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아서 독일 사회에 정착하면서 자녀들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이들이 주로 자녀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했던 곳이 한글학교로 볼 수 있다. 이승연 학부모와 성세희 학부모

모는 독일 한인 1세대들과 그 이후 세대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는 이유로 독일 내 한인 커뮤니티 간 관심사의 차이와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인회 내부의 세대교체의 실패를 꼽았다. 물론 한인회 내부적으로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세대 간 인식의 차이와 이주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승연 학부모: 독일에서 한인 사회의 제일 큰 커뮤니티는 사실 수 적으로 보면 옛날에 오신 분들 간호사, 광부로 오신 분들 커뮤니티가 제일 크니까 한인 회라고 하면 대부분 그 분들... 그분들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인근에는 또 주재원으로 오신 몇 년 왔다가 가시는 분들의 커뮤니티가 있고 또 저희처럼[유학 후 정착] 어중간 하게 와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중략)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한글학교를 처음 만든 거에 제일 관여를 하신, 직접 만드신 한인회는 이제 더 이상은 연령대가 한글학교에 관심을 그렇게 크게 갖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성세희 학부모: 근데 허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분들[1세대]이 왔을 때 되게 많았다가 그 분들이 왕성했을 때는 사실 몇몇 유학생들만 있었지 정착하는 사람들이 또 없었고 그러다가 요즘은 또 많아졌거든요. 주재원도 많고 그냥 여기 현지에서 일하려고 그냥 막무가내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허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연결이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1세대에 해당하는 한인들과 현재 한글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차세대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한인사회 내에서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하연 교장은 한글학교에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 한인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글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등반을 졸업할 경우, 이들이 한인사회로 배출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인회와 한글학교 간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다, 한인회 내에서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한글학교 졸업생들이 한인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場)이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졸업생들이 한인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은 한글학교 교사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김하연 교장: 유럽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것이 한글학교에서 졸업생을 배출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졸업생들이 한인사회로 나가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맡아갈 수 있어요. 근데 껍이 너무 큰 거예요. 70대 분들하고 중간 세대가 없이, 허리가 없어요. (중략) 저희는 [한인회와] 관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 년에 한번 씩 한인회 송년잔치 같은 걸 하면 열심히 저희도 도와드려요. 학생들 가서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다섯 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술 마셔요. 그 옛날 70년대 분위기 그대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인 사회도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허리 부분이 없으니까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렇게 하시니, 만약에 저보다 더 젊은 교장 선생님이 한글학교를 맡았을 경우에 ‘우리가 [한인회에] 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인회가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죠. (중략) 저는 2세, 여기 독일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학생들을 한글학교에서 잘 키워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졸업시켜서 한인사회에 다시 환원해서 그럼 한인사회에서 분명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할 데가 없어요. 그게 현재로는 한글학교밖에 없어요.

A, B 한글학교가 한인회와는 의례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면, 두 한글학교 모두 지역사회 내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홍보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한국 음식을 판매하거나, 한국 무용을 알리는 등 지역사회에 한국문화를 전파한다. 지역사회 신문에 행사 참여에 대한 기사가 날 경우, 학부모와 학생 모두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된다. 독일 사회는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로 현재 A, B 한글학교는 독일 교육청과 해당 학교장의 협조로 저렴한 비용으로

독일 현지학교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다문화를 존중하고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한글학교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다.

2) 독일 사회에서의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 교육의 의미

(1) 학부모: '정체성 유지'와 '더 많은 기회 보장'

학부모들이 자녀를 한글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다양했다. 한-한 가정 이승연 학부모는 자녀들이 한국문화와 한국어 등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한-독 가정 성세희 학부모는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크다고 했다.

이승연 학부모: 어쨌든 한국 부모 밑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니까 어딘가에는 그 끈이 연결이 돼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세희 학부모: 저는 좀 다른데 한글 배우게 하려고. 진짜 집에서 말은 너무 잘 하거든요. 근데 애가 글을 안 읽으면 말은 안 쓰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랑 같이 살면서 한국말 써도 어디 커가지고 자기가 다른 도시에 가거나 이러면 말을 잊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글을 배우면 나중에 혼자 보고 읽고 혼자 여행가서도 글씨 알고... 한글을 배우게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한 가정 부모들은 한독 가정 부모들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 사회에서 이방인이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우선 외모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외모로 인한 놀림을 한 두 번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촉발한다.

문경원 학부모: 한독 가정은 아무래도 남편이나 부인이나 한쪽이 독일 사람이면 아무래도 독일 사회에 더 깊숙이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한한 가정은 아무래도 아무리 독일에서 산 기간이 길어도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독일어를 하고 생활을 다 해도 이 독일사회에 밀접하게 정말 그들이랑 같이 하나가 돼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오래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이방인이구나.’하는 생각은 정말 느껴요.

자녀가 외모로 인해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은 한-독 가정 역시 동일하다. 다만 한-독 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독일인이고 자신이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독일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외모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가 한국문화에 친숙해 지고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성세희 학부모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글학교를 다니기를 희망했다.

성세희 학부모: 저는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글학교를] 다녔으면 하는데, 애가 한글을 하고 한국말을 했을 때 외모가 다른 것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완전히 독일말만 하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독일에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독일 교육에 맞추어 크게 역행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따라가길 원한다’(문경원 학부모)면서도 ‘한국에서 한국 뿌리를 주었으니 아이들이 뿌리를 지키고 살면 다른 바람이 없을 것 같다’(고혜영 학부모)고도 답했다. 한글학교는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동시에 최근에는 유럽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인사회 내에서도 독일 내 한국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한글학교는 자녀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실리적인 면도 제공해 주었다.

문경원 학부모: 저는 아이들한테 사실 항상 얘기하는 거는 ‘독일에 살아도 독일에서 너희가 교육을 받아도 모국어, 한국어를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너희들한테 나중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는 얘기는 항상 하죠. 그 얘기는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어요.

성세희 학부모: 한국 경제가 강해지고 해서 여기서도 교포들이 옛날에는 한국 회사에 가는 게 되게 좀 부끄러웠대요. 여기서 공부하고 했는데 한국 회사 너무 일도 많이 시키고 박봉이고 하니까 부끄러웠는데 요즘은 다 한국 회사 가려고 하는 애들도 많고 해서 위상이 달라졌으니까 한글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2) 한글학교 교사: 정체성 유지를 위한 ‘울타리’, 세계시민의 양성소

한글학교 이용철 교사는 독일 사회에서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송광호 교사 역시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한글학교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이용철 교사: 정체성 쪽에서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울타리처럼 그 안에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송광호 교사: 한글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부모들이 한글학교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누구나 다 한 번 겪거든요. (중략) 이제 여기서 자란 대부분의 한독 가정이든 한국 이민 가정 이든 자기는 학교에서 독일 말을 쓰지만 항상 그 정체성의 문제가 사춘기 가까이 오면서 나타나는데, 그 상황에서 한글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계속 지속적인 컨택이 있는 거죠.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와 또 한국 언어적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갖고 있어요. ‘내가 일부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한국과 연관이 있다. 한국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내가 한국말을 배워야 할 최소한의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한글학교가 아닐까 싶어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 문화와 독일 문화 모두를 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을 큰 장점으로 인식했는데, 조정은 교장도 한글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지구인,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조정은 교장: 자연스럽게 독일에서 이렇게 다르게 성장하면서 그러면서도 사실은 유럽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이것은 '한국 것, 이것은 독일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학생들은 지구인으로서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하여, 송광호 교사는 한글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 거주국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겸비한 차원이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교사: 여기서 자라나는 2세대, 3세대들은 여기에서 독일 회사에 들어가거나 어떤 중요한 위치로 갈 아이들은 당연히 한국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인재를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장점이고 독일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한국어를 잘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건 그게 한국과 맺을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굉장히 큰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중략) 애네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경쟁력을 갖는 애들이에요.

(3) 청소년: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

10대 청소년들은 한글학교가 본인들과 유사한 생김새와 정체성을 지닌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영국에서 독일로 이주한 손승호는 영국에서 한글학교를 8년 동안 다닌 경험이 있다. 승호는 한글학교를 통해 자신과 동일한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점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준성과 박미현은 한글학교에 다니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고 또래 한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글학교에 다닌다고 응답했다.

손승호: 한글학교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가기 싫었어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다른 한국 사람들이 있는 것 알게 되고는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에서 나 말고 다른 한국 애들이 있구나.

김준성: 한국 친구들을 만나서 좋고요. 한국어를 배워야지 한국 사람을 만나면 같이 이해할 수 있고 한국 가서도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더 편안해요.

박미현: 친구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글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손승호는 한글학교를 다니는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했는데, 그것은 승호가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해야지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독 가정 자녀인 선미는 외모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 한국인 어머니는 선미가 다섯 살 때부터 한글학교를 다니게 했다. 어릴 때에는 한국말이 서투른데다 한글학교에서도 또래 친구가 없어서 매주 한글학교에 오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또래 친구가 생겼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한글학교에 오는 것이 재미있다고 답했다.

선미: 어렸을 때 독일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외모 때문에 ‘중국인 같이 생겼냐?’ 그래서 제가 ‘내 외모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생겼어?’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글학교에서도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다 좋아진 것 같아요.

선미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더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미는 한국문화와 독일문화 모두를 아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선미: 어떤 사람이랑 만나면 항상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대답해야 해요. 대답해야 하고 한국에 대해 알려주고 싶기도 한데 아직도 제가 [한국어 가] 많이 부족해서... 한국에 대해 더 잘 알고 한국말도 더 잘 했으면 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연구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선미는 어떻게 대답해요?

선미: 아빠가 독일인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연구자: 그럼 한국인인지, 독일인인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선미: 고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독일문화]도 알고 그것[한국문화]도 알고 더 많은 걸 알아서 좋은 것 같아요.

A 한글학교 졸업생이면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승일 교사는 유아반부터 한글학교를 다녔는데 13살이 되면서 한글도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판단해서 당시 한글학교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글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면서 한글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김승일 교사에게 한글학교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곳이었다. 특히 독일 한글학교협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집중교육은 독일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자신과 유사한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였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지속적으로 배우는 동기를 부여했다.

김승일 교사: 저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일 컸던 게 일단 집중교육이라는 그 문화 캠프를 간 게 굉장히 큰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이니까 14살~15살 때였어요. 그때 사춘기가 완전 뜨거웠을 때죠. 그때도 친구랑 많이 놀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가 우리 한글학교에 애들이 많지 않아서 제 나이 대에 한국 애들을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 교회도 안 다니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제 또래 나이인 친구들 만나니까. 또 한국어가 통하고 근데 또 독일어가 통하니까 뭔가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구나.’ 그때까지는 친구가 딱 한명 뿐이었어요. 나랑 나이 비슷하고 독일말도 할 수 있고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얘기할 때 한국어 독일어 막 섞어 쓰고 표현하는 게 되게 편했어요. 뭔가 독일어로 못하는 말을 한국말로 할 수 있고 한국말로 모르는 말은 독일어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중교육에서는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김승일 교사는 그 이후 매년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캠프에 참여했으며, 독일에서 개최되는 집중교육 캠프에는 가능한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김승일 교사는 캠프 참가가 한국어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우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의 다양한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궁극적으로 한글학교 교사가 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들은 현재 10대와 달리 독일 사회 내에서 동양인 또는 한국인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들은 현재 10대와 달리 외모에 따른 편견을 더 심하게 경험했던 세대이며, 부모들 역시 현재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과 비교할 때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면담에 참여했던 김성훈과 윤우영은 한글학교 재학 경험이 있는 반면, 오현수는 한글학교 경험이 없다.

윤우영: 어릴 때 ‘나는 독일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게 안 봐요. 아무리 독일어를 잘 하더라도 ‘너는 독일사람 아니야. 외국 사람이야.’ 그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약간 저는 그 당시에 한글학교를 가면 그래도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글학교에서 포레들에 비해]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해서 ‘그럼 난 뭐지? 외계인인가?’ 한동안 ‘외계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누가 봐도 독일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스타일, 문화, 언어, 살아가는 방식, 심지어 옷 입는 것, 밥 먹는 것, 나는 독일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의 10년 전에 국적을 바꿨어요. 독일 국적으로.

윤우영의 어머니는 파독 간호사 1세로 독일에 이주했다. 윤우영은 5살부터 12살까지 한글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지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한창 하던 사춘기 때 한글학교를 다닌 경험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다만 성장하면서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한 축에 가깝다. 오현수의 어머니 역시 파독 간호사 1세로 독일로 이주한 사례인데, 오현수 역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오현수: 저도 사춘기 때 14~15살 그 기간에 내가 독일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고 한국 가면 독일 사람이고. 근데 그런 거 떠나서는 주변 친구들도 다 독일사람이었으니까 저도 늘 같이 '독일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2006년도 월드컵 그때 저는 어느 순간 사진 보면서 다들 금발머리고 백인들이네 나만 혼자서 딱 동양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내가 진짜 독일 사람은 아니구나.'

반면, 김성훈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윤우영과 오현수만큼 심각하게 한 경우는 아니었다. 스스로 한국문화와 독일문화가 섞인 교포문화 내에서 성장한 것으로 인식했고, 그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 또는 독일인이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김성훈: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서 왔고 한국 사람이고 독일 친구들은 독일 부모님이고 그러시니까. '그냥 한국 문화적인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살다보니까 한국 문화도 있고 독일 문화는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집안에서는 독일 문화를 못 배우잖아요. 부모님 둘 다 한국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독일 문화가 교포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같은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나는 교포구나.' 그런 식이었죠.

청년들은 자신들의 성장기 때 경험했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현재 10대 청소년들도 동일하게 할 것으로 인식했지만, 고민의 내용은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독 간호사와 광부로 독일에 이주한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어려움을 본인들 역시 제대로 알기 어렵듯이, 세대별로 경험하는 정체성 및 적응의 어려움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독일 내 재외동포 청년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이들과 같이 한국문화와 독일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인 유형, 둘째는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유형, 셋째는 정체성을 독일인으로 규정하는 유형이 그것

이다. 이들은 두 가지 문화를 모두 수용한 유형으로 독일 내 한국인과 독일인 모두와 교류하고 소통한다. 반면,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유형은 독일인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고 한국인들과만 소통한다. 마지막 유형 역시 스스로 독일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문화와 한국인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다. 어떤 선택이 옳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필요한 교육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한글학교 발전 방안 및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

(1) 한글학교 발전 방안

① 교사 수급 문제 및 전문성 제고

한글학교 내부적으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수 수급 문제였다. 한글학교가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한글학교 교사들의 가르치는 행위는 일종의 봉사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데 한글학교 교사의 가르치는 활동은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활동은 노동이 아닌 봉사활동으로 간주되며, 한글학교 교사들이 받는 봉사료는 비영리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비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띤다. 무엇보다 한글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원금과 부모들이 지불하는 수업료로 충당되고 있어, 1년 예산이 늘 빠듯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매달 140~170유로의 금액을 받고 봉사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의 낮은 처우는 교사 수급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잦은 교체는 한글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학부모와 교사들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봉사료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한글학교 교사 수급 문제

및 한글학교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적정 수준의 봉사로 수준이 장기적으로 한글학교 교사로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문경원 학부모: 정말 간단하게 학부모로서 원하는 거는 교사들이 한 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야든 저희도 직업적인 면도 그렇지만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돼야 그런 연륜이 생기고 아이들을 대하는 기술도 생기고 자기만의 경력도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는데 그럴 정도쯤 되면 선생님들이 바뀌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있고 수업 질 또한 별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송광호 교사: 아이들한테 선생으로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이런 동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재미있게도 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실 상황 여기 한글학교 상황에서는 그런 선생님들을 찾기는 어려워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유학생들. 그러다보니까 그 선생님들은 오래 안 있어요. 있어봤자 2~3년 있으면 ‘오래 있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자질이 솔직히 굉장하... (중략)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토요일에 헌신 하면서 나와서 해줄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최소한 어떤 재정적으로도 보상이 될 수 있다면 사실 그런 부분만이라도 조정이 된다면 좋은 선생님들이 여기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김하연 교장에 따르면, 독일 한국교육원은 독일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한국어를 채택할 경우 해당 한국어 수업을 하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에서 지급하는 강사료는 시간당 30유로이다. 반면 한글학교가 한 달에 12시간(매주 3시간, 4주)을 수업한다고 했을 때 교사들이 받는 금액은 약 11~14유로로 강사료 수준의 차이가 크다. 김하연 교장은 이러한 강사료 차이가 한글학교 교사 수급을 어렵게 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독일 한국교육원의 지원사업은 한국 정부가 주최가 되어 한국 정부의

사업 집행 기준을 따르는 반면, 한글학교는 독일 내 비영리단체의 운영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글학교 운영 지원금을 재외동포재단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사로 수준의 적정화는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세종학당에서 진행되는 사업에서 특별한 강사 자격요건(예컨대 한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즉, 한글학교 교사를 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한국교육원 또는 세종학당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강사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하연 교장은 한글학교 교사 수급 및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제공하는 강사로와 한글학교 교사들의 봉사료 수준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하연 교장: 한글학교 교사들의 사기도 높이고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일단 선생님들 봉사료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뚫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 한국어 채택사업을 하면 학교에서 45분 수업을 하면 30유로 주는 것처럼, 한글학교는 그럼 45분에 15유로라도 주든지, 20유로라도 주든지 어느 정도 선생님들 봉사료의 체계화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세종학당도 말하자면 그런 식인데 세종학당이나 한국어 채택사업에 교사들이 더 관심을 가지겠죠. 저는 경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글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이 채택사업이나 세종학당 강의도 분명히 잘 하실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두루두루 다 하시면 좋은데 그 세 가지 중에 한글학교 봉사료가 완전 바닥인 거예요. 봉사료를 높이기 위해서 좀 부처 간의 도움을 주시든지 하면 좋겠어요.

② 한글학교 교육의 어려움: 학생 수준별 차이 문제

한글학교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큰 어려움은 학생들 간 한국어 수준의 차이로 인해 수업 진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 내에서 한국어 사용 빈도나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 한-한 가정 또는 한-독 가정 여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송광호 교사의 지적대로, 이 문제는 한글학교가 설립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송광호 교사: 우선 한 반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수준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글학교가 예전에는 수준별로도 맞춰보기도 하고 나이별로도 맞춰보기도 하고 했는데 수준별은 어차피 안 되더라고요. (중략) 나이로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거죠. 특히 '얼마 전에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 정말 잘 하는데 '여기서 태어나서 한독가정이다.' 그러면 엄마의 성향에 따라서 애가 한국말을 그래도 좀 이해하고 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아예 거의 못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런 환경을 선생님 혼자서 하기가 되게 어렵죠.

송광호 교사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수준이 다양하고 그것을 교사들의 역량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재와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③ 유아용 교재 지원

현재 독일의 한글학교는 만 3세 유아반부터 운영되고 있다. 한글학교 역시 독일 학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독일 유치원 교육은 만 3세~6세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아반의 경우 별도의 교재가 없어서 한글학교 교사들이 직접 놀이 교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하연 교장은 한글학교 유아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나 교구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하연 교장: 제가 보니까 유치반은 정말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재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매번 뭘 갖고 와야 하고 뭘 보여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유치반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④ 한글학교 특강 지원

한글학교 교사와 학부모는 한글학교 교육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한글학교 방문 및 특강을 희망하였다. 개별 한글학교를 방문하여 특강 진행이 어렵다면, 국가별로 권역을 설정하여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특강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글학교 교사들은 한국 정부가 초청하는 연수나 워크숍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수법 관련 특강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역시 자녀교육에 대한 전문가 특강 기회가 확대된다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고혜영 학부모: 제일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한글학교에서 우리가 계속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나 변화가 힘든 거예요. 계속 같은 사람들끼리 하나까. 한국에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특강 선생님. 아이들 한글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이 시대에 맞게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강 선생님이 정말 전문적인 특강 선생님이 한 번 내방 하셔가지고 수업 정보나 이런 어떤 방안, 우리에게 어떤 더 좋은 지침서, 이런 거를 주시는 분들이 전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 번씩 특강 좀 들면서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용철 교사: 제일 제가 바라는 건 '전문가 특강'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을 위한 거나,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 특강' 그런 거라든가 전문가들이 이를테면 유럽을 방문해서 이 학교 저 학교를 다니는 건 힘드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북부, 남부, 중부 그렇게 나눠서 학생들이 교사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⑤ 한글학교 재정 지원 기준에 대한 재고

한글학교 송광호 교사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제공하는 한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재학생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현재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재외동포청소년 재학생수가 많고 적은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문에 대도시 소재한 한글학교들은 학생수가 많아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소도시에 소재한 한글학교들은 학생수도 적지만 그에 비례해 지원금도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열악한 상황에 있는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글학교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한글학교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를 제안했다.

송광호 교사: 재외동포 재단이나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굉장히 더 잘 해 주려고 계획을 하지만 간혹 지원하는 어떤 평가 방법이나 이런 거가 너무 한국적일 때가 많아요. ‘인원수에 따라서...’ 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수치적인 걸 갖고 평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뭘 하면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가진 학교들은 더 받을 수 있고 어려운 학교는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생기는 그런 식의 것들.

⑥ 한글학교 지원 방식의 다양화: 한글학교가 제안하는 프로젝트 지원

독일 A 한글학교 김하연 교장은 한글학교의 궁극적 목표를 차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한글학교에서 교육받은 차세대가 다시 한인사회에 들어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있었다. 그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한글학교 지원사업도 좋지만, 한글학교 자체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재외동포재단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등 기존 Top-down 방식의 지원 방식을 Bottom-up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하연 교장: 사람은 키워야지 되는 거고 또 학부모님들 중에는 ‘우리가 키웠는데 저쪽 다른 도시로 가면 어쩌냐’ 그래도 상관없고 다른 데 가도 괜찮고 다른 나라 가도 괜찮고. 하지만 ‘우리가 키워 놓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제 몫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두 명[졸업생을 보조교사로 채용]을 키우고 있는데, 또 다른 도시로 대학교를 가서 못하는 학생이 있지만 반대로 다른 도시에서 이리로 대학을 올 수도 있잖아요. (중략) 저는 한글학교가 차세대를 키우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재외동포재단에서 고정된 사업별로 지원했다면 우리[한글학교]가 프로그램을 제안할 테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서 한 번 괜찮으면 지원하면 어떨지 그런 방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독일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

① 모국 방문 기회 확대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는 매년 재외동포청소년을 초청하는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재외동포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7~8월에 모국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된 대륙은 북미(120명)와 러시아 및 CIS(120명)이며, 유럽의 경우 60명의 청소년을 선발했다⁴⁷⁾. 이 때문에, 유럽 내에서는 국가별 재외동포 수를 고려하여 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2~3명, 많으면 5~6명의 청소년들이 국가별로 참여하고 있다.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글학교 교사들 역시 모국연수 대상 재외동포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기를 희망했다. 이는 한글학교를 통해 오랜 기간 교육을 받는 것보다 한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나 효과 측면에서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국연수 사업 예산 증가를 통해 더 많은 재외동포청소년에게 모국방문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광호 교사: 한글학교 10년을 다니는 것 보다 차라리 한 번 한국을 갔다 오게 아이들에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모국 초청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고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일 년에 한 번 있는데 그 시기가 안 맞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한국 한 번 갔다 오면 싫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다 좋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거든요. 그런 거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47) 재외동포재단(2018a). 2018년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 참가자 모집공고.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6622에서 2018. 9. 27. 인출.

②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들은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실시되는 모국연수 외에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늘어나기를 희망했다.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했다. 다양한 국적의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거나, 한국 가정과 재외동포청소년 가정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면, 자녀들에게 한국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또래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혜영 학부모: 방학 때 고국방문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있으면 저희가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서 정기적으로 그 모임을 가지면 만날 때마다 아이들 미국에서 생활하는 애들, 독일에서 생활하는 애들, 각국의 외국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그 캠프에서 모이면 자기네들이 분명 엄청나게 많은 공감을 할 거예요.

③ 한국학교 체험 기회 확대 및 중고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활성화

재외동포 학부모들 중 일부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자녀가 한국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0년 남짓 전부터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체험 기회가 제한되고 있기도 하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국 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문경원 학부모: 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을 위한 캠프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청강생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국 교육. 그렇게 하다보면 꼭 뭔가를 수업 시간에 애가 따라 듣지는 않아도 같이 ‘한국 교육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수업을 받는구나.’ 같은 반에 들어가서. 물론 아이들이 방해는 안 하죠.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죠. 청강 식으로. (중략) 만약 정말 한 달이라도 그게 가능하면 몇 주, 한 2~3주라도 너무 짧게는 방해 되니까 안 되지만 어느 정도 2주 이상의 뭔가 그런 기간이 있을 때 아이들도 그렇게 학교 체험할 수 있는 청강생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독일 재외동포청소년 중에는 한국으로의 교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통 유럽의 청소년들은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학습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환학습 기회를 누린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단위 학교 또는 교육청과 독일의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 간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텐데, 독일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용철 교사: 중고생의 경우에도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생은 오히려 더 원활하지만 갔다 오는 게 근데 중고생의 경우에는 한국은 아무래도 입시체제잖아요. (중략) 그런데 ‘꼭 안 된다고 볼 수 있나?’ 하는 게 제가 아는 일본 학생들은 보면 홈스테이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3.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계자 면담조사 분석 결과

1) C, D 한글학교 소개: 한인회 및 프랑스 사회와의 관계

독일과 프랑스 공통적으로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대다수는 1990년대 전후 독일과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이들이 정착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부분 석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고학력자들이다. 특히 독일과 달리 프랑스의 경우, 여자 유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프랑스에 정착하면서 프랑스인과 결혼하였고 한-불 가정을 형성하였다. 이 때문에, 독일에 비해 프랑스의 경우 한-한 가정보다는 한-불 가정 비율이 높은 편이다.

면담참여자들에 따르면, 거주국에 정착한 한인들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주국의 특성이나 거주국 시민들의 성향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독일과 달리 프랑스 재외동포들은 자유분방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는 프랑스 시민들과 유사한 경향이 있어, 1980년 이전에 프랑스에 유학한 후 정착한 한인들과는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한인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한인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다. 현경아 학부모 역시 프랑스에 정착한지 21년이 되었지만, 한인회 모임에 참석했거나 한인회 구성원들과 교류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현경아 학부모: 서로 뭐 요청을 하거나 뭔가 만들지 않으면 전혀...[교류가 없어요]
여기[한글학교] 다니는 엄마들이 한인사회와 뭔가 연관될 그런 게 전혀 없죠. 워낙 개인주의적이어서.

물론 현경아 학부모는 파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위 언설을 프랑스 전역에 확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프랑스 지방의 경우, 오히려 적은 수의 한인들이 끈끈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프랑스 한인들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파리의 상황에 한정해 볼 때, 한글학교 학부모들은 프랑스 한인회와 특별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인회와 한글학교 간의 밀접한 교류를 반드시 전제할 필요는 없지만, 한인회 내부적으로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한인회가 차세대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프랑스 면담조사의 주요 참여자들은 C, D 한글학교 관계자들이다. C 한글학교는 프랑스 중동부에 위치한 소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수가 워낙 적어서 한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도 많지 않다. 전체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은 현지 성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C 한글학교는 영세한 규모이지만, 한글학교가 지역사회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확장해 가면서 지속가능성을 모색 중에 있다. C 한글학교가 시로부터 한글학교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도 C 한글학교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지선경 교장은 프랑스 파리를 제외한 지역 소도시에 소재한 한글학교는 지역의 한국교육원 또는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글학교가 프랑스 사회 내에 뿌리내리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선경 교장: 지금 한글학교가 한국사람[재외동포]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프랑스와 분리돼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연결해서 시청, 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여가선용 하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그쪽과 정말 긴밀하게 연결해서 한글학교나 한인회가 문화원부터 교육원 역할을 지방에서는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어디 가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친구들이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서 한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 우호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반면 D 한글학교는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한글학교이다.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학급 역시 여러 개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중 85%가 영주 학생(단기체류: 15%)이며 이들 중 2/3 가량은 한-불 가정 출신이다.⁴⁸⁾

표 V-5 C, D 한글학교 기본 정보(2018년 6월 기준)

구분	C 한글학교	D 한글학교
소속	• 주 프랑스대사관	• 주 프랑스대사관
설립일	• 2006. 9.	• 1974. 5.
건물	• 시민회관 무상 임대	• 프랑스 현지학교 건물 임대
수업	• 매주 토요일 10시~12시 30분	• 매주 월요일 수업 4시간
반 편성	• 유아반(3~4세), 입문반(5~6세), 기초/초급/중급반(7~12세, 성인)	• 유아반(1)~(3)반, 초등반(1)~(5)반, 중등반(1)~(4)반, 어학당(1)~(3)반
교육 과정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 수업 • 특별활동 및 행사	• 한국어 수업(듣기/말하기, 읽기/쓰기/받아쓰기) • 문화/역사/활동

2) 프랑스 사회에서의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 교육의 의미

(1) 학부모: 정서적 안정감 제공, 한국어 구사 및 정체성 형성에 도움

프랑스 재외동포 학부모들은 자녀가 이중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도 프랑스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불 가정 자녀들은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한 후 한국, 프랑스 또는 제3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48) D 한글학교 교장과의 면담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결과임.

프랑스 학부모들이 자녀를 한글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자신과 아이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송민정 학부모)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한글학교를 다님으로써 자신과 유사한 친구들을 사귀는 과정을 통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바람’(조혜선 학부모) 때문이었다. 현경아 학부모에 따르면, 프랑스 재외동포 부모 중 일부는 자녀가 프랑스 사회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한국어보다는 프랑스어를 강조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후회한다고 한다.

현경아 학부모: 한국 엄만데도 프랑스 말을 계속 집에서 했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애가 프랑스 말을 열심히 배우기를 바랬다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엄마가 학자가 아닌 이상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불어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불어수준은 한계가 있고 아이들은 인제 나중에 크고 불어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못 하시더라고요.

프랑스 재외동포 학부모들은 한글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것이 우선은 본인들이 자녀들과 한국어로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동시에 자녀가 한글학교에서 만나는 한-불 가정 자녀 또는 한-한 가정 자녀들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불 가정 학부모인 정수연, 권현영 학부모 모두 자녀와 한국어로 소통하고 싶었고, 동시에 자녀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주고 싶었다고 한다.

정수연 학부모: 첫 번째는 저에 대한 보혐이었어요. 자잘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이와 나누고 싶었고 그거를 제가 여기서 불어를 배워도 저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자체를 불어로 표현하고 싶진 않았어요. 두 번째 한글학교를 보낸 건 아이들이 사실은 프랑스 학교에 가서 프랑스인이기도 하지만 프랑스 친구들에게는 애가 한국인으로서의 뭔가가 보일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문화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 힘들어하진 않을까 해서 한글학교에 보내는 첫 번째가 물론 어학도 있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와 같은 아이들이 너 혼자가 아니라 한글학교에 가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는 혼자야 아니야 약간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려고 했던 게 저한테는 더 큰 목적이었어요.

권현영 학부모: 저는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아도 불어 실력이 거기서 거기인데 불문학 전공한 것도 아니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사람도 아니니까 불어 실력이 그냥 그런데 애랑 정말 자세한 디테일을 감정 같은 거를 교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애가 한국말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자세한 뉘앙스 같은 것도 다 한국말로 해요. 애도 커서 이 두 가지 말을 하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를 지금은 시간이 더 갈수록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 프랑스로 이주한 한-한 가정 박소현 학부모는 한글학교가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자녀가 프랑스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프랑스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주 초기 프랑스에 적응하고 프랑스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자녀가 한글학교에 다니기를 거부했다. 그렇지만 프랑스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외모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자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이중정체성을 수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한글학교에 다니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한 가정 자녀들에게 한글학교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와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박소현 학부모: 저희 같은 경우는 한글학교를 보내고 싶었는데 애가 안 간다고 그래서 처음엔 좀 그랬는데 나중에 왜 그랬는지를 물어봤는데 처음에 와서 어쨌든 불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안하고 왔으니까 하고 왔어도 어차피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하고는 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애 탄에는 이게 약간 선택의 문제였던 거 같아요. (중략) 생긴 것도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이면서 프랑스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이 한글학교는 너무 진짜 감사하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 같아요.

(2) 교사: 한국어/한국문화의 홍보대사, 세계시민을 키우는 곳

교사들 역시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한글학교가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에게 동질감과 소속감을 제공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나아가 정민옥 교사는 한글학교 청소년의 한국어 구사 수준이 높은 낮은 이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문화와 프랑스문화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의 삶에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타문화에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를 알고 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민옥 교사: 한글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못 가진, 여기 프랑스 아이들이 못 가진 어떤 다른 것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한국문화]의 혜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살면서 느끼면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이들이 살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살면서.

최보영 교사는 한글학교에 다니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프랑스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선경 교장 역시 한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한국문화와 프랑스 문화에 모두 익숙하고, 두 가지 문화에 열려 있기 때문에 타 문화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한글학교는 세계시민을 키우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최보영 교사: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자기정체성은 프랑스와 한국을 반반씩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봤을 때는 외국인으로 여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대서 오는 어떤 불안함 같은 것들을 여기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동질감도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거 같아요. (중략) 한류의 중심이 외국에 있는 한국 청소년들이거든요. 그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반을 개설하면 자기 친구들도 같이 듣고 다른 친구들도 관심 있는 친구들도 와서 그런 물꼬를 열어주고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K-POP 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잘 대답해 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한국문화를 만들려면 당연히 그 중심이 되는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선경 교장: 저희 학교 교훈이 한국인 100%, 프랑스인 100%, 세계시민 200%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한국에 나가도 부족함이 없고 프랑스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세계로 나가도 부족함이 없는 근데 이게 한글학교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3) 청소년: 한국어를 학습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독일 재외동포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들 역시 한글학교를 다닌 경험이 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응답은 대동소이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점과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게 된 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불 가정 자녀인 줄리는 한글학교에서 배운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자신이 향후 직업을 선택할 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불 가정 자녀인 소피는 아버지 직업으로 인해 중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던 경험이 있다. 중국에 있을 때에도 한글학교를 다녔고, 5년 전에 프랑스로 돌아왔다. 이 때문에, 소피는 프랑스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4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소피는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직업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자: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줄리: 기회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기회요?

줄리: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소피: 어른이 되면 직업을 찾을 때 언어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정아는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 실력이 늘고, 한국어 구사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등 이중 언어 구사가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인식했다. 최마리는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할 수 있게 된 점을 한글학교에서 얻은 성과로 꼽았다.

연구자: 한글학교는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한정아: 개인적으로 한글학교는 저한테는 좋은 영향을 준 거 같아요. 진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역사랑 전통이랑 이런 거에 대해 많이 배웠고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중략) 또 두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움은 될 거 같아요. 두 언어를 한다는 게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최마리: 나처럼 한국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을 사귀는 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잊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거

3) 한글학교 발전 방안 및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1) 한글학교 발전 방안

① 지방 소도시 한글학교 운영 유지에 대한 지원

프랑스의 경우 파리와 몇몇 큰 도시를 제외하면, 한글학교 운영이 영세한 수준이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수 자체가 적기도 하지만, 그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독일과 달리 프랑스 한글학교의 학생 중에는 프랑스 현지 성인들의 비율이 꽤 높게 나타난다. C 한글학교 조혜선

학부모는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한글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재외동포 부모들 중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조혜선 학부모는 자녀가 한글학교에 다니기를 계속 원한다면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C 한글학교가 워낙 소규모이고 영세하다 보니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혜선 학부모는 도시 규모와 한글학교의 영세성 여부를 떠나 재외동포청소년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예컨대 온라인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조혜선 학부모: 특히 저희 도시는 재외동포 자녀들의 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한글학교가] 없어지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도시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게 좀 부모님의 생각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중략)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가라마라 끌고 다닐 수도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있지만 그래도 선택이니까 고민 중이에요. 아이가 계속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한글학교가 계속 이렇게 남아있어 줄지...[도 걱정이에요] 도시가 작다고, 도시가 크다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다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제공된다면 어디서든 가정에서든 소규모 한글학교에서든 아이들이 충분히 그런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서 독일 한글학교 교사가 문제제기한 것과 유사하게, 한글학교의 학생수에 따라 재정 지원에 차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세한 학교는 계속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대규모 학교는 규모의 이점을 더 누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물론 소도시에 소재한 한글학교가 한글학교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구책, 즉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확보하거나 후원을 얻는 방안도 스스로 마련해야 하지만, 그런 노력에 부응하는 한국정부의 차등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유럽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재 및 최신 교육 콘텐츠 제공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한글학교 발전 방안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는 거주국의 상황에 적합한 교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간 재외동포재단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노력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재들이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 보니, 한국어 수준별 맞춤형 교재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 완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도 아니고,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도 아닌 중간 경계에 해당하는 한국어, 즉 재외동포에게 적합한 한국어 교재가 부재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한국문화와 거주국 문화가 혼재된 제3의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김태진, 2018. 9. 17.)⁴⁹⁾는 점을 시사한다.

최보영 교사: 미국 쪽에 아무래도 재외동포가 많다보니까 그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한국의 중학생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한국의 중학생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중3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의 중학교 1학년정도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도 아니고 또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도 아닌 어떤 중간 경계에 있는 그런 언어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재가 사실은 가장 필요해요.

진성희 교사는 재외동포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거주국의 사회, 문화, 교육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재외동포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맥락과 범위 내에서 교육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정수연 학부모는 프랑스 문화와 맥락 내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동시에 최신 콘텐츠가 반영된 교재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49) 김태진(2018. 9. 17.).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과 한국전통문화연수' 콜로키움 발표자료.

연구자: 현지상황에 도움이 되는 교재가 개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성희 교사: 제 생각에는 여기 프랑스 교육내용을 좀 알아야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돼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한 가지를 선택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그리고 어휘선택도 물론 한국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사용해야죠.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만들면 훨씬 더 실용적일 거 같아요.

정수연 학부모: 교과 과정이나 뭐 이런 거나 용어나 교재 특히 이런 게 너무 올드해서 애가 이거 보면서 오히려 애가 '나 때 공부하는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중략) 한국적인 걸 가르치되, 이쪽 문화에 어떤 걸 이렇게 가지고 와야 겠으로 안 받아들이게 할지, 차이는 인정하지만 녹일 수 있는 부분 그니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교과과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③ 한글학교 교육과정 편성 보급

D 한글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많고 학급도 다양한 반면, C 한글학교는 학생수와 학급수도 적다. 그런데 D 한글학교에서는 몇 해 전부터 내부적으로 자체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학교급별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교사가 교체될 경우에도 안정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C 한글학교의 경우 자체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매년 학생수와 구성에 따라 교사가 임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교사 교체 시에 수업 운영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안희경 교사는 한국 정부가 한글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분화된 교육과정 안을 편성해서 보급해 주기를 원했다. 조혜선 학부모 역시 한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보급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덧붙여 특별활동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했다.

안희경 교사: 정규 학교면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이 수립돼 있고 하면 학년에 맞게끔 수업을 하면 될 텐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없으니까 수업 하기가 쉽지가 않죠. (중략) 또 애들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2외국어로 배우는 아이냐. 아니면 부모가 집에서 한국어를 계속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유치부와 초등부에서 초기 온 아이들이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애라면 기본적으로 1년 과정에서는 이 정도는 터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세분화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조혜선 학부모: 만약에 연령이나 레벨별로 한국에서 그런 커리큘럼 자체를 다 짜서 주실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상황이 힘들어 지셔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만 두셔야 될 때도 아이들은 그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중략) 문화적인 부분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다른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오실 수 있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그런 분기에 맞게 쓸 수 있는 그 분량 정도의 문화체험 학습이나 이런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④ 유아용 교재 지원 및 연수 기회

프랑스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만 3세~6세까지 유치원 교육이 이루어진다. 재외동포교육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재 중 유아용 교재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 교재에 비해서는 그 종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글학교에서 유아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놀이 교재를 제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한글학교 교사연수 중, 한국의 누리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연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선경 교장은 한글학교 유아반 담당 교사들을 위한 교재를 제작한 후 보급해 주거나 유아반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선경 교장: 정말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누리과정 연수 같은 게 없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견학이라도 하게 참관이라도 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보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사진 찍어서 알려드리고 이런 거죠. 근데 유아들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⑤ 한글학교 운영 전반의 문제에 대한 재검토

안희경 교사는 한글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한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희경 교사가 지적한 내용은 한글학교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이자 딜레마에 해당한다. 즉 한글학교는 정규 학교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 내에서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 비영리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은 영리적 행위를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이 재외동포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에 대해 받는 대가는 봉사의 개념에 해당하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글학교 교사를 직업으로 간주한다면, 교사 스스로도 직업인으로서 효율적인 직무활동을 위한 자기개발이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외부에서도 교사에게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글학교 교사 스스로도 또 외부에서도 한글학교 교사를 직업으로 간주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한글학교가 정규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간주하며, 교사들의 교수 행위를 봉사 행위로만 국한해서 인식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것은 학부모들이 수업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들은 수업료에 상응하는 결과, 통상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기를 희망하며, 한글학교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일정 부분 인식의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상술한 문제는 유럽 내 대부분의 한글학교가 직면한 현실이자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한글학교의 열악한 재정 상태는 전문성 있는 교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수업료 인상은 학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는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는 한글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봉사의 개념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해 왔지만, 향후 한글학교의 위상이나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육 행위는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한글학교가 수행하는 역할이 바뀌었고,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수 행위를 봉사활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면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게 한글학교의 역할과 교사들의 교수 행위를 재규정하고, 합당한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글학교 학부모, 교사, 한국교육원 등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안희경 교사: 협회나 단체나 어떤 한 부분이 활성화 되려면 지금 한글학교의 목적 자체, '왜 있나.' 그럼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를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것인가. 교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교사들의 지위나 수업의 질을 어떤 식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중략) 예컨대 여기는 정규학교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프랑스 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로서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보면 교사들은 이게 봉사의 개념인지 아니면 파트타임에 해당되는지, 직업의 개념인지... 제가 봐서는 이게 직업이면 사실은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겹이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 형태로 사실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직업으로 할 만큼은 또 아니니까 이 안에서 오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 질을 높이려면 자기도 그만큼의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갖추기를 요구하면 직업이 되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2)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

①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진학·진로를 위한 정보 제공

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학부모들 역시 대부분 유학 후 프랑스에 정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열이 높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녀교육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한국교육원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정수연 학부모는 프랑스의 교육정책, 특히 대입시험제도가 변경될 경우 제2, 제3 외국어(LV 2, 3)로서의 한국어 비중이나 대입시험에 반영되는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재외동포청소년의 진학, 진로과정에서 한국어 관련 정보를 한국대사관이나 한국교육원이 제공해 주기를 원했다.

물론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나 한국문화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프랑스 사회 내 수요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대사관이나 한국교육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프랑스 공교육 내에서 한국어 개설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에 힘써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관련 정보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한국대사관과 한국교육원은 문턱이 높은 곳으로 인식되었다. 한글학교가 프랑스 재외동포 학부모들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면, 향후 한글학교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5세에 프랑스로 유학 온 강민기는 한글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다. 바깥로레아 시험에 한국어가 제 2외국어로 반영되던 해에, 한국어 시험에 대한 정보를 프랑스 학교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강민기는 적어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한국대사관이나 한국교육원이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즉, 학부모나 학생 모두 프랑스 내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교육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정수연 학부모: 한글학교에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바깥로레아에서 한국어가 채택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엄마들을 봐도 한글학교 계속 보내서 애들이 어느 단계에 올라갈 수 있고 바깥로레아 과연 우리 애들이 어쨌든 시간 대비 투자라는 개념으로만 봤을 때도 그러면 어떤 어드벤처를 선점을 해야 하는데 마크롱 정부가 들어선 후에 교육정책이 바뀌었다는데 한국어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중략) 사실 아이들 교육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고 그래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랑스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든 한국교육원은 저희가 함부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곳이 한글학교 같은 공간(문턱이 낮은 재외동포에게 개방된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해요. (중략) 사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이런 부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크죠. 한글교육과 관련된 곳이야 어쨌든 그나마 여기 한국 엄마들이 한글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 내지는 교육원 정도는 어떻게 도움을 주셔야 하지 않나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강민기: 제가 한글학교를 안 다녔는데 바깥로레아 [한국어를] 등록한 이유가 작년 부터 제 2외국어 [한국어로] 등록할 수 있었어요. 작년부터 바뀌어서 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도 [프랑스] 학교에서 알려줘서 한 거였어요. 한인회로부터 뭐 접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들었어요. 학교에서 왜 한국어를 안 하냐고? 그때서야 알아서 한 거였어요. 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아서 뭐 [정보 전달] 인프라가 제대로 잘 돼 있진 않다고 느꼈어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안희경 교사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지원도 한국대사관이 연계해 주기를 기대했다. 예컨대, 프랑스 내 한국계 기업이 있다면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진로체험 또는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에게 안내 주는 것이다.

안희경 교사: 직업체험 비슷하게, 예를 들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할 지 공부를 해서 직업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보통 아이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실습을 한 1주일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게 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한국 회사들 하고 연관이 돼서 할 수 있다면, 외국에서 있는 아이들을 인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이들도 자극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② 차세대 성장을 위한 한인회의 지원 강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프랑스 한인회와의 교류나 한인회 활동 참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프랑스 차세대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한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고, 간혹 한인회에서 요청하는 업무를 돕거나 한인회를 통해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등을 했다.

한국의 20대가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시간 부족과 금전적 어려움으로 관계형성이나 타인과의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후기청소년들 역시 여유가 없었다. 이들은 프랑스 한인회가 차세대들에게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또 차세대가 한인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류형식이 언급한 바와 같이, 20대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인회 하부 모임은 대체로 이미 프랑스 내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성공한 40대 이상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한인사회에서 세대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인회 스스로 20~30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류형식: 좀 아쉬운 게 [한인회 내에] 모임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별로 참여 안하고 그 모임이 있다는 거 자체를 몰라요. (중략) 저희가 맨날 생각한 거는 우리 끼리라도 일단 뭐 파티 같은 거나 그런 걸 만들고 싶은데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도 친구들이랑 모임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요즘 되게 얘기를 많이 해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들 바빠요. 다들 학생이던지 아니면 일을 하던지 하다 보니깐 그 아이디어가 있어도 모임 여유가 안 돼요. 거의 다 학생이고. 결국은 생각나는 게 한인회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한인회에서는 뭐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해주는 게 없고 다 우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류형식과 강민기는 한인회 내에서의 세대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인회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한인회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많은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원했다. 한인회가 한인들의 회비 납부로 운영된다면, 회비를 납부하도록 강조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상응하는 실질적 도움이나 정보를 한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인회가 차세대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기를 원했다. 프랑스 한인회는 세대교체를 위해서라도 차세대가 요구하는 내용을 경청하고, 이들이 한인회 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한인회가 현 시점에서 프랑스 재외동포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류형식: 바라는 거는 제가 인제 식당에서 알바도 해보고 이 친구 저 친구 부모님도 이렇게 알면서 요즘 좀 느끼는 게 일단 세대차이가 있고 이제 우리도 스무살이고 다들 조금씩 자리 잡기도 하고 이제 졸업할 때니까 약간 바라는 건 좀 한인회가 저희한테 좀 더 책임을 넘겨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인회가 이제 새로운 세대한테 [주도권을] 좀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강민기: 단순히 한인 회비를 납부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한인회비 납부하면서 한인회 일원으로 있을 때 뭔가 좀 주어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③ 조국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모국초청 프로그램 확대

정수연 학부모는 자녀를 데리고 한국의 체험 프로그램을 다녀온 경험이 있다. 그런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자녀를 한국 공립 학교에 보내 한 달간 체험을 시켰는데, ‘조국체험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다. 정보가 있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하고 학교장의 허락만 받으면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에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모국 체험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가 제대로 홍보될 수 있기를 원했다.

정수연 학부모: 사실 올해 한 달 동안 휴가를 내서 한국에 교육목적으로 사실 여유학을 다녀왔어요. 초등학교 큰 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에 조국체험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구요. 저는 사실 그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구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구구절절한 편지를 두 장 그리고 저희 한국 가족들을 급파해서 막 학교를 알아보게 해서 초등학교 한군데에 오케이를 받아서 인제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첫날 초등학교에 갔더니 조국체험 프로그램이 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편지 보내고 노력하지 않아도 ‘조국체험프로그램에 참가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좀 더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독일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모국초청 프로그램 인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조국 체험 프로그램이나 모국초청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수요가 높은 것은 자녀가 한글학교를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한국을 한번 방문하는 것에 비해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모국초청 캠프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나 열의가 더 강해지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도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다양한 목적을 지향하는 활동 캠프 및 교류 프로그램 실시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관계자들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했으며, 청소년들 역시 한국의 또래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지선경 교장은 유럽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캠프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들에게 한국인, 한국어, 한국문화와 역사 등을 주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미션 부여 방식의 역사문화 캠프를 제공한다면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지선경 교장: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던 것 중 하나는 중국 탐방, 독립투사들이 다녔던 그 길 있잖아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청소년들이 받아야 될 건데’ 청소년들이 어느 지점에서 모여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나. 혹은 유럽에서도 그런 데가 있어요. 헤이그라든지 파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를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고. 한국어면 한국어, 한국 문화면 한국 문화 이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미션을 부여하는 캠프. 아이들에게 자주 이렇게 기회가 부여되면 될수록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세상이 넓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중략) 재외동포 재단에서 운영하는 Study Korean 사이트 있잖아요. ‘스터디코리아’에서 어느 일정 시간에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모두 다 접속해가지고 화상 회의도 진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디지털로 화상으로 이렇게 한국 아이들과 한번 교류를 해 봤는데도 굉장히 애들이 자극을 받더라고요.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마리는 프랑스 학교에서 경험했던 교류 프로그램을 소개 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한국 학생들과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소피 역시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긴 하지만, 친척 외에 자기 또래의 한국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보다는 한국 시도

교육청과 프랑스 지역교육청 간 자매결연 또는 학생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 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마리: 독일어를 배우는 독일 애들이 우리 학교에 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독일에 한번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도[한국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거 같아요.

소피: 반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이랑 그런 연결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한글학교에서 한글만 배우는 것 같아요.

연구자: 한국 사람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소피: 많이는 아니지만 제 나이 또래 친구들?

한편, 진성희 교사는 모국초청 프로그램 인원 확대가 어렵다면, 유럽 내 재외동포청소년들 간 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기대했다.

진성희 교사: 만약에 아이들을 한국에 다 불러서 하는 게 힘들다면 여기에[유럽 또는 프랑스] 사람을 파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⑤ 재외한인 부모교육 실시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은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이나 자녀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부모라고 보았다. 자녀에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인식이 바로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선경 교장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학부모들 중 일부는 자녀가 프랑스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 것을 우선시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와 역사 교육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이 결국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즉, 부모가 자녀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한국인과 프랑스인이라는 이중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자녀에게 콤플렉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선경 교장: 아이의 정체성이 엄마의 정체성과 관련이 돼 있고요. 그게 고스란히 자녀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고 협의회에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엄마들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꼭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활동을 미루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정체성이 학부모님의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FGI 분석 결과

1) 한글학교의 역할 및 목표 재설정

전문가 FGI에 참석한 이들은 유럽 내에서 한글학교의 역할과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과거에는 유럽으로 유학 후 정착한 한-한 가정 자녀들이 한글학교 학생 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면, 최근 10년 동안의 한글학교 학생 구성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즉, 국제결혼 가정(한-불, 한-독 가정) 자녀들의 비율이 늘고, 유럽 현지인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반영하여 한글학교의 역할과 운영 목표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 C에 따르면,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당위적으로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글학교에 자녀를 억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한글학교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C: 한글학교가 학생 구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글학교에 오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여기서 얻어가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분에게는 정체성일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그야말로 가족과 단순히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글학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그분들이 스스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략) 그분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매개로 장을 제공하되, 그 의미는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다. (중략) 예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라는 어떤 당위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입 같은 것을 받고 오는 거예요.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어공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불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미 이 분들은 여기 주류사회에 편입이 돼서 주류 중산층 이상의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에 있어서는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절박한 건 아니예요. 그분들은 양쪽 문화를 좀 더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둘 다 다 수용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 같아요.

물론 부모에 따라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일부 부모는 일을 하고 있어 자녀에게 한글을 가르쳐 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글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한국어 교육을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한국어 실력이 반드시 향상되어야 한다기 보다는 본인처럼 한국인의 뿌리를 지닌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가정의 증가하면서 부모들의 태도가 보다 유연해지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변화된 부모들의 요구가 한글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독일과 달리 한글학교에 현지인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지원은 한인 학생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지인 3명은 한인 학생 1명으로 인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진다. 프랑스 한글학교의 경우 몇 개 한글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4:6, 3:7의 비율로 한인에 비해 현지인의 참여 비율이 높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 D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D: 한글학교 청소년들이 한글학교 왔을 때 놀라는 것은 많은 프랑스 학생들을 보면서 자기의 위치를 찾는 거 같아요. 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프랑스 학생들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고 한국어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아정체성을 더 찾게 되고 또 프랑스 학생들도 한국학생이 딱 있으면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현상을 봤거든요. 지방 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기 힘든데 한글학교 와서 오히려 프랑스 학생들을 보고 자아정체성이 역으로 형성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2) 한글학교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요인

(1) 한글학교의 전문성 확보: 비영리단체로서의 한글학교가 지닌 딜레마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달하고 이들에게 정체성 형성의 기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 내 한글학교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학교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는 대부분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비영리단체로서의 형식적 외피는 한글학교가 '학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들을 갖추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 C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글학교는 교사와 학부모의 열정과 봉사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더 이상 희생과 봉사로는 유지되기 어려운 규모에 이르렀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 수준 역시 과거와는 달리 다양해졌다. 그렇다면 한글학교는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재설정되고, 그 역할에 맞는 형식과 내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전문가 C: 한글학교가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형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한 측면에서 한글학교는 학교로 운영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 학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 자체가 안 갖춰진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한글학교를 하시는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그야말로 노력으로 오랜 세월 채워온 거예요. 그냥 그분들의 어떤 정열과 봉사와 이런 것들로 그게 채워져 왔지만 이게 정말 한글학교란 이름에 걸맞게 가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건들이 필요하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전문성이죠. 만약에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자체가 일시적인 재정 지원이나 무슨 문화행사를 지원하거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한글학교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글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면 한글학교 학사운영과 실제 수업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인력확보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전문가 C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으나, 거주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의 단체 성격이나 그에 따른 요건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인 사회가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 한인들이 거주국에서 현업을 가지고 있고, 한글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 또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한글학교 발전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인식했다.

그렇지만, 한글학교가 현재와 같은 비영리단체로 운영될 경우 교사수급 문제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학부모의 요구수준과 한글학교가 수행하는 역할 및 성과 간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글학교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대규모 한글학교와 지역의 영세한 한글학교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로서의 한글학교 성격 문제를 모든 한글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문제는 한글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한글학교 구성원들이 현재 거주국 내에서 요구되는 한글학교의 위상과 역할을 재규정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변화가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에 지원이나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한국정부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글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과정, 교재 및 교사의 질 관리

① 교육과정

한글학교가 처한 상황은 거주국별로, 거주국의 대도시와 소도시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 B는 앞서 전문가 A가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글학교가 어떠한 단체로 등록되어 운영되든 간에, 재외동포청소년이 거주국 내에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교육과정, 교재, 교사의 질 관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과정 편성 및 보급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했다.

전문가 B: 사실 한글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 [한글학교]는 시작이 다르잖아요. 이게 학교로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고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이 학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생긴,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과정하고 교과서 정도, 교사, 어떤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라도 그걸 공부하고 노력하셔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그게 기본중의 기본이 아닐까. 해결책을 찾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략) 교육원이든 교육부든 수준별, 연령별 커리큘럼을 만들어주시면 그것이 정말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매일 매일의 주제는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가르쳐야 되는지 교육과정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중요하고 지금 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C가 속한 한글학교는 몇 년 전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 한글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대부분 한글학교들 중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전문가 C는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고, 그것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때문에, 한글학교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한글학교의 목표와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 C: 저희는 학부모님들이 몇 년 전에 원했던 게 교육과정을 만들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교육과정 없이 운영되는 학교 상상 생각해보셨어요? 한글학교 사실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육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글학교라는 것이 사실은 그때그때 수요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저희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계속 개발하고 교육과정 연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학업성취도가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학생들의 수가 늘은 거죠.

② 전문성을 갖춘 교사

한글학교의 질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글학교가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이 전문성을 갖춘 교사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 FGI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한글학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한글학교 교사 인증제’를 2016년 4월에 도입하였고,⁵⁰⁾ ‘교사인증제 이수 비율’을 한글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정량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⁵¹⁾ 그런데

50) 재외동포재단(2016. 4.7.).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교사 인증제’ 도입한다.’ 보도자료.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사인증제 이수 비율이나 교원자격증의 보유 여부가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전문가 C와 A에 따르면, 한글학교 입장에서는 한국 및 거주국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보다는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재외동포재단의 재정 지원 기준을 고려할 때, 또 학부모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요구수준을 고려할 때,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 한글학교 교사 경력을 인증해 주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 C: 재외동포재단에서도 방향자체가 전에는 성인 학습자용 강의가 되게 많았는데 이젠 아동 학습자용으로 이중 언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수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한글학교들이 성인 학습자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이에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아동청소년 학습자를 가르치는 데 거기에 맞는 교사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교사자격증은 아니고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닌가. 제가 6년 동안 한글학교 운영하면서 느낀 게 정말 교사가 아무리 박사고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에게 한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황해 하신다는 거죠.

전문가 A: 한글학교에서는 교사자격증 가진 선생님보다는 1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중요해요. 이런 선생님들한테 한글 학교에 남아있게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움직이고 하는 데에는 반드시 봉사료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봉사료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데 무슨 보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년, 5년, 10년 지나면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가 진짜로 있어요. 전 그걸 굉장히 높이 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51) 이 외에도 한글학교 교사가 보유한 자격증별로 차등 비율이 적용된다(한국어교원자격증(0.5), 한국 또는 거주국 교원자격증(0.5),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0.25), 교사인증제 이수(0.25))(재외동포재단, 2018. 10. 11.).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Study korean 사이트에서는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여기에는 인증과정 1단계 수업과 2단계 수업, 최근 (2018년 9월) 활용과정이 추가되었다.⁵²⁾ 활용과정은 인증과정 1단계, 2단계 이수 자들과 경력 교사들의 추가 학습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경력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일정 부분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활용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

전문가 A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사 인증제와 별도로, 한글학교에서의 교사 경력을 인증해 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 C는 한글학교 교사의 경력을 인증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사의 경력을 단순히 연한으로만 고려했을 때 그러한 인증이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때문에, 한글학교 교사 경력에 대한 인증보다는 오히려 경력이 쌓일수록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제안했다.

전문가 C: 저는 한글학교 교사에게 그런 자격적인 혜택, 인증해 주는 게 필요하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학교 교사의 경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인정을 받을 만큼 전문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시는 교사도 있지만, 한글학교는 봉사인 만큼 전문성이 떨어져요. (중략)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호봉제가 생긴 이후로 교사들이 안 나갑니다. 3년 되면 30유로 더 받는 거예요. 하지만 교사들이 내가 한 노력이 인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아 내가 이렇게 한글학교에서 노력하니까 인정을 받는구나’ 생각해요. 저는 실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52) Study Korean 홈페이지. “교사인증과정”에 대한 설명 내용 참조.

③ 교재

전문가들은 재외동포재단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원하는 교재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러워했다. 특히 충분한 교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만족해했다. 다만, 한글학교 공통적으로 유아반에 교구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수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했다.

전문가 C: 실질적으로 좋은 교구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교구하나에 따라서 아이들이 집중도가 달라지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교구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3) 중등 청소년들의 한글학교 이탈 예방 및 한국어 교육의 저변 확대

많은 한글학교에서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유아반과 초등반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잘 이수했다라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의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한글학교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학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글학교에 나오도록 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초등학교 수준에서 한글학교를 다녔다 하더라도 중등학교 기간 동안 한글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한국어 구사가 어려워진다. 즉, 한글학교 운영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라도 중등학교 수준에서 한글학교를 이탈하는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문가 B에 따르면, 유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글학교를 다닐 경우, 중학교 입학 시기가 되면 거의 10년을 한글학교를 다닌다고 볼 때 체계화된 교육과정이나 새로운 교수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 대다수가 한글학교 교육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C는 중등학교 청소년일수록 프랑스 교육과정이나 대학 입시와 연계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V 1, 2, 3는 제 1외국어부터 제 3외국어를 의미하며, 이 과목들의 내신 성적의 평균점수가 바칼로레아 시험에 반영된다.⁵³⁾ 한국어는

제 1, 제 2, 제 3외국어로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대체로 LV 1에는 영어가 주로 채택되며, 한국어는 학교에 따라 LV 2, LV 3로 채택되어 운영된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은 2학년 때 2번의 외국어 시험을 치르고, 3학년 때 1번의 외국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3번의 시험결과의 평균점수가 바칼로레아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한글학교를 다니는 재외동포청소년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경우 LV 점수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재외동포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장이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하고 수업을 개설할 때 가능하다. 때문에 한글학교의 중등반 교육과정을 LV 과목 선택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한글학교 중등반 청소년의 이탈을 예방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B: 아이들이 중등과정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에 바쁘기도 하고 한글학교에다가 시간을 그만큼 할애하는 것도 어렵고 10년 정도 다니다 보면 한글학교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한글학교의 가장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전문가 C: 사실 중학교 학생들한테 성취감이 일단 있어야 되구요. 실제로 눈에 보이게 한글이 늘어야 되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뭔가 느끼고 두 번째는 바깥놀이하고 토픽 같은 게 보장이 돼야 돼요. 스스로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나이가 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걸 공부하면 엘베두(LV2)나 투와(LV3) 성적을 받을 수 있고 바칼로레아 반영이 되고 이것들이 은근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한글학교 중학교 과정을 프랑스 교육과정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53) 2018년 10월 마크롱 정부는 바칼로레아 시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내용에는 외국어 점수가 바칼로레아 시험에 반영되는 배점 비율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혁안 이전에는 LV 3의 시험점수가 바칼로레아 점수에 반영되었다면, 현재 개혁안에는 LV 3 점수는 반영되지 않는다(프랑스 전문가에게 자문한 내용).

전문가들은 한글학교 활성화는 결국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재학하고 있는 정규 학교과정에서 한국어가 채택될 경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정규 학교의 문화수업(아틀리에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에서 우선 한국어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도록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 학부모의 역할

전문가들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나마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강조하는 열의가 있는 편이다. 그런데 학부모마다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기대하는 결과물은 다양하다. 가정에서 전혀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한글학교를 자녀를 보내는 것으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과 별개로 가정에서도 한국어로 말하기와 읽기를 강조하는 부모가 있는 등 각양각색이다. 한글학교로서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가정에서도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 어려운 점은 가정에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부모들 중 한글학교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자녀의 한국어가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B: 한글을 떼기를 원하세요. 집안에서의 가정의 노력이 별로 많이 없으시죠.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하시는 경우는 집에서 한국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면 인제 불어로 하는 게 더 편리하시니깐요. 그래서 한글학교를 보내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고... 그런데 언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일주일에 세 시간 수업으로는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아이들 수준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거기에서 오는 문제 플러스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기대. 그니까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한 것이 한글학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문가 A: 저는 자주 생각하는 게 운영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학부모예요. 사실 학부모가 인정해주는 또는 학부모가 동참하는 그런 수준의 일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그러면은 학교가 뭐 난리를 치는 무슨 석학이 와서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세 시간 갖고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중략)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다양성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학교는 목표를 정해 놓고 반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자 교사회의를 하거나 임원회의를 할 때 그 정도 개념을 적용하는데 어떤 학부모님은 ‘우리 애는 왜 거기서 거기밖에 안 해?’ 그러시면 사실은 그 애를 위해서 우리가 선생님을 따로 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학생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학부모교육일 수도 있겠다. (중략)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이해시키고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으로 무슨 지역을 한번 묶어서 학부모님들 뭐 이해하기 딱 좋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게 한 번씩 지나갈 수 있다든지 일 년에 한두 번 그런 것도 좋고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특강이나 강연이 제공될 수 있기를 원했다.

3)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

(1) 거주국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 개설 노력

전문가들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학습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노력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프랑스의 경우는 바칼로레아 LV에 한국어가 포함되었으나, 독일의 경우 한국어를 방과후 프로그램(AG)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2017년 12월 1일 기준 29개교로 확인되고 있다(독일한국교육원 홈페이지, 2018. 1. 8.).

전문가들은 정규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한국어 학습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규교육과정에 한국어가 반영되면 한글학교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 C는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LV 2를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교 과정에도 한국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교육원과 한국대사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C: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LV 2, 3에 포함되어서 막 시작이 돼가고 있고 있는데 중학교부터는 이 한국어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가 프랑스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2) 재외동포청소년 현장전문가의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

전문가 FGI에 참여한 한글학교 관계자들은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들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에 거주국 한글학교 관계자나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기를 기대했다. 기실,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거주국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의 교육과 성장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정책요구가 반영되고 그들의 검토와 자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현장에 도움이 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 C: 정책을 개발하거나 하실 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목소리를 더욱더 많이 듣고 실제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데 참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울러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성장 지원 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과 한글학교 관계자들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구축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한국교육원의 역할 강화

주지하다시피,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은 주로 교육활동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현재 한글학교에 대한 업무 지원은 주로 재외동포재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전문가 E에 따르면, 과거에는 한국교육원이 한글학교를 관리, 평가하였고, 교육활동에 관한 조언과 협의를 주로 담당하였다. 그런데 재외동포지원 업무의 대부분이 외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글학교 지원 업무도 교육부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되었다.

물론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적어도 재외동포청소년의 교육지원, 한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은 한국교육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큰 틀에서 외교부가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활동,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가 보유한 콘텐츠 및 지원 전달체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E: 한글학교 지원에 있어서 한국교육원 역할은 옛날보다는 너무 축소 됐고 옛날에는 예산 지원부터 해서 한국 교육원이 한글학교를 관리하면서 평가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 지원 부분이 재외동포 재단 쪽으로 넘어갔고, 교육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교육 활동 관련해서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재외동포 지원업무 중 교육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한글학교 교재를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제작, 보급하는 데 국한된다. 교육부는 재외 공관 내에 있는 한국교육원에 원장을 파견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유럽 내 한국교육원은

한국에서 제작한 교재를 한글학교에 보급하는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원이 한글학교를 지원하거나, 한글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 및 도서 지원

앞서 한글학교 학부모와의 면담분석 결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부모가 언제 어디서든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거주 지역에 한글학교가 없는 경우, 또는 한글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한글학교를 다닐 수 없는 재외동포들이 활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관련 자료를 담고 있는 CD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D는 덧붙여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도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전문가 C: 어린아이들이 놀이로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CD라든지 사이트라든지 정말 전문가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또 한국은 정말 동화책도 많은데 우리 재외동포청소년이 읽을 정도의 수준의 책이 없어요.

전문가 D: 창작동화 지원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교재는 너무 많은데 동화 같은 거 구입하려면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5)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최

유럽 내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모국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대륙별로 참가 인원이 정해져 있고 2018년 기준 유럽의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연수 프로그램 배정 인원은 60명이

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국가별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다.

대륙별로 참여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제기될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연 500명의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인원 증가보다는 대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한글학교 진성희 교사와 전문가 E는 유럽 내 재외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륙별 별도 프로그램이나 캠프를 개최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전문가 E: 유럽에 있는 한글학교 청소년들이 유럽 각국 애들하고 교류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 주면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생각합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국가별 한글학교협의회는 자체적으로 한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캠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프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타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청소년을 만나 교류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캠프 참여가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열의를 더 강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캠프 참여 대상을 유럽 내 한글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 효과는 더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들이 궁극적으로 유럽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 내 한인들의 발자취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도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동포재단이 기존에 개최하고 있던 한국에서의 연수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별도로 대륙별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방안,

또는 격년으로 한국과 대륙별 연수 프로그램을 번갈아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가 되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한글학교협의회가 주최가 되어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사업 제안을 할 경우, 재외동포재단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소결

지금까지 독일과 프랑스 각각 2곳의 한글학교 관계자, 구체적으로 학부모, 교사,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와 재외동포청소년 교육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면담조사 및 FGI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표 V-6 면담조사, FGI 주요 결과 및 시사점

구분	주요 분석 결과	시사점
독일 면담 조사	<p>① 한인회 및 독일 사회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회와는 형식적 교류가 있을 뿐 활발한 교류 없음 → 한인 커뮤니티 간 이주배경의 차이 및 세대 차이에 기인(한인회 내부적으로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함) 한글학교는 독일 사회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홍보대사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국 내 한글학교의 역할 변화 한인회와 한글학교 간 유기적 협력 관계 형성 필요
	<p>② 독일 사회에서의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 교육의 의미</p> <p>[학부모] 자녀 정체성 유지 및 더 많은 기회 보장</p> <p>[교사] 정체성 유지를 위한 울타리, 세계시민 양성소</p> <p>[청소년] 또래 친구를 만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학교: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또래 친구와의 교류,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곳으로서의 역할 수행

구분	주요 분석 결과	시사점
	<p>③ 한글학교 발전 방안 및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p> <p>(1) 한글학교 발전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수급 문제 및 전문성 제고 • 한글학교 교육의 어려움: 학생 수준별 차이 문제 • 유아용 교재 지원 • 한글학교 특강 지원 • 한글학교 재정 지원 기준에 대한 재고 → 한인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영세한 한글학교의 운영 어려움 심화 <p>(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 방문 기회 확대 •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 • 한국학교 체험 기회 확대 및 중고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 교사의 질 제고 방안 마련 • 학생 수준별 차이를 고려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지원 • 유아용 교재(놀이, 활동) 지원 • 한글학교 교사, 학부모, 청소년 대상 특강 실시 • 한글학교 재정지원 기준 재검토 • 모국 초청연수 인원 확대 • 모국 초청연수 외, 모국 방문 시 참여 프로그램 확대 • 한국학교 체험 기회에 대한 정보 안내 및 홍보 • 한국 중고등학교와 교류 교환학생 기회 제공
프랑스 면담 조사	<p>① 한인회 및 프랑스 사회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회와의 교류는 거의 없음 • 프랑스 파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한글학교가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의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에 대한 현지인들의 참여 활발 → 한글학교의 새로운 역할 모델 • 한인회와 한글학교 간 유기적 협력 관계 형성 필요
	<p>② 프랑스 사회에서의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 교육의 의미</p> <p>[학부모] 안정감 제공, 한국어 및 정체성 형성에 도움</p> <p>[교사] 한국어/한국문화의 홍보대사, 세계시민을 키우는 곳</p> <p>[청소년]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또래 친구와의 교류, 정서적 안정감 형성에 도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홍보대사,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곳으로서의 역할 수행
	<p>③ 한글학교 발전 방안 및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p> <p>(1) 한글학교 발전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소도시 한글학교 운영 유지에 대한 지원 • 유럽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적합한 교재 및 최신 교육 콘텐츠 제공 • 한글학교 교육과정 편성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맞춤형 교재 제작 보급 • 최신 교육콘텐츠 보급 • 한글학교 교육과정 편성 보급 • 유아용 교재 지원 및 연수 기회 제공

구분	주요 분석 결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교재 지원 및 연수 기회 • 한글학교 운영 전반의 문제에 대한 재검토 (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 •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진학·진로정보 제공 • 차세대 성장을 위한 한인회의 지원 강화 • 조국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모국초청 프로그램 확대 • 다양한 목적을 지향하는 활동 캠프 및 교류 프로그램 실시 • 재외한인 부모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청소년 진학, 진로정보 상시 제공 • 차세대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조국체험 프로그램 홍보 강화 및 모국초청 프로그램 인원 확대 • 유럽 내 교류 프로그램, 한국 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확대 • 재외동포 대상 정기적인 부모교육 특강
유럽 재외 동포 청소년 전문가 FGI	<p>① 한글학교의 역할 및 목표 재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시점에서의 한글학교 역할, 위상 재설정 및 그에 따른 운영 목표 재구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고려, 현 시점에서의 한글학교의 역할, 목표 재설정 필요
	<p>② 한글학교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 전문성 확보: 비영리단체로서의 한글학교가 지닌 딜레마 • 교육과정, 교사, 교재 • 중등 청소년들의 한글학교 이탈 예방 및 한국어 교육의 저변 확대 • 학부모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국 내 한글학교의 단체 성격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한글학교 교육과정 편성 보급 필요 • 교사의 전문성 유지 방안 마련 • 재외동포청소년 맞춤형 교재 보급 • 중등 재외동포청소년 한글학교 이탈 예방을 위한 한글학교 교육 개선 • 학부모 교육 실시
	<p>③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국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어 개설 노력 • 재외동포청소년 현장 전문가의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참여 • 한국교육원의 역할 강화 •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 및 도서 지원 •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학교에서 한국어 개설을 위한 외교적 노력 • 재외동포재단-한글학교협회 간 네트워크 구축 • 한글학교에 대한 한국교육원의 지원 방안 다각화 • 교육자료 및 도서 지원 방안 마련 •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최 방안 마련

본 연구에서 수행한 면담조사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청소년 교육 및 이들의 성장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재외동포 관련 조사들 중 유럽지역 재외동포 대상 연구가 거의 부재하다는 점에서 면담조사가 지닌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입장과 태도, 한글학교를 통한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교육의 실태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면담조사가 지닌 의미에도 불구하고, 면담조사 진행과정에서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면담자 선정이 주로 현지 한글학교 교장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글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재외동포청소년을 면담조사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한글학교를 이용하지 않는지를 조사했다면,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개선점,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유럽의 경우 한글학교를 통해 주로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면담조사가 수행되었는데, 다양한 재외동포 관련 기관들을 면담조사 기관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 제6장 정책 제언

- 1. 정책 제언의 배경
- 2. 정책 과제

1. 정책 제언의 배경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가의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중요성과 그들을 위한 지원방향을 정리하였고, 3장에서는 재외동포 및 교육기관 현황,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 현황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이주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5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 학부모,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와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전문가 대상 FGI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과제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의 내용은 2장~5장의 주된 분석결과와 시사점에 근거한 것이다.

54) 이 장은 김정숙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VI-1 연구내용별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

내용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제 II 장	<p>연구내용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의의</p> <p>[주요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의 자연감소, 생산가능 연령인구의 감소 → 전 세계에 산재한 재외동포를 국가의 미래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로 미래 인적자원의 확보와 활용의 중요성 증가 →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통일문제 등 재외동포의 역할의 중요성 증대 (민간 외교관, 주요 소비자 및 광고자, 문화사절단, 통일의 가교 역할 등) • 재외동포청소년이 대한민국 발전의 촉진자, 한민족 발전의 후원자, 한민족 문화의 계승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한민족 정체성을 토대로 거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p>[정책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청소년이 한민족정체성을 겸비한 상태에서 거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경우, 거주국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촉진자 및 후원자, 대한민국 문화의 계승자 및 전파자 역할을 할 수 있음 →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의 근거 및 필요성
제 III 장	<p>연구내용 : 유럽재외동포사회 및 재외동포청소년 현황</p> <p>[주요 분석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지역 재외동포(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제외)의 경우, 외국국적 재외동포보다 재외국민 비율이 더 높음⁵⁵⁾. • 한글학교 재학생수는 독일>프랑스>영국의 순서로 많았으며, 한글학교 재학생들 중 대다수는 일시체류자(독일 17%, 프랑스 7.4%)보다는 영주/시민권자(독일 83%, 프랑스 92.6%)로 파악되었음. •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 및 실태조사 결과 없음 <p>[정책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재외동포(영주권자를 외국국적 동포에 포함)를 재구성할 경우, 일시, 단기체류자인 재외국민은 48.1%,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51.9%임. • 한글학교 재학 재외동포청소년의 비율은 일시체류자보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 → 영주권 및 시민권을 지닌 재외동포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위한 실태조사 필요

내용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제 Ⅳ 장	<p>연구내용 :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p> <p>[주요 분석결과]</p> <p>[1] 정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이민의 경우에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 출생한 경우 한국계 독일인(63%), 한국계 프랑스인(약 60%)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유학 이민한 재외동포청소년에 비해, 거주국에서 출생한 재외동포청소년일수록 한민족 정체성, 한국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게 나타남. <p>[2] 교류경험 및 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독일의 경우 약 67%, 프랑스의 경우 36.6%로 파악되었음. • 동포청소년과의 주된 교류 장소는 교회 등 종교단체, 한글학교 순서로 높았음. • 한국 관련 교류희망 중, 일시적 체류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욕구 중 1순위는 한국방문 기회, 2순위는 한국 관련 교육지원이었으며, 3순위는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독일), 취업 또는 진로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프랑스)로 나타남. <p>[3]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모두 '거주국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음. <p>[정책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 및 시민권자인 재외동포청소년의 교육 방향 → 거주국의 건강한 시민 + 한민족 정체성 겸비하도록 지원 • 거주국 내 동포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이 독일에 비해 프랑스가 낮았으며, 종교단체를 제외할 때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청소년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파악됨 →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청소년 간의 교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할 및 기능 확대 • 공통적으로 한국에서의 일시적 체류, 한국방문 기회, 한국 관련 교육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단기 체류 및 체험 프로그램, 한국 방문기회, 교육지원 확대 제공 필요 • 거주국에서 한국문화 전파자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 필요

55) 재외국민에는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기타가 포함되며, 외국국적 동포는 시민권자를 의미함. 그런데 유럽의 경우 영주권자를 재외국민에 포함하기보다는 외국국적 동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표 Ⅲ-5) 참조). 이를 토대로 재외동포 인구 현황을 재구성하면, 독일의 경우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가 45.1%, 일반체류자 및 유학생 등이 54.9%이며, 프랑스의 경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24.1%, 일반체류자 및 유학생 등이 75.9%임.

내용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제 V 장	<p>연구내용 :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계자 면담조사</p> <p>[주요 분석결과]</p> <p>[현황 및 한글학교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회와 한글학교 간 교류기회 부족 → 한인회 내 원활한 세대교체 필요 • 한글학교는 거주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역할, 지방의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으로서의 역할을 동시 수행 •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또래와의 교류 장소, 세계시민 양성소로서의 기능 수행 <p>[한글학교 발전방안 및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 운영 제반(교육과정, 교사, 교재)에 대한 지원 필요 • 유아용 교재 지원 • 영세한 한글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필요 • 모국방문 기회 확대, 재외동포청소년 한국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등 • 한글학교 교사, 학부모, 청소년 대상 현지 특강 실시 • 유럽 내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 • 거주국 정규학교에서 한국어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 한글학교협의회, 재외동포재단, 한국교육원 간 정기적 협의회 개최 • 한국교육원의 역할 강화 • 독일 재외동포청소년: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교환학습 희망 •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취업 및 진로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예: 진로체험 시 프랑스 내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과의 연계) <p>[정책적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를 통해 성장한 재외동포청소년이 한인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한인회 내 원활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고려 필요 •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청소년 뿐만 아니라 거주국에서 수행하는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지원 강화 • 한글학교 운영 기반(교육과정, 교재, 교사 전문성 제고 등) 지원 • 한글학교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 재외동포청소년-모국 간의 교류, 연계 지원 •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적 생태계 구축 • 유럽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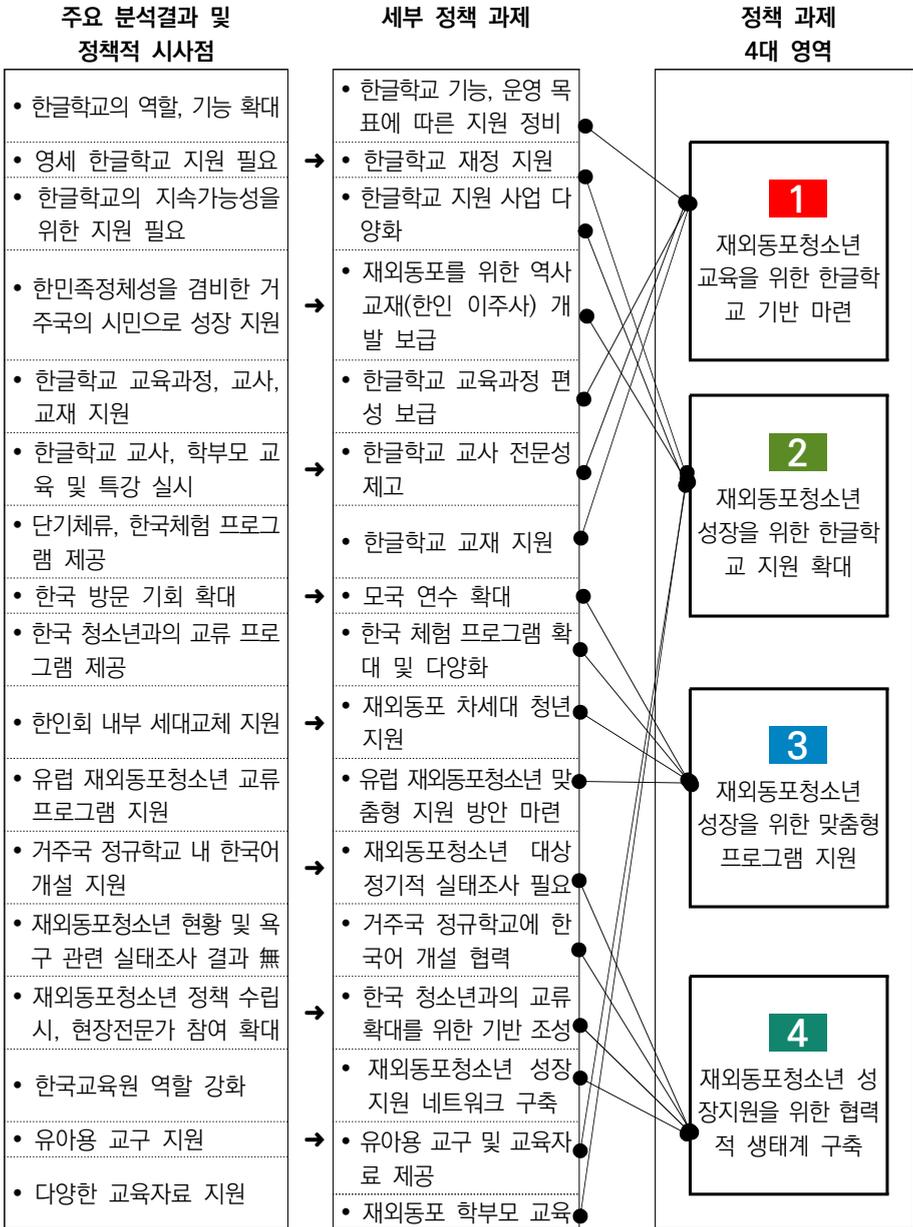


그림 VI-1 정책 과제의 근거와 내용

정책 영역	세부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글학교 운영 목표 및 기능에 따른 지원 2. 한글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교육과정 편성 및 거주국에 적합한 교재 개발 및 보급 2-2. 교사의 전문성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외동포 이민사를 포함한 한국사 교재 개발 및 보급 2. 유아용 교구 지원 및 다양한 교육자료 지원 3. 재외동포 학부모 및 청소년 교육특강 지원 4. 한글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 보완 5. 한글학교 지원 사업 다양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매트릭스 개발 및 관련 프로그램 연계 1-2. 모국 연수 기회 확대 1-3. 한국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1-4.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 1-5. 재외동포 차세대 청년 지원 1-6. 한국 중·고등학교 교류·교환학습 기회 제공 1-7. 진로 및 취업 정보 서비스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한국-거주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2-2. 거주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거주국-한국 지자체 및 중·고등학교 간 교류 기반 조성 4. 거주국 정규학교의 한국어 채택 지원

그림 VI-2 정책 과제 영역 및 세부 추진과제

2. 정책 과제

01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한글학교 기반 마련
1. 한글학교의 운영 목표 및 기능에 따른 지원	

1) 제언 배경

본 연구에서 실시했던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거주 이유(출생, 유학, 이민 등)별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국에서 출생한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 한국계 독일인(63.0%), 한국계 프랑스인(59.1%)이라는 인식이 절반 이상의 응답 비율로 파악되었다. 한-한 가정의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사용과 한국문화에 대한 접촉이 빈번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만, 거주국에서 성장하고 정주할 경우 이들 재외동포청소년들 역시 한국문화와 거주국의 문화 모두를 자신의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유럽으로 이주한 1세대 한인들 중 일부는 자녀가 거주국의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한국어 사용을 가급적 삼가하고 거주국의 언어를 무조건 사용하도록 강조하기도 했다. 1990년대 전후로 유럽으로 이주한 한인들 중 일부는 자녀교육을 위해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한인사회 내부에서는 그러한 자녀교육 방식이 오히려 자녀의 정체성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최근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재외동포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문화와 거주국의 문화, 두 가지 모두를 기반으로 문화적으로 풍부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 중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다른 재외동포청소년들과 주로 교류하는 장소 1위는 교회, 성당 등 종교단체(독일: 38.3%, 프랑스:

44.0%)였으며, 2위는 한글학교(독일: 21.2%, 프랑스: 21.9%)로 파악되었다. 면담 조사에서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은 한글학교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유럽 내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유럽의 한글학교는 재외동포 자녀들 외에도 현지인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인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현지의 교육기관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술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글학교의 운영 목표와 기능을 현재의 시대적 요구와 위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정책 방향

한글학교는 유럽 거주국에서는 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 모두를 위한 교육에 관여하고 있다. 과거 한글학교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당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했다면, 현재 한글학교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개방적 태도를 가르치고 동시에 이중 언어 구사와 이중 문화의 수용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자산이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지인들과 한글학교를 함께 다니는 것은 다문화적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럽 내 한글학교가 놓인 시대적, 사회문화적 맥락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데, 국내 각 부처들의 지원 업무는 한글학교의 현재 기능과 운영 목표 전반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한글학교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식의 운영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세부 과제

현재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역사 교육과 유럽 내 거주국 현지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외동포청소년들 간 교류활동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외교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I-2 부처별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사업 중 한글학교 지원 관련 내용

구 분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사업	한글학교 지원
외교부	① 한글학교 육성(운영비 지원, 교육자료 지원사업 등) ② 한글학교 교사 육성(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전문강사 파견, 교사 초청 연수, 사이버 교사연수) ③ 재외동포 교류지원(차세대 단체 지원, 청년 지도자 대회 지원) ④ 동포사회 숙원 사업 지원(한인회관 건립 등) ⑤ 조사연구사업 ⑥ 재외동포 장학사업 ⑦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 (중고생, 대학생 모국 초청 연수 등)	①, ②, ⑦
교육부	①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 한국교육원 재정 지원 - 재외동포교육지원 포털시스템 구축 운영(2019년 운영 예정) -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개발 보급 - 재외동포교육 진흥사업 지원 ② 재외동포청소년 초청 교육사업 ③ 한국사 정확히 알리기 ④ 해외에 한국어 알리기(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채택사업 지원)	직접: ① 중 교과서 및 교재 개발 지원 간접: ②, ④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8b). 재외동포교육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교육부(2018c). 2018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과 교육자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글학교 교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의 한글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은 한글학교 교과서 및 교재 지원이 주를 이룬다.

그 외 재외동포청소년 초청 교육사업 및 해외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채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기본법」에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주로 세종학당 운영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표 VI-3 참조).

표 VI-3 「국어기본법」의 관련 내용

구 분	관련 법령 내용	법령에 근거한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9조의 1항, 2항과 관련된 별도의 지원 사업 없음

* 출처: <http://www.law.go.kr/법령/국어기본법>에서 2018. 10. 15. 인출

현재 유럽의 한글학교에는 상당수의 현지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재학 중에 있다. 한글학교에 유럽 현지인들의 참여는 유럽 지역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현지인들의 참여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정 비율 현지인들이 참여할 경우 한글학교가 유럽지역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한글학교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외동포재단이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외동포청소년에 비해 현지인의 비율이 절대 다수인 한글학교의 경우, 이를 재외동포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한글학교에 대한

규정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예컨대 재외동포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한글 학교로 인정), 현지인 비율이 절대 다수인 경우 한글학교가 아닌 별도 기관(예컨대 세종학당으로 변경 등)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글학교가 재외동포청소년의 교류 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 한인회관 건립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한글학교를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회와 한글학교협의회 간 협력이 필요하며, 지역별 우수한 한글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한글학교의 다양한 기능을 시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글학교의 기능 정비 및 활성화를 통해 한글학교를 공공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그림 VI-3 참조).



그림 VI-3 한글학교 기능에 따른 지원 정비

01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한글학교 기반 마련

2. 한글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 2-1. 교육과정 편성 및 거주국에 적합한 교재 개발 및 보급
- 2-2. 교사의 전문성 강화

1) 제언 배경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교육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와 역사교육을 전달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육과정의 체계성, 교재의 적합성, 교사의 전문성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한글학교는 비정규 교육기관으로 재외동포가 스스로 설립한 기관이자, 거주국에서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내용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은 비영리단체로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한글학교가 학교의 형태를 갖추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 한정하더라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보급하는 것이 한글학교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한글학교 운영의 어려움 중 하나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수준이 무척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거주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교육제도의 맥락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와 관련 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은 주로 운영비(임대료 등)와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현재 한글학교 교사가 받는 봉사료는 교육부(현지 학교 한국어채택 지원 사업)나 문화체육관광부(세종학당 한국어 교육)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의 강사료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강사풀(pool) 내에서 지원사업과 한글학교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글학교 교사들의 타 지원 사업으로의 유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개선안이 필요하다.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교재, 교사 관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 방향

한글학교 교육이 안정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보급될 필요가 있다. 면담조사 결과, 한글학교 교재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거주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건이 된다면, 향후 대륙별로 거주국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교사자격증이나 한국어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글학교 교사 경력이 오래된 교사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에 대한 자격 부여 또는 체계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세부 과제

2-1. 교육과정 편성 및 거주국에 적합한 교재 개발 및 보급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에서 의도한 교육활동 또는 그에 관한 계획을 총칭하는 교육과정(curriculum)을 필요로 한다.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교육기관은 교육활동의 체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재외 한글학교 중 대부분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교육과정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체계와 세부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국내의 초, 중, 고등학교들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학년별 과목 시수와 교육내용을 결정하듯이, 재외 한글학교들 역시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따른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한글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보통의 학교와 달리 재학생들의 연령과 발달단계뿐만 아니라 한국어 수준(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이나 부모의 자녀교육 태도에 따라 상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럽 내 한글학교 교육은 보통 만 3세부터 시작되지만 정규학교와 같이 학생들이 만 3세 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연속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연령과 발달 특성,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글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가능한 1개 국가와 1~2개 한글학교를 선정한 파일럿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한 후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한글학교가 주말학교임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의 한국어 학습과 병행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글학교의 교육과정 편성·보급 외에, 거주국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는 2010년부터 ‘한글학교 한국어’ 교재(1~6권)를, 2012년에는 언어별 ‘맞춤 한국어’(1~6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범용 교재(1~6단계, 단계별 교재 2권) 및 범용 교재를 기반으로 한 영어권, 일어권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홈페이지, 2018. 10. 15.)⁵⁶⁾ 대륙별 맞춤형 교재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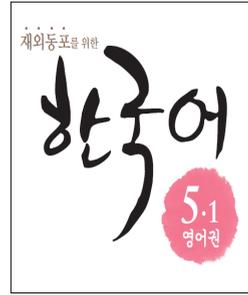
56)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http://www.efka.or.kr/efka0301.asp>에서 2018. 10. 15. 인출



한글학교 한국어



맞춤 한국어(독일어권)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그림 VI-4 재외동포용 교재

* 출처: 재외동포교육재단 홈페이지(<http://www.efka.or.kr/efka0302.asp>)에서 2018. 10. 15. 인출.

과거에 비해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거주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주국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지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특성, 즉 정체성 교육이 반영된 교재개발이 중요하다.

2-2.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강화는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인증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e-교사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⁵⁷⁾ 한글학교 교사들은 study korean 사이트로부터 다양한 수업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다. 교사들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은 다양한 반면 한글학

57) study korean 홈페이지 참조.

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crtfc.CrtfcStudyAction?p_process=intro&p_menuCd=m701&gnb=teach에서 2018. 10. 16. 인출

교의 특별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이에 한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을 위한 연수 및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연수가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글학교 교사들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연수 외에 매년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하는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도 참여한다. 그렇지만 세계 각지의 한글학교 교사들 모두가 연수 초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못하기 때문에, 모국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해 거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글학교 교사 연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강 강사 지원, 교수법 자료 등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글학교 교사가 재외동포재단의 교사인증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시간 한글학교에서 교사로서의 경력을 쌓을 경우 자격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글학교 교사로 입문하는 이들을 위한 인증과정이나 연수과정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반면, 한글학교 교사로서 장기간 활동한 이들을 위한 재연수 과정이나 이들의 경력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한글학교 교사로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인증과정과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제공된다면, 한글학교 교사 수급이나 질 관리 등의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0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1. 재외동포 이민사를 포함한 한국사 교재 개발 및 보급

1) 제언 배경

설문조사 결과,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민족 정체성 관련 문항 중 ‘나는 독일/프랑스 한인사회의 역사에 대해 잘 안다’는 문항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V-23 참조). 이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인들의 이주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1960년대 국가 간 체결에 의해 이루어진 집단 이민 등 한인의 이민사는 한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 역사 전반에 대해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륙별 재외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학습하는 것은 그들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글학교 학생용 한국사’(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2006) 교재가 개발되어 보급되었지만, 한국사 교재에 한인들의 이주사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국 및 대륙별 한인 이민사를 포함한 역사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한글학교에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방향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한민족 정체성을 겸비한 거주국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륙별 한인 이민사를 포함한 한국사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세부 과제

한국에서도 재외한인들의 이주와 정착에 관련된 기록물들이 체계적으로 발간, 관리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 전후로 미주, 아시아, 유럽 및 유라시아 한인 이민사에 관한 도서와 기록물들이 활발하게 발간되고 있는 반면, 이주의 당사자인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에서 관련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 ‘한글학교 학생용 한국사’ 교재가 2006년 개발 보급된 이후 새로운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인 이민사를 포함한 한국사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한국사 교재는 대륙별(미주, 아시아, 유럽 및 유라시아 등)로 구분하고, 각 교재에는 대륙별 한인 이민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한국사 교재가 개발되어 보급되면,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2. 유아용 교구 지원 및 다양한 교육자료 지원	

1) 제언 배경

현재 유럽 내 한글학교들은 유아반부터 초중등반, 성인반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초중등반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수준이 다양하여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유아반의 경우 수업에 필요한 교구나 활동 자료의 부족으로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자료나 교재는 이미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지만, 유아반을 위한 별도의 교재나 교구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거주국의 학제에 따라 만 3세부터 유치원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학제에 맞추어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에서 유아용 교구 지원이나 활동 자료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없는 여건에 놓인 재외동포들이 언제 어디서든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역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 자료들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2) 정책 방향

유아용 교구나 관련 자료가 지원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용 교과서 및 교재 개발 보급의 근거가 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도서와 자료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교육 자료 제공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세부 과제

현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재외국민을 위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재외교육단체 등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가 초중등 과정에 제한되어 있다. 유럽 내 한글학교의 유아반 교구 및 교육자료 지원을 위해서는 여기에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에 근거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유아용 자료 지원 내용 추가

현행	내용 추가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유아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재,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출처: <http://www.law.go.kr/법령/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2018. 10. 15. 인출.
<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에서> 2018. 10. 15. 인출.

한편,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자료 지원과 오프라인용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2-track으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재외동포교육지원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 포털시스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교육부, 2018. 4. 24.).⁵⁸⁾ 이에 온라인 포털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교육용 CD 자료를 제작하여 재외동포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한글학교 또는 한인회를 통한 다양한 교육 자료(예: 도서 등)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58) 교육부(2018d). 2018년 재외동포교육지원 포털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73982&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1&opType=N>에서 2018. 10. 17. 인출

0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3. 재외동포 학부모 및 청소년 교육특강 지원

1) 제언 배경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은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교육의 성패는 학부모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학부모들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가르치지 않는 학부모, 한글학교에 만 자녀를 보낼 뿐 자녀교육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학부모, 또는 한국에서의 경쟁적 교육방식과 유사하게 한국어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 등은 한글학교 운영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재외동포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 이중 언어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 등에 대한 교육특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글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거주국의 한글학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집중교육 등을 통해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지만, 재외동포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극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방향

재외동포청소년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특강과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특강 등을 실시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세부 과제

현재 교육부나 외교부 등에서 재외동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 사업은 없다. 유럽 내 한인들은 대부분 유학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독일과 프랑스에 정착한 한인들의 교육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거주국에서의 생활한 기간이 10~20년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중 일부는 본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한국에서의 교육 방식에 익숙해 있다. 때로는 이러한 자녀교육 방식이 거주국에서 출생한 자녀들과 마찰을 일으킬 때가 있다. 또는 자녀의 거주국에서의 빠른 적응과 성공을 위해, 거주국의 언어만을 강조하고 사용함으로써 한국어를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학부모들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자녀교육 방식이 자녀의 진로나 직업적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거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학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과 태도를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토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지,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특강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지 강사 파견 연수를 대폭 확대하여, 재외동포 학부모 및 청소년 특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문화와 진로를 접목한 정보, 거주국의 문화를 토대로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0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4. 한글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 보완

1) 제언 배경

현재 한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학생수, 교원수, 지역물가 등을 반영한 정량 평가 기준과 가감평가(결과보고서 제출, 학교운영 및 결과보고에 대한 공관평가 결과, 온라인 사이트 등록 여부, 수업시수, 학교시설 임차 여부, 교사인증제, 방학 중 캠프 시행 등) 기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다.⁵⁹⁾

학생수의 경우, 재외동포수와 현지인 환산 수가 반영되는데, 유럽 현지인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한글학교의 경우 학생수 산정에서 불리하다.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 지원이 재외동포가 한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주국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지인 수가 다수인 한글학교에 재외동포가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한글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유럽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는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과 교류 활동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거주국 현지인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 주는 측면에서 세종학당과 한국문화원의 역할을 일정 부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운영비 산정 기준 중 현지인 비율 적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지인 참여 비율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면, 현지인 학생수가 많아 운영비 산정 기준에서 불리한 한글학교들이 다른 평가기준을 통해 만회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9) 재외동포재단(2018. 10. 11.). 한글학교 지원금 결정 기준 및 공식 내부자료.

또한 교원수 산정 기준에서는 자격증 보유별로 차등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들과의 FGI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글학교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한국/거주국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 외에도 한글학교 경력 교사들에 대한 경력 인증 시스템을 통해 특정 연한 이상의 한글학교에서 가르친 경력이 오래된 교원수가 차등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

아울러 거주국의 수도가 아닌 지방 소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의 경우, 거주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수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한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글학교 학부모나 교사들은 영세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기를 기대하였다. 그렇다면, 재외동포청소년 수가 많지 않은 지방의 영세한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책 방향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는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금 산정은 다양한 평가기준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다. 평가기준 정량지표 중, 학생수와 교원수는 운영비 지원금 산출에 핵심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학생수는 재외동포수와 현지인 환산비율에 의해, 교원수는 정교사와 보조교사의 수, 그리고 교사가 보유한 자격증별로 차등 비율이 적용된다. 유럽 내 한글학교의 운영 실태와 현재의 기능을 고려하여, 학생수와 교원수에 따른 재정 지원 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세부 과제

유럽에서 운영 중인 한글학교 중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곳은 재외동포청소년이 많이 거주하지 않아 학생수가 적은 지방의 영세한 한글학교들이다.

학생수와 교원수가 많지 않은 지방의 영세한 한글학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들 한글학교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수 산정 방식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입직하는 경우, 자격증별 차등 비율을 반영하는 것 외에 한글학교 교사 경력을 차등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영세한 한글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예: 인력, 현물, 재정 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추가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5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 보완(안)

평가지표	현행	보완
학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재외동포수+현지인 환산 비율 (예) 유럽 현지인 비율(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재단의 학생수 산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 →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달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학생수 부족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지원을 통해 보완 (예: 지역 내 k-pop, 한국어 등을 알리는 페스티벌 운영비 지원)
교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별 차등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별 차등 비율은 그대로 유지 → 경력(5년, 7년, 10년 등 기준 마련)이 오래된 한글학교 교원수에 대한 비율 차등 반영
지속가능성 노력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한 한글학교들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노력 반영 →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인력지원, 현물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 추가 지원

0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

5. 한글학교 지원 사업 다원화

1) 제언 배경

현재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은 주로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글학교 운영비 및 교육자료 지원사업,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지원,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한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모국 연수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 거주국별로 한글학교의 지원 요구수준이나 희망하는 지원사업의 내용은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 범주 유형 외에 거주국별로 필요한 지원 사업이 존재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는 한글학교 졸업생들을 한인사회 내의 차세대로 양성하기 위해 한글학교 졸업생들을 한글학교 보조교사로 활용하거나, 이들에게 한인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하여 특정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하는 등 한글학교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그 내용을 재외동포재단이 심사해서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을 원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유럽 한인 이민사나 독립운동 당시 한인들의 발자취를 추적해 가는 자체 캠프를 기획할 경우 그에 대한 경비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 등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에 한글학교 지원 사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방향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기존의 top-down 방식 외에 한글학교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이나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도록 bottom-up 방식의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도입해 볼 수 있다.

3) 세부 과제

한글학교 자체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교류 아이디어, 재외동포청소년 육성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사업 제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한 후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륙별로 몇 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해 볼 수 있다.

한글학교가 제안할 사업 내용은 현재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교육 또는 교류 프로그램의 형식을 띠어야 한다.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을 통해 평가한다. 재외동포재단이 한글학교 자체 기획사업 분야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 분야(예: 재외동포 청년 역량 강화 사업, 재외동포청소년 활동·참여 프로그램, 한글학교 네트워크 강화 사업 등)를 지정하여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03 재외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1-1.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매트릭스 개발 및 관련 프로그램 연계
- 1-2. 모국 연수 기회 확대
- 1-3. 한국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 1-4.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
- 1-5. 재외동포 차세대 청년 지원
- 1-6. 한국 중·고등학교 교류·교환학습 기회 제공
- 1-7. 진로 및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

1) 제언 배경

면담조사에서는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 한국 정부가 초청하는 ‘모국 연수 기회 확대’를 희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 학부모들은 다양한 한국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활용할 수 있기를 원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 공교육 기관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희망했다. 한편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국 연수 프로그램 인원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유럽 재외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원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유럽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또는 유럽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체험 및 교류활동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욕구는 독일과 프랑스 공통적으로 ‘한국 방문 기회’와 ‘한국 관련 교육 지원’으로 나타났지만, 3순위는 독일과 프랑스가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재외동포청소년은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를 위한 반면,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은 ‘취업·진로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을 희망하였다. 실제 면담조사에서도 독일 재외동포청소년 및 학부모는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교환학습 기회를 희망한 반면,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과

학부모는 진로, 취업과 관련된 정보지원을 원했다. 물론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정책 지원 욕구를 드러냈지만, 상술한 두 가지 지원방안은 유럽지역 재외동포청소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유럽 국가별 한인회는 1세대의 고령화와 그로 인한 한인회 내 세대교체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재외동포 청년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한인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인회 내부적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유럽 내 한인회의 대다수는 20대 청년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별도의 활동이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한국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청년들 역시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한인 청년들 간 교류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서도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한인회 내부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 20대 재외동포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정책 방향

유럽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외동포청소년의 연령, 학교급, 한국어 수준, 진로유형(진학/취업), 한-한 가정/국제결혼 가정 여부, 참여 희망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의 요구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매트릭스를 개발하고, 매트릭스를 토대로 요구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럽 재외동포청소년들 간, 재외동포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 간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 차세대 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

3) 세부 과제

1-1.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매트릭스 개발 및 관련 프로그램 연계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한국을 자주 방문한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이나 체험을 원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관련 정보가 없어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study korean 사이트에 재외동포청소년의 개별 욕구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할 경우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의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study korean 사이트에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사이트로 연결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활동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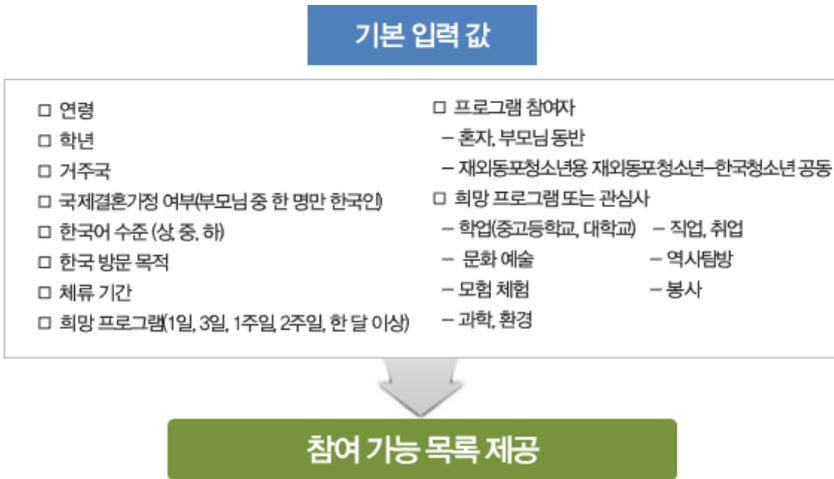


그림 VI-5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매트릭스 개발(안)



그림 VI-6 Study korean사이트(학생)에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연계

1-2. 모국 연수 기회 확대

학부모와 한글학교 교사들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모국연수를 다녀온 후에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열의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가능한 많은 청소년들이 모국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매년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중고생 500명과 대학생 220명을 분리해서 모국연수를 실시하였다. 중고생의 경우 1회에 5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 인원을 추가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국 연수 참여 인원의 증가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국연수를 하계와 동계 등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I-6 2018년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선발 대상

지역	배정인원(명)		합계
	중고생 연수	대학생 연수	
북미	120	40	160
유럽	60	30	90
아주·대양주	80	20	100
아프리카·중동	10	10	20
중남미	40	20	60
(멕시코 한인후손)	(10)	(3)	(13)
(쿠바 한인후손)	(5)	(3)	(8)
러시아·CIS	120	50	170
중국	70	50	120
합계	500	220	720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8a). 2018년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 참가자 모집공고.

1-3. 한국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재외동포 학부모들은 자녀와 한국 방문 시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기를 기대했다. 여기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① 해외동포학생 조국학교 체험 프로그램 홍보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방학기간을 활용해 부모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교육 기관 체험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재외동포청소년이 원할 경우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단기 교육체험이 가능하다. 단, 해당 학교에서는 교내 협의회를 통해 재외동포청소년의 체험학습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⁶⁰⁾

그런데 조국학교 체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외동포 학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2008)의 경우, 2008년에 마련한 해외동포 학생 조국학교 체험 기회 제공 지침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의 학교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 한국교육원, 재외 한국학교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정보를 안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VI-7 해외동포 학생 조국학교 체험 기회 제공 지침(서울시교육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포 학생들에게 애국심 배양 기회 제공 • 올바른 모국어교육의 기회 제공 • 새로운 교우관계 형성 및 조국에 대한 이해 제고의 기회 제공 •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래 동포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체험의 기회 제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포 학생 거주지 근처 학교에 조국 학교 체험학습 신청 - 학교에서는 교내 협의회를 통해 해외동포 학생 체험학습 허가 여부 결정 (해외동포 학생들의 조국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가급적 허가 권장) - 신청서,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 및 급식비 등을 징구하고 희망 학년에 입학 - 학적을 생성하지 않고 청강생 신분으로 체험학습 실시 • <u>재외공관, 재외동포 교육원 및 재외 한국인 학교 등에 홍보</u> •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 체험학습 기간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보호자 책임 • 체험학습 후 학교장 명의로 수료증 발급 가능

* 출처: 서울시교육청(2008). 해외동포 학생 조국학교 체험 기회 제공 기본계획.

60)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동포 자녀가 조국학교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해당 학교의 허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의무사항이 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글이 게시되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7061>)

② 재외동포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보급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VI-8 재외동포청소년 참여 국내 체험 프로그램

주최	프로그램명 및 내용
재외동포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 - 7박 8일 연수 프로그램
(사)겨레얼살리기 국민운동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고등학생, 대학생 (25세 이하) - 6박 7일 연수 프로그램
전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초등 5학년~중학교 3학년 - 9박 10일 연수 프로그램 - 전주시 주최, 한국전통문화전당 주관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8a). 2018년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 참가자 모집공고.
사단법인 겨레얼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2018. 5. 24.). 2018 해외동포 자녀초청 사업 개요.
한국전통문화전당(2018. 5. 14.). 2018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상술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항공료를 제외하면 참가비가 무료이다. 반면, 민간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 청소년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중, 면담조사 결과 전주에서 주최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주관하는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재외동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주시는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의 도시인데다, 관련 콘텐츠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재외동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재외동포청소년 외에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자 연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이 재외동포 청소년과 한글학교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표 VI-9 전주시의 '2018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p>프로그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영역 18개 프로그램 ① 한국어 교육(붓글씨, 한복접기로 배우는 한국어, 활동으로 배우는 한국역사 문화,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전주 등) ② 전통문화체험(사물놀이, 소고춤/부채춤, 민요와 우리노래, 한지공예/한지뜨기, 도자기체험, 한식체험 등) ③ 서울, 전주 탐방(전주 한옥마을 탐방, 서울 역사 알아보기, 국립중앙박물관, 전주 역사박물관 탐방 등) 	
		

* 출처: 김지우(2018. 9. 17.). 2016-2018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콜로키움 발표자료.

재외동포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전주시와 같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평가에서 가산점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3일, 5일, 7일 등 다양한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어,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

현재 독일과 프랑스 내에서는 각국의 한글학교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고, 매년 1회 재외동포청소년 한글학교 합동 캠프 또는 집중교육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한글학교 교장들이 협의체를 형성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외동포청소년 관계자들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는 중고생 모국연수의 유럽 인원(60명) 배정이 많지 않으므로 그것의 대안으로 대륙별 재외동포청소년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였다.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1안은 유럽 한글학교교장협의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소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2안은 유럽 한글학교교장협의회가 장소와 참가자 모집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한편, 재외동포재단이 프로그램과 인력을 제공하는 방안, 3안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는 재외동포청소년 모국연수를 다양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격년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연수를 대륙별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5. 재외동포 차세대 청년 지원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은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초청사업과 ‘재외동포 차세대단체 활동 지원’ 사업 정도가 포함된다. 그런데 재외동포 차세대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단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40~50대로 거주국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보유한 이들이다.

이전 면담조사 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유럽 한인회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인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실무자들 역시 고연령화 되어 있다. 이 때문에, 20대 재외동포 청년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한인회 내부적으로 20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한인회의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기존 재외동포 차세대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거주국의 20대 재외동포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차세대 청년들이 ‘지역사회 및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차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활동’ 등에 대한 기획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심사한 후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청년 관련 연구는 청년 활동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 운영 시 지원 자격 기준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김정숙, 강영배, 2017: 259~260). 구체적으로 청년 차세대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단체의 구성원 수와 활동 지속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게 된다. 그런데 청년단체는 회원이 50명 미만인 경우가 많고, 활동 지속기간 역시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재외동포 청년단체의 경우에도 국내 청년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외동포 청년 20대 단체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청년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체 지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1-6. 한국 중·고등학교 교류·교환학습 기회 제공

재외동포청소년에게 한국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중·고등학교와 유럽지역 해당 국가의 중·고등학교 간 교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일례로, 독일은 주 교육청별로 중·고등학생의 교류 교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헤센주의 경우 미국 위스콘신주, 캐나다 앨버타주, 프랑스 아키텐과 자매결연을 맺고 청소년들의 교류 교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독일 헤센주 교육청 홈페이지, 2018. 9. 15.). 교환학습의 목적은 양국 학생이 호스트 가정에 머물며 현지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독일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학생이 독일 내에서 교환 학습을 잘 경험하도록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교사로 튜터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표 VI-10 독일 헤센주 교류 교환학습 프로그램

구분	내용
미국 위스콘신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및 인원: 17~18세 학생, 10~15명 (양국 학교당 교환학생 인원: 1명) 기간: 5개월 이내 비용: 별도 교육비 없음(비자, 항공료, 보험비용, 체류가정 지불비용 등)
캐나다 앨버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및 인원: 15~16세, 15~20명(양국 학교당 교환학생 인원: 1명) 기간: 3개월 비용: 별도 교육비 없음(항공료, 보험비 체류비 등)
프랑스 아키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및 인원: 14~16세, 15~20명 (프랑스어 A2 등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게 우선권 부여) 기간: 4~6주 비용: 별도 참가비 없음 (여행경비, 개인 경비 지참)

* 출처: 독일 헤센주 교육청 홈페이지(2018. 9. 15.), 미국 위스콘신주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독일 헤센주 교육청 홈페이지(2018. 9. 15.), 캐나다 앨버타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독일 헤센주 교육청 홈페이지(2018. 9. 15.), 프랑스 아키텐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국내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재외동포청소년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은 매년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생들에게 재외동포청소년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VI-11 경기도교육청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구분	내용
2016~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토론토 총영사관, 캐나다 한국교육원-경기도교육청 간 협력 캐나다 거주 재외동포청소년-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 기간: 7월 3일~7월 22일 비용: 왕복항공료 (한국 내 체재비는 경기도교육청 부담) → 2017년, 2018년 2월 한국 청소년들이 토론토 방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한인회와 경기지역 학생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세인트파티마대학 부속초등학교-경기 송북초 학생 간 교류 교류 기간: 10일 내외

* 출처: 국민일보(2016. 7. 8.). 경기도교육청, 캐나다 토론토 재외동포 학생 초청 문화체험 실시.
재외동포신문(2017. 5. 17.). 경기도 -LA 한인회 청소년 교류 활성화 논의.
중앙일보(2018. 9. 5.). 경기도교육청, 필리핀 학교와 교류 추진.

이와 같이, 재외동포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간 교류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편으로 독일 헤센주와 같이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청소년 간 교류학습 프로그램을 장기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재외동포 교육기관(한국교육원) 또는 한인회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 간의 단기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자체 또는 시도교육청과 해외 도시 및 교육청간의 업무 협약이 체결될 때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교환학습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 진로 및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청소년들은 진로 및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했다. 프랑스의 경우,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 후 2주에 걸쳐 본인이 관심 있는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우리나라 중등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진로체험을 진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위학교별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교육부 꿈길 홈페이지⁶¹⁾), 프랑스에서는 학생 개인이 원하는 진로체험처를 찾아 2주간 체험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 학부모들은 방학 기간을 활용해 자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공되기를 원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진로체험 지원 플랫폼 꿈길은 단위학교 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소년이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진로체험처 플랫폼 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재외동포청소년에게도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프랑스 재외동포청소년의 지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61) 교육부 꿈길 홈페이지.

http://www.ggoomgil.go.kr/front/bbs/bbsList.do?rootMenuId=04&menuId=0404&bbs_info_seq=128에서 2018. 10. 20. 인출

뿐만 아니라, 거주국 내 한국 기업과 재외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기업 등 민간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체험 가능 여부와 취업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안내한다면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원하는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욕구를 일정 부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04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
1.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1) 제언 배경

현재 재외동포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매년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재외동포 현황 통계자료는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출장소)에서 작성한 현황,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 한인회 등 동포 단체 조사자료, 재외국민등록부 등을 토대로 추산한 추정치이다. 이 때문에,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통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필요한 정책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 정책 방향

재외동포청소년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매년 외교부가 수집하고 있는 재외동포현황 통계자료에 포함하여 조사하는 방안과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세부 과제

현재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재외동포현황에는 연령별 통계수치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재외동포청소년의 규모, 거주국 내에서 이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재외동포현황 조사에서 연령별 재외동포 현황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주된 사업 중 하나는 ‘조사연구사업’으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재단의 사업 개선 및 신규사업영역 개발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거나 재외동포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 과제를 위탁하기도 한다. 주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연구에 집중하기는 어렵겠지만, 정기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지원의 방향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거나 도출하는 데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재 연령별 재외동포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연령별 재외동포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표본추출을 적용한 할당표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대륙별 재외동포 현황을 토대로 3~4년을 주기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7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방안

04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

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2-1. 한국-거주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2-2. 거주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1) 제언 배경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 내 재외동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거주국 내 재외동포청소년의 교육 및 성장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유럽 내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주로 한글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글학교는 거주국 내에서 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주된 활동은 재외동포청소년의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한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과 주요 활동 간에는 괴리가 있다. 즉, 한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과 운영관리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업무이지만, 한글학교의 주요 활동인 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재단이 보유한 자원으로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study korean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글학교에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재외동포재단이 한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반면, 교육부는 이미 교재, 교육과정, 교원, 전달체계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한글학교 지원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다. 한글학교에 재외국민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한글학교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비정규기관이란 점에서 교육부의 지원 업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원 역시 한글학교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지역의 경우, 3곳(영국, 프랑스,

독일)에만 한국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어 한계가 있지만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서만이라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유럽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과 거주국 사이의 업무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및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거주국 내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의 교육 및 활동 참여를 위한 업무 담당 기관 간에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정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정책 방향

현재 한글학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행정(재정)과 교육 업무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 지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가 맡고 있는 반면, 한글학교 교재개발 및 보급에 한해 교육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 내에 한국교육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만큼 한글학교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거주국 간, 거주국 내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세부 과제

2-1. 한국-거주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재외동포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 활동 및 교류 업무에 따라 소관 부처가 상이하다. 현재 유럽의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교육은 한글학교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재외동포재단이 맡고 있고, 한글학교의 교재 개발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 외 모국연수는 재외동포재단이 맡고 있지만, 재외동포청소년의 대다수가 거주국

의 초, 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2-track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외동포청소년의 거주국 내 학교교육 및 한글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은 한글학교-한국교육원-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하는 한편, 한글학교 운영 및 학교 밖 활동 지원은 한글학교-한인회-재외동포재단-여성가족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 관련 업무는 교육 사안별로 한글학교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한국교육원은 유럽 내 3곳(영국, 프랑스, 독일)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유럽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재외동포청소년 활동 지원 및 한글학교 운영 지원 업무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축이 되어 협력체계를 구성하되, 재외동포청소년의 국내 활동 프로그램 참여와 거주국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는 청소년 활동 시설과 프로그램의 관리 주체인 여성가족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림 VI-8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한국-거주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2-2. 거주국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거주국 내에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는 대사관 및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한인회, 한글학교협의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거주국 내에서는 연례행사로 대사와 한인회 임원 간 간담회나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체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거주국 내에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한인회 내부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또는 청년을 위한 지원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20대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도 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많아서 재외동포청소년 또는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청소년 및 청년들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당사자 조직은 한인회에 반드시 소속되어 활동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과거 이주 세대와 현재 이주 세대 간에 이주배경에 차이가 있고, 재외동포청소년 및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문화적 현실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재외동포들의 직능, 연령별 대표 단체들이 한인회 내부에 반드시 소속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주국 내 한인회, 한글학교협의회, 대사관 등 관련 기관들이 재외동포청소년 및 청년 등 차세대의 역량 강화와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의 주제를 중심에 놓고 지원 방안 마련과 역할 분담을 위해 이해관계를 떠나 협력해야 하며, 그것이 거주국 내 재외동포들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04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

3. 거주국-한국 지자체 및 중고등학교 간 교류 기반 조성

1) 제언 배경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국 공교육 기관에서의 교류, 교환학습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유럽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유럽 각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청소년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는 시도교육청이 유럽 각국의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중고등학생들의 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로 하여금 국제교류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거나,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업무 중 국제 교류 실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정책 방향

중앙정부가 지자체 평가 시, 국제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및 실제 교류 실적을 반영할 경우 재외동포청소년이 거주하는 도시와 한국의 도시 간 업무 체결 및 청소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평가 시, 국제교류 실적 및 시도교육청별 학생들의 교류실적을 반영함으로써 재외동포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간 교류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세부 과제

교육부 또는 중앙 정부는 시도교육청 또는 지자체 평가 시 청소년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정도와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유럽 각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직접적인 교류 혜택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시 간 업무 협약은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교류 기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앞서 소개한 경기도교육청은 재외공관의 한국교육원, 한인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들에게 국제 교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모국 방문 및 한국 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 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류, 교환학습 기회를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4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
4. 거주국 정규학교의 한국어 채택 지원	

1) 제언 배경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한글학교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주국 공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글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주 1회 교육에 비해 지속적, 안정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공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 정체성과 자부심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지원 방안으로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지원과 운영 지원 외에 거주국 내 공교육 기관에 한국어가 보급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방향

한국교육원에서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반을 개설할 경우 강사를 지원하는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채택사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 대학에서의 한국어 개설 지원뿐만 아니라 거주국의 평생교육기관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등 저변을 확대할 때, 정규학교에서 한국어 채택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어 채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세부 과제

독일의 경우 정규학교에서 한국어가 채택된 경우는 드물고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어가 제 1~3외국어(LV 1, 2, 3)로 채택이 가능하지만, 한국어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기준 파리의 경우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채택한 학교는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에 국한된다.

거주국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채택을 지원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소년뿐만 아니라 현지 청소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글로벌한 세계적 문화현상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유럽 국가와 한국 간의 교류 기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외국어 수업이 시작되는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한국어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교재 개발 등),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사관과 한국교육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자체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 외에 거주국 내 다양한 학교급에서 한국어 채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세부 과제와 관련하여, 법령 제·개정 여부 및 예산 소요 규모, 정책의 시급성 및 중요도, 담당 관계 부처 등을 명시한 로드맵을 표 VI-12에 제시하였다.

표 VI-1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전략(안)

H: 높음, L: 낮음

영역	정책과제	법령 제·개정		예산(인력) 소요			시급성/중요도	관계 부처
		필요	불필요	대	중	소/없음		
① 재외 동포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한글 학교 기반 마련	1. 한글학교 운영 목표 및 기능에 따른 지원		○		○		H/H	외교부 교육부
	2. 한글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2-1. 교육과정 편성 및 거주국에 적합한 교재 개발 및 보급		○		○		H/H	교육부
	2-2. 교사의 전문성 강화		○			○	H/H	외교부
② 재외 동포 청소년 성장을 위한 한글 학교 지원	1. 재외동포 이민사 포함한 한국사 교재 개발 보급		○		○		L/H	교육부
	2. 유아용 교구 지원 및 다양한 교육자료 지원	○			○		H/H	교육부
	3. 재외동포 학부모 및 청소년 교육 특강 지원		○		○		L/H	외교부

영역	정책과제	법령 제·개정		예산(인력) 소요			시급성/ 중요도	관계 부처
		필요	불필요	대	중	소/ 없음		
확대	4. 한글학교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 지표 보완		○			○	L/H	외교부
	5. 한글학교 지원 사업 다양화		○		○		L/H	외교부
③ 재외 동포 청소년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 그램 지원	1-1.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매트릭스 개발 및 관련 프로그램 연계		○			○	L/H	외교부 여가부
	1-2. 모국 연수 기회 확대		○		○		L/H	외교부
	1-3. 한국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		○		L/H	중앙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
	1-4. 유럽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지원		○		○		L/H	외교부
	1-5. 재외동포 차세대 청년 지원		○		○		H/H	외교부
	1-6. 한국 중·고등학교 교류·교환 학습 기회 제공		○		○		L/H	시도교육청 지자체
	1-7. 진로 및 취업정보 서비스 제공		○			○	L/H	외교부
④ 재외 동포 청소년 성장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	1.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			H/H	외교부
	2. 재외동포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2-1. 한국-거주국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	H/H	외교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2-2. 거주국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	L/H	외교부 한인단체 여가부
	3. 거주국-한국 지자체 및 중·고등학교 간 교류기반 조성		○			○	H/H	지자체 시도교육청
4. 거주국 정규학교의 한국어 채택 지원		○		○		H/H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경종(2006).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예산분류. 채창균, 백성준(편.), 국가인적자원 개발론(pp. 291-323). 서울:직업능력개발원.
- 강진희 (2012). “프랑스 이민정책과 한인사회.” 유럽 한인의 역사(상).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교육부(2018a). 재외동포교육 게시판. 2017년도 재외한국교육원현황.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6&boardSeq=7164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11&opType=N>에서 2018. 1. 30. 인출.
- 교육부(2018b). 재외동포교육 게시판. 2017년 재외한국학교현황.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6&boardSeq=71639&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11&opType=>, 2018. 2. 6. 인출.
- 교육부(2018c). 2018년도 예산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세종: 교육부.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72703&lev=0&statusYN=C&s=moe&m=0606&opType=N&boardSeq=73294>에서 2018. 10. 16. 인출.
- 교육부(2018d). 2018년 재외동포교육지원 포털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수행기관 제공모.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

73982&lev=0&searchType=S&statusYN=C&page=1&s=moe&m=0501
&opType=N에서 2018. 10. 17. 인출.

교육부 꿈길 홈페이지.

http://www.ggoomgil.go.kr/front/bbs/bbsList.do?rootMenuId=04&menuId=0404&bbs_info_seq=128에서 2018. 10. 20. 인출.

국민일보(2016. 7. 8.). 경기도교육청, 캐나다 토론토 재외동포 학생 초청 문화체험 실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65805>에서 2018. 10. 20. 인출.

김경준, 김태기(20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 (연구보고서 15-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정은주(2016).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 (연구보고서 16-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정은주(2017).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연구보고서 17-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장호(2005). 21세기 새로운 인적자원정책을 위하여. 김장호(편.), 한국의 인적자원: 도전과 새 패러다임(pp. 1-30). 경기:법문사.

김정숙, 강영배(2017).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우(2018. 9. 17.). '2016~2018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콜로키움 발표자료.

김태진(2018. 9. 17.).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과 한국전통문화연수' 콜로키움 발표자료.

김형만(2005). 인적자원정책의 전개. 김장호(편.), 한국의 인적자원: 도전과 새 패러다임(pp. 63-89). 경기:법문사.

김형만, 강홍렬, 김창환, 김영생, 한애리, 김호진(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연구 2017-05).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혜심(2012). “독일 한인 사회의 형성과 발전.” 유럽 한인의 역사(상).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나혜심(2016). “유럽 재외한인 이주사: 구한말~현재.” 기록으로 보는 재외한인의 역사: 이주와 정착 그리고 발전의 시간들-유라시아·유럽. 대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 독일 헤센주 교육청 홈페이지(2018). 미국 위스콘신주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https://schulaemter.hessen.de/schulbesuch/internationaler-austausch/schueleraustausch/wisconsin-usa>에서 2018. 9. 15. 인출
- 독일 헤센주 교육청 홈페이지(2018). 프랑스 아키텐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https://schulaemter.hessen.de/schulbesuch/internationaler-austausch/schueleraustausch/frankreich-aquitaine>에서 2018. 9. 15. 인출
- 독일 헤센주 교육청 홈페이지(2018). 캐나다 앨버타 교환학생 프로그램 안내. <https://schulaemter.hessen.de/schulbesuch/internationaler-austausch/schueleraustausch/kanada>에서 2018. 9. 15. 인출
- 독일한국교육원 홈페이지(2018). ‘한글학교소식’ 게시판. <http://www.keid.de/board.php?board=keidb302&page=2&command=list&no=&command=list&page=1>에서 2018. 10. 2. 인출.
- 독일한국교육원 홈페이지(2018. 1. 8.). 한국어 AG 현황(2017. 12. 1. 기준). <http://changesoul.de/keid/board.php?board=keidb401&command=body&no=16>에서 2018. 10. 5. 인출.
- 백성준(2005). 인적자원개발의 글로벌화. 김장호(편.), 한국의 인적자원: 도전과 새 패러다임(pp. 642-661). 경기:법문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28245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에서 2018. 1. 29.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567호, ‘유아교육법’, <http://www.law.go.kr/>에서 2018. 10.15.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625호, ‘국어기본법’,
<http://www.law.go.kr/>에서 2018. 10. 15.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839호,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E%AC%EC%99%B8%EA%B5%AD%EB%AF%BC%20%EC%84%A0%EA%B1%B0#undefined>에서 2018. 2. 13.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497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E%AC%EC%99%B8%EB%8F%99%ED%8F%AC#undefined>에서 2018. 1. 29.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5042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에서 2018. 10. 15.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5208호, ‘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에서 2018. 1. 29.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5209호, ‘청소년보호법’,
<http://www.law.go.kr/>에서 2018. 1. 29.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5210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www.law.go.kr/>에서 2018. 1. 29.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5352호, ‘아동·청소년보호법’,
<http://www.law.go.kr/>에서 2018. 1. 29.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5489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http://www.law.go.kr/>에서 2018. 3. 27.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 3. 27. 인출.

사단법인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2018. 5. 24.). 2018 해외동포 자녀초청 사업 개요.

- http://m.koreaspirit.org/bbs/board.php?bo_table=ob_trip_appli에서
2018. 10. 15. 인출
- 서울시교육청(2008). 해외동포 학생 조국체험 기회 제공 기본계획.
- 연합뉴스(2012. 8. 14.). '재외동포 통계 부실. 정책효율성 저하 우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10/0200000000AKR20120810170400371.HTML?did=1179m>에서 2015. 2. 9. 인출.
- 연합뉴스(2013. 10. 4.). 재외동포 다수 거주 상위 30개국 현황.
<http://www.yonhapnews.co.kr/medialabs/info/graph/overkor/index.html>에서 2018. 1. 30. 인출
- 외교부(2017). 2017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 유정숙 (2012). "독일 한인 사회의 현안과 전망(1990년 통독 이후)." 유럽 한인의 역사(상).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윤인진(2013).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재외동포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의 재정립, 민족연구 54권 0호, 4~22.
- 이진명 (2012). "프랑스 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 유럽 한인의 역사(상).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임영희 (2003). "프랑스 한인사회의 성장기반과 특성." 유럽 한인사: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유럽 연구회 편. 서울: 도서출판 다해.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연구보고 15-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재독한인총연합회 홈페이지. '독일 지역한인회 및 회원단체' 현황.
<http://homepy.korean.net/~germany/www/data/index.htm>에서
2018. 4. 11. 인출.
-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2006). 한글학교 학생용 한국사 교사용지도서.
<http://www.efka.or.kr/efka0302.asp?bbsSeq=&keyword=%ED%95%9>

C%EA%B5%AD%EC%82%AC&page=1에서 2018. 10. 22 인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efka.or.kr/efka0301.asp>에서
 2018. 10. 15. 인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efka.or.kr/efka0302.asp>에서
 2018. 10. 15. 인출
 재외동포신문(2017. 5. 17.). 경기도 -LA 한인회 청소년 교류 활성화 논의.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130>에
 서 2018. 10. 20. 인출
 재외동포재단(2016. 4. 7.). '재외동포재단, '한글학교 교사 인증제' 도입한다.'
 보도자료.
http://www.okf.or.kr/homepage/pr/press.do?mode=view&articleNo=1224504&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A%B5%90%EC%82%AC+%EC%9D%B8%EC%A6%9D%EC%A0%9C&srSearchKey=article_title#/list에서 2018. 10. 4. 인출.
 재외동포재단(2017). 2017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서울: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2018a). 2018년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 참가자 모집공고.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6622에서 2018. 9. 27. 인출.
 재외동포재단(2018b). 재외동포교육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
 재단.
 재외동포재단(2018. 10. 11.). 한글학교 지원금 결정 기준 및 공식 내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서울: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발간등록번호 (34-9761091-170020-14).
http://www.nec.go.kr/cmm/dozen/view.do?atchFileId=FILE_000000000168480&fileSn=1&bbsId=B0000215에서 2018. 2. 13. 인출

- 중앙일보(2018. 9. 5.). 경기도교육청, 필리핀 학교와 교류 추진.
<https://news.joins.com/article/22944926>에서 2018. 10. 20. 인출
- 지은림, 선광식(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 연구, 39(4), 115~134.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7061>에서 2018. 10. 17. 인출.
- 채창균, 백성준(2006). 국가인적자원개발론(KRIVET연구총서 2). 서울: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최상덕 (2014).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II(연구보고 RR 2014-15).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청(2018). 장래인구 추계.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N&menuId=M_1_1&themaId=A01에서 2018. 1. 26. 인출
- 통계청(2018). 장래인구추계.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N&menuId=M_1_4&themaId=D01에서 2018. 1. 25. 인출
- 통계청 보도자료(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4710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84%B8%EA%B3%84%EC%99%80+%ED%95%9C%EA%B5%AD%EC%9D%98에서 2018. 1. 25. 인출
- 프랑스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교육원행사' 게시판. <http://www.educoree.fr/>에서 2018. 10. 2. 인출.
- 프랑스 한인회 홈페이지. <http://koreanfr.org/>에서 2018. 4. 5. 인출.

- 한가람 홈페이지. <http://hangaram.de/>에서 2018. 4. 11. 인출.
- 한국전통문화전당(2018. 5. 14.). 2018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http://www.ktcc.or.kr/2015/inner.php?sMenu=E2000&pno=1&mode=view&no=335>에서 2018. 10. 20. 인출
- 허성태, 임영언 (2016).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의 한민족. 성남: 북코리아.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11).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강현석·조덕주·박민정 역. 서울: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 Huber, J. (2010). Narrative inquiry. In B. McGaw, E. Baker & P. P. Peterson(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3rd ed.). Vol. 6. NY: Elsevier. 436-441.
- Kyopocom Germany facebook. <https://www.facebook.com/kyopo.de/>에서 2018. 4. 11. 인출.
- Study Korean 홈페이지. “교사인증과정.”
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crtfc.CrtfcStudyAction?p_process=intro&p_menuCd=m701에서 2018. 10. 5. 인출.
- Study Korean 홈페이지.
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crtfc.CrtfcStudyAction?p_process=intro&p_menuCd=m701&gnb=teach에서 2018. 10. 16. 인출
- Swanson, R. A. & Elwood, F. H.(2001). *Foundation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A: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부 록

- 1.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지
(한국어)
- 2.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지
(독일어)
- 3.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지
(프랑스어)

문 12)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 (엄마 또는 아빠)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1	2	3	4	5
2) 나와 부모님 (엄마 또는 아빠)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1	2	3	4	5
3) 나와 부모님 (엄마 또는 아빠)은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	1	2	3	4	5
4) 나는 한국 현대 문화(대중매체)에 관심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스스로 한국 노래(K-pop)나 드라마를 찾아서 본다	1	2	3	4	5

문 13)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1	2	3	4	5
2)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다	1	2	3	4	5
3)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1	2	3	4	5
5) 한국어를 읽을 수 있다	1	2	3	4	5
6) 한국어를 쓸 수 있다	1	2	3	4	5

문 14)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2) 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주한다	1	2	3	4	5
4) 나는 독일/프랑스 한인사회의 역사에 대해 잘 안다	1	2	3	4	5

문 15)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알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다	1	2	3	4	5
4) 한국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이다	1	2	3	4	5
5)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1	2	3	4	5
6) 한국은 문화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다	1	2	3	4	5
7) 한국은 시민의식이 성숙한 나라이다	1	2	3	4	5

문 16)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한인 청소년들과 만나거나 연락한다	1	2	3	4	5
2) 나는 한인 청소년단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문 17) 한인청소년들을 주로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정규학교
- ② 한글학교
- ③ 교회, 성당 등 종교단체
- ④ 학교 밖 여가활동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8)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전혀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1) 나는 독일/프랑스에서 열리는 한인청소년 캠프나 연수(한글학교 집중과정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한국에서 열리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문 19) 한국인의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위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	2	3	4	5
2)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	2	3	4	5
3) 독일/프랑스의 한국인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	2	3	4	5
4) 재외 한인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한국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교육(한국어, 역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2	3	4	5
6) 취업 또는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	1	2	3	4	5

문 20) 내가 한국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독일/프랑스에서 성공하여 한인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1	2	3	4	5
2) 독일/프랑스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1	2	3	4	5
3)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4) 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1	2	3	4	5

문 21)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해 주세요.

구 분	예	아니오
1) 한국에서 공부(유학)를 하고 싶다	1	2
2)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	1	2
3)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보고 싶다	1	2

문 22) 한국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한국 국적이 없는 것
- ②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 ③ 군복무를 하지 않음
- ④ 한국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
- ⑤ 한국에서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⑥ 경제적 어려움
- ⑦ 한국의 조직 및 기업 문화에 대한 적응에 자신이 없음
- ⑧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음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3)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
- ②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
- ③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 등
- ④ 인터넷사이트 방문이나 SNS 활동
- ⑤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 ⑥ 개인적 한국 방문
- ⑦ 교환학생
- ⑧ 독일/프랑스에서 열린 한민족 캠프나 축제 참여
- ⑨ 한국에서 열린 한민족 캠프, 청소년 캠프나 축제 참여

문 24)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1	2	3	4	5
2)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 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1	2	3	4	5
4)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1	2	3	4	5

문 25)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1	2	3	4	5
2)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 지어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1	2	3	4	5
5)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1	2	3	4	5
6) 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할 때 지난 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 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	1	2	3	4	5

문 26)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환경, 평화, 기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문 27)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세계에 대해 개성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문 28)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독일/프랑스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독일/프랑스의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독일/프랑스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	1	2	3	4	5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Ihre Antworten werden auf jeden Fall vertraulich behandelt. Bitte lesen Sie alle Fragen sorgfältig und markieren Sie jeweils die Nummer der Antwort, die Ihren Gedanken entspricht.

Q1) In welchem Land und in welcher Stadt wohnen Sie derzeit?

Land(_____)

Stadt(_____)

Q2) Wann sind Sie geboren?

--	--	--	--

 Im Jahr

Q3) Bitte markieren Sie Ihr Geschlecht.

- ① Männlich
- ② Weiblich

Q4) Bitte markieren Sie Ihren aktuellen Status.

- ① Schüler/Student
- ② Berufstätig
- ③ Sonstiges (_____)

Q5) Bitte markieren Sie den Grund, warum Sie in Deutschland leben.

- ① Ich bin in Deutschland geboren
- ② Ich gehe zur Schule / ich studiere in Deutschland
- ③ Ich bin Immigrant (In welchem Alter sind Sie immigriert? _____)
- ④ Anderes
(Bitte konkret angeben: _____)

Q6) Bitte markieren Sie, welche Generation ihrer Familie nach Deutschland gekommen ist.

- ① Meine Großeltern oder die Generation davor
- ② Meine Eltern, bevor ich geboren wurde
- ③ Nach meiner Geburt mit meinen Eltern zusammen eingewandert

Q7) Bitte markieren Sie Ihre aktuelle Staatsangehörigkeit.

- ① Deutsch
- ② Doppelte Staatsbürgerschaft (Deutsch und Koreanisch)
- ③ Koreanisch
- ④ Andere (Bitte konkret angeben: _____)

Q8) Sind Ihr Vater und Ihre Mutter Koreaner?

- ① Nur der Vater ③ Beide
 - ② Nur die Mutter ④ Beide sind nicht Koreaner
- (※ Koreaner bezieht sich hier auf die Abstammung, nicht auf die Staatsangehörigkeit.)

Im Folgenden wird nach Ihren Gedanken gefragt. Bitte lesen Sie die Fragen sorgfältig und markieren Sie jeweils die Nummer der Antwort, die am ehesten Ihren Gedanken entspricht.

Q9) Haben Sie schon einmal Koreanisch oder Koreanische Landeskunde an einem koreanischen Erziehungsinstitut oder an einer koreanischen Sprachschule bzw. an einem Institut, das Koreanischkurse anbietet, gelernt?

- ① Ja ② Nein Nr. 11

Q10) Wie lange haben Sie das Institut bzw. die Sprachschule besucht?
_____Jahr(e) _____Monat(e)

Q10-1) Was ist der ausschlaggebende Grund dafür, dass Sie sich dazu entschieden haben, das Erziehungsinstitut oder die Sprachschule bzw. den Sprachkurs zu besuchen?

- ① Ich dachte, dass ich die koreanische Sprache lernen bzw. etwas über die koreanische Geschichte und Kultur erfahren sollte, weil ein Teil meiner Identität koreanisch ist
- ② Ich dachte, es ist für meine Zukunft oder bei der Jobsuche hilfreich, wenn ich Koreanisch lerne
- ③ Die koreanische Sprache, Kultur und Geschichte interessieren mich
- ④ Meine Eltern empfahlen es mir
- ⑤ Ein Freund von mir schlug es vor
- ⑥ Sonstiges (Bitte konkret angeben:_____)

Q11) Was ist Ihrer Meinung nach Ihre Identität?

- ① Koreanisch
- ② Koreanisch-Deutsch
- ③ Eine dritte Identität, die weder Koreanisch noch Deutsch ist
- ④ Deutsch
- ⑤ Anderes (Bitte konkret angeben: ___)

Q12) Bitte lesen Sie die folgenden Aussagen und markieren Sie jeweils die Nummer, die Ihren Gedanken entspricht.

	Trifft gar nicht zu	Trifft nicht zu	teils/teils	Trifft zu	Trifft vollkommen zu
(1) Ich rede mit meinen Eltern (Mutter oder Vater) auf Koreanisch.	1	2	3	4	5
(2) Meine Eltern (Mutter oder Vater) und ich bereiten koreanisches Essen zu.	1	2	3	4	5
(3) Ich sehe koreanische Drama-Serien oder höre koreanische Musik mit meinen Eltern (Mutter oder Vater).	1	2	3	4	5
(4) Ich interessiere mich für moderne koreanische Kultur (Massenmedien).	1	2	3	4	5
(5) Ich suche selber nach koreanischen Liedern (K-Pop) oder Drama-Serien.	1	2	3	4	5

Q13) Bitte lesen Sie die folgenden Aussagen und markieren Sie jeweils die Nummer, die Ihren Gedanken entspricht.

	Trifft gar nicht zu	Trifft nicht zu	teils/teils	Trifft zu	Trifft vollkommen zu
(1) Ich interessiere mich für die koreanische Sprache	1	2	3	4	5
(2) Ich möchte (weiter) Koreanisch lernen	1	2	3	4	5
(3) Ich kann Koreanisch sprechen	1	2	3	4	5
(4) Ich kann Koreanisch hören und verstehen	1	2	3	4	5
(5) Ich kann Koreanisch lesen.	1	2	3	4	5
(6) Ich kann auf Koreanisch schreiben.	1	2	3	4	5

Q14) Bitte lesen Sie die folgenden Aussagen und markieren Sie jeweils die Nummer, die Ihren Gedanken entspricht.

	Trifft gar nicht zu	Trifft nicht zu	teils/teils	Trifft zu	Trifft vollkommen zu
(1) Ich bin stolz darauf, dass meine Vorfahren Koreaner sind	1	2	3	4	5
(2) Ich bin stolz auf die koreanische Geschichte und Tradition	1	2	3	4	5
(3) Ich erzähle anderen oft positive Dinge über Korea	1	2	3	4	5
(4) Ich kenne mich mit der Geschichte der koreanischen Gemeinden in Deutschland aus	1	2	3	4	5

Q15) Bitte lesen Sie die folgenden Aussagen und markieren Sie jeweils die Nummer, die Ihren Gedanken entspricht.

	Trifft gar nicht zu	Trifft nicht zu	teils/teils	Trifft zu	Trifft vollkommen zu
(1) Ich kenne die koreanische Geschichte	1	2	3	4	5
(2) Ich kenne die koreanische Kultur	1	2	3	4	5
(3) Es gibt einen der mehrere koreanische Firmen, die ich kenne	1	2	3	4	5
(4) Korea ist ein Land, in dem man sich überall sicher fühlen kann	1	2	3	4	5
(5) Korea ist ein wirtschaftlich entwickeltes Land	1	2	3	4	5
(6) Korea ist ein kulturell entwickeltes Land	1	2	3	4	5
(7) Korea ist ein Land, in dem das staatsbürgerliche Bewusstsein ausgereift ist	1	2	3	4	5

Q16) Bitte lesen Sie die folgenden Aussagen und markieren Sie jeweils die Nummer, die Ihren Gedanken entspricht.

	Niemals	Fast nie	Manchmal	Oft	Sehr oft
(1) Ich habe Kontakt mit koreanischen Jugendlichen oder treffe mich mit ihnen	1	2	3	4	5
(2) Ich hatte früher Kontakt mit Menschen aus koreanischen Jugendgruppen oder verbrachte mit ihnen Zeit	1	2	3	4	5

Q17) Wo treffen Sie oft koreanische Jugendliche? (Mehrere Antworten wählbar)

- ① An einer regulären Schule
- ② An einer koreanischen Sprachschule
- ③ In einer religiösen Organisation, z. B. in der Kirche
- ④ Bei Freizeitaktivitäten außerhalb der Schule
- ⑤ Anderes (Bitte konkret angeben: _____)

Q18) Bitte lesen Sie die folgenden Aussagen und markieren Sie jeweils die Nummer, die Ihren Gedanken entspricht.

	Niemals	1 mal	2 mal	3 mal	Mehr als 4 mal
(1) Ich habe schon einmal an einem Jugendcamp mit koreanischen Jugendlichen oder an einem Trainingsprogramm (z. B. Intensivkurs an der koreanischen Sprachschule), das in Deutschland durchgeführt wurde, teilgenommen	1	2	3	4	5
(2) Ich habe schon einmal an einem Programm für Jugendliche oder einem Jugendcamp, das in Korea durchgeführt wurde, teilgenommen	1	2	3	4	5

Q19) Welche Form der Unterstützung halten Sie für Jugendliche mit koreanischem Hintergrund für notwendig?

	Trifft gar nicht zu	Trifft nicht zu	teils/teils	Trifft zu	Trifft vollkommen zu
(1) Man sollte ihnen die Gelegenheit bieten, Korea zu besuchen	1	2	3	4	5
(2) Man sollte ihnen die Gelegenheit zum Austausch mit Jugendlichen in Korea bieten	1	2	3	4	5
(3) Es sollten Möglichkeiten zum direkten Austausch mit koreanischstämmigen Jugendlichen, die in Deutschland wohnen, geschaffen werden	1	2	3	4	5
(4) Es sollten Möglichkeiten zum Online-Austausch für koreanischstämmige Jugendliche in aller Welt geschaffen werden	1	2	3	4	5
(5) Es sollten Bildungsprogramme über Korea (z. B. Koreanische Sprache, Geschichte usw.) unterstützt werden, damit die koreanischstämmigen Jugendlichen Korea besser verstehen	1	2	3	4	5
(6) Es sollten mehr Informationen in Bezug auf Beschäftigung oder Karriere sowie weitere Unterstützung in diesem Bereich angeboten werden	1	2	3	4	5

Q20) Welche Rolle können Sie persönlich für die Entwicklung Koreas und der koreanischen Gemeinden in Deutschland nach Ihrer Meinung spielen?

	Trifft gar nicht zu	Trifft nicht zu	teils/teils	Trifft zu	Trifft vollkommen zu
(1) Ich kann in Deutschland erfolgreich werden und dadurch zur Entwicklung der koreanischen Gemeinden beitragen	1	2	3	4	5
(2) Ich kann Deutschland mit der koreanischen Kultur bekannt machen	1	2	3	4	5
(3) Mit meinen Ideen und Fähigkeiten kann ich zur Entwicklung der koreanischen Wirtschaft bzw. Gesellschaft beitragen.	1	2	3	4	5
(4) Ich kann in der internationalen Gesellschaft eine Brückenrolle spielen und dadurch zur Wiedervereinigung von Nord- und Südkorea beitragen.	1	2	3	4	5

Q21) Die folgenden Fragen befassen sich mit dem Leben in Korea

	Ja	Nein
(1) Ich möchte in Korea studieren	1	2
(2) Ich möchte in Korea arbeiten	1	2
(3) Ich möchte einmal für kurze Zeit in Korea leben	1	2

Q22) Wenn Sie in Korea ausgebildet werden oder arbeiten möchten, aber es Faktoren gibt, die Sie davon abhalten, was sind solche Hindernisse? (Mehrere Antworten wählbar)

- ① Ich habe keine koreanische Staatsbürgerschaft
- ② Mein Koreanisch ist nicht so gut
- ③ Ich leiste keinen Militärdienst
- ④ Mir fehlen Informationen über die Ausbildung und Beschäftigung in Korea
- ⑤ Es gibt nicht genug Möglichkeiten in Korea für Ausbildung bzw. Jobsuche
- ⑥ Es gibt Schwierigkeiten aus finanziellen Gründen
- ⑦ Ich bin mir nicht sicher, ob ich mich an die Struktur sowie Kultur der koreanischen Unternehmen anpassen kann
- ⑧ Ich bin noch nicht bereit, alleine/getrennt von meinen Eltern zu leben
- ⑨ Sonstiges (Bitte konkret angeben: _____)

Q23) Was beeinflusst Ihr Interesse an Korea am meisten? (Mehrere Antworten wählbar)

- ① Interesse sowie Erziehung von Eltern oder Erwachsenen in meiner Umgebung
- ② Interesse von Freunden und Unterhaltung mit ihnen
- ③ Drama-Serien oder K-Pop/durch die Welle, sogenannte Hallyu

- ④ Besuch von Internetseiten oder SNS-Aktivität
- ⑤ Koreanischkurs, z. B. an einer koreanischen Sprachschule
- ⑥ Persönlicher Besuch in Korea
- ⑦ Austauschstudium
- ⑧ Teilnahme an einem Camp oder koreanischen Fest in Deutschland
- ⑨ Teilnahme an einem Jugendcamp bzw. Camp oder koreanischen Fest in Korea

Q24) Was denken Sie über Folgendes?

	Trifft gar nicht zu	Trifft nicht zu	teils/teils	Trifft zu	Trifft vollkommen zu
(1) Wenn ich nicht verstehe, was andere Menschen sagen, stelle ich Ihnen Fragen, um es genauer zu erfahren	1	2	3	4	5
(2) Ich kann ein Gespräch führen, auch wenn ich anders als andere denke	1	2	3	4	5
(3) Wenn ich spreche und handle, denke ich darüber nach, wie andere Menschen meine Worte und Handlungen aufnehmen werden	1	2	3	4	5
(4) Ich respektiere Gedanken und Entscheidungen anderer Menschen, auch wenn ich anders als sie denke	1	2	3	4	5

Q25) Was denken Sie über Folgendes?

	Trifft gar nicht zu	Trifft nicht zu	teils/teils	Trifft zu	Trifft vollkommen zu
(1) Ich bin gut darin, neue Ideen zu entwickeln, auf die andere nicht kommen	1	2	3	4	5
(2) Ich kann mir den gesamten Inhalt vorstellen, auch wenn ich ihn nur teilweise höre	1	2	3	4	5
(3) Ich bin gut darin, Dinge zu verbinden, die scheinbar nicht miteinander zu tun haben	1	2	3	4	5
(4) Ich erledige Aufgaben auf unterschiedliche Weise je nach der Schwierigkeit oder ihrer Bedeutung	1	2	3	4	5
(5) Bevor ich ein Problem angehe, mache ich mir zuerst konkrete Gedanken darüber, was zu tun ist	1	2	3	4	5
(6) Wenn ich mit einer neuen Aufgabe anfangen, denke ich darüber nach, ob die Methode bei der letzten Aufgabe hilfreich war, und danach entscheide ich, ob ich sie noch einmal verwenden soll	1	2	3	4	5

Q26) Was denken Sie über Folgendes?

	Trifft gar nicht zu	Trifft nicht zu	teils/teils	Trifft zu	Trifft vollkommen zu
(1) Ich interessiere mich dafür, was in der Welt geschieht, z. B. was die Umwelt, den Frieden, Hunger usw. angeht	1	2	3	4	5
(2) Ich bin der Meinung, man sollte sich dafür einsetzen, Menschen auf der ganzen Welt zu helfen, damit sie ein besseres Leben leben können	1	2	3	4	5
(3) Ich bin der Meinung, dass ich das soziale Leben gewissenhaft leben sollte	1	2	3	4	5
(4) Ich denke, man sollte Interesse an seiner Community oder seinen Nachbarn haben	1	2	3	4	5

Q27) Was denken Sie über Folgendes?

	Trifft gar nicht zu	Trifft nicht zu	teils/teils	Trifft zu	Trifft vollkommen zu
(1) Ich fühle mich anderen Ländern nahe	1	2	3	4	5
(2) Ich bin offen für die Welt	1	2	3	4	5
(3) Ich nehme immer eine freundliche Haltung gegenüber Menschen aus anderen Ländern ein	1	2	3	4	5
(4) Ich bin immer bereit, die Kultur anderer Länder zu verstehen und zu akzeptieren	1	2	3	4	5

Q28) Was denken Sie über Folgendes?

	Trifft gar nicht zu	Trifft nicht zu	teils/ teils	Trifft zu	Trifft vollko mmen zu
(1) Ich halte die deutsche Kultur für ausgezeichnet	1	2	3	4	5
(2) Ich finde die Deutschen sehr gut	1	2	3	4	5
(3) Ich möchte den Ruf Deutschlands in der Welt bekannt machen und ihn erhalten	1	2	3	4	5

○ Vielen Dank für Ihre Antworten.
Bitte überprüfen
Sie noch einmal, ob Sie alle Fragen
beantwortet haben. ○

Vos réponses seront anonymes et sécurisées, donc veuillez répondre honnêtement. Après avoir bien lu, veuillez cocher le cas correspondant à votre réponse.

Q1) Où habitez-vous actuellement ?

Pays()
Ville()

Q2) En quelle année êtes-vous né(é) ?

en

Q3) Quel est votre sexe ?

① Masculin ② Féminin

Q4) Quel est votre statut social ?

① Étudiant(e) ② Employé(é)
③ Autres (_____)

Q5) La cause de votre venue en France ?

① Né(é) en France
② Études
③ Émigration (depuis quel âge ? _____)
④ Autres (Précisez la raison _____)

Q6) Qui dans votre famille s'est installé(é)(s) en France en premier ?

① Mes grands-parents ou arrière-grands parents
② Mes parents avant ma naissance
③ Mes parents ont immigré avec moi après ma naissance en Corée

Q7) Quelle est votre nationalité actuelle ?

① Française
② Double nationalité (Française + Coréenne)
③ Coréenne
④ Autre (laquelle ? _____)

Q8) Vos parents sont-ils coréens ?

① Seulement mon père ③ Les deux
② Seulement ma mère ④ Aucun des deux

Les questions suivantes sont pour demander votre avis. Après avoir bien lu les questions, veuillez cocher le cas correspondant à votre réponse. .

(※ Pas de nationalité mais d'origine coréenne)

Q9) Avez-vous déjà étudié à propos de la Corée ou la langue coréenne grâce à une école coréenne, un institut ou la section éducation de l'Ambassad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n France ?

① Oui

② Non passez à la question 11

Q10) Combien de temps avez-vous fréquenté les instituts de l'enseignement du coréen ?
_____année(s) _____mois

Q10-1) Quelle est la principale raison pour laquelle vous avez décidé d'aller aux instituts d'enseignement du coréen ?

① Parce que je suis en partie coréen(ne) et que je dois apprendre la langue coréenne, l'histoire et la culture coréenne
② Parce que cela peut être utile pour ma carrière ou cela peut m'aider à trouver du travail
③ Parce que je m'intéresse à la langue, à la culture et à l'histoire coréenne
④ Par volonté parentale
⑤ Parce qu'un ami ou une amie m'a proposé d'y aller ensemble
⑥ Autre raison (laquelle ? _____)

Q11) Comment définiriez-vous votre identité ?

① Coréenne
② Française d'origine coréenne
③ N coréen(ne) ni français(e) une troisième
④ Française
⑤ Autre (laquelle ? _____)

Q12) Après avoir bien lu les phrases suivantes, veuillez cocher le cas correspondant à votre réponse.

	Non	Plutôt non	Moyen	Plutôt oui	Oui
(1) J'utilise le coréen quand je parle avec mes parents (mère ou père)	1	2	3	4	5
(2) Mes parents (mère ou père) et moi cuisinons des plats coréens	1	2	3	4	5
(3) Mes parents (mère ou père) et moi regardons des séries coréennes ou écoutons de la musique coréenne	1	2	3	4	5
(4) Je m'intéresse à la culture populaire coréenne (média populaires)	1	2	3	4	5
(5) J'écoute de la musique coréenne(K-pop) ou je regarde des séries coréennes par moi-même	1	2	3	4	5

Q13) Après avoir bien lu les phrases suivantes, veuillez cocher le cas correspondant à votre réponse.

	Non	Plutôt non	Moyen	Plutôt oui	Oui
(1) Je m'intéresse à la langue coréenne	1	2	3	4	5
(2) Je voudrais (continuer à) apprendre le coréen	1	2	3	4	5
(3) Je parle coréen	1	2	3	4	5
(4) Je comprends le coréen	1	2	3	4	5
(5) Je peux lire en coréen	1	2	3	4	5
(6) Je peux écrire en coréen	1	2	3	4	5

Q14) Après avoir bien lu les phrases suivantes, veuillez cocher le cas correspondant à votre réponse.

	Non	Plutôt non	Moyen	Plutôt oui	Oui
(1) Je suis fier(ère) de mon origine coréenne	1	2	3	4	5
(2) Je suis fier(ère) de l'histoire et de la tradition coréenne	1	2	3	4	5
(3) Je parle souvent aux autres des côtés positifs de la Corée	1	2	3	4	5
(4) Je connais bien l'histoire de la communauté coréenne en France	1	2	3	4	5

Q15) Après avoir bien lu les phrases suivantes, veuillez cocher le cas correspondant à votre réponse.

	Non	Plutôt non	Moyen	Plutôt oui	Oui
(1) Je connais bien l'histoire coréenne	1	2	3	4	5
(2) Je connais bien la culture coréenne	1	2	3	4	5
(3) Je connais des entreprises coréennes	1	2	3	4	5
(4) La Corée du Sud est un pays sûr où on peut aller n'importe où	1	2	3	4	5
(5) La Corée du Sud est un pays développé sur le plan économique	1	2	3	4	5
(6) La Corée du Sud est un pays développé sur le plan culturel	1	2	3	4	5
(7) La Corée du Sud est un pays dont la conscience des citoyens est mature	1	2	3	4	5

Q16) Après avoir bien lu les phrases suivantes, veuillez cocher le cas correspondant à votre réponse.

	Non	Plutôt non	Moyen	Plutôt oui	Oui
(1) Je vois des jeunes d'origine coréenne ou je les contacte	1	2	3	4	5
2) J'ai déjà contacté des gens dans une association de jeunes coréens ou j'ai déjà participé dans cette association	1	2	3	4	5

Q17) Où rencontrez-vous souvent des jeunes coréens ? (plusieurs réponses sont possibles)

- ① École
- ② École coréenne
- ③ Églises chrétienne ou catholique ou autres associations religieuses
- ④ Autres activités hors de l'école
- ⑤ autres (où _____)

Q18) Après avoir bien lu les phrases suivantes, veuillez cocher le cas correspondant à votre réponse.

	Jamais	1 fois	2 fois	3 fois	Plus de 4 fois
(1) J'ai déjà participé aux camps ou aux programmes d'éducation (cours intensifs de l'école coréenne par exemple) organisés pour les jeunes coréens en France	1	2	3	4	5
2) J'ai déjà participé aux camps ou aux programmes ou aux camps pour les jeunes coréens, organisés en Corée	1	2	3	4	5

Q19) Quelles aides pensez-vous être utiles pour les jeunes d'origine coréenne ?

	Non	Plutôt non	Moyen	Plutôt oui	Oui
(1) Des occasions de visiter la Corée	1	2	3	4	5
(2) Des occasions de communiquer avec des jeunes coréens en Corée	1	2	3	4	5
(3) Des occasions de communiquer face à face avec des jeunes d'origine coréenne en France	1	2	3	4	5
(4) Des occasions de communiquer en ligne entre les jeunes d'origine coréennes	1	2	3	4	5
(5) Des aides au niveau de l'éducation pour qu'ils puissent connaître la Corée (la langue et l'histoire coréenne)	1	2	3	4	5
(6) Informations ou aides concernant les systèmes d'embauche ou les carrières	1	2	3	4	5

Q20) Quel rôle pensez-vous pouvoir jouer dans le développement de la Corée du Sud et de la communauté coréenne ?

	Non	Plutôt non	Moyen	Plutôt oui	Oui
(1) Ma réussite en France peut aider le développement de la communauté coréenne	1	2	3	4	5
(2) Je peux faire connaître la culture coréenne aux français	1	2	3	4	5
(3) Je peux contribuer à la croissance économique et sociale de la Corée avec mes idées et mes compétences	1	2	3	4	5
(4) Je peux jouer le rôle d'intermédiaire dans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pour contribuer à la réunification des deux Corées	1	2	3	4	5

Q21) Après avoir bien lu les phrases suivantes, veuillez cocher le cas correspondant à votre réponse.

	Oui	Non
(1) Je voudrais faire mes études en Corée.	1	2
(2) Je voudrais travailler en Corée.	1	2
(3) Je voudrais vivre en Corée temporairement.	1	2

Q22) Qu'est-ce qui vous empêche de faire vos études ou travailler en Corée ? (plusieurs réponses sont possibles)

- ① Nationalité (non coréenne)
- ② Langue (je ne parle pas le coréen couramment)
- ③ Exempté du service militaire
- ④ Je manque d'information sur l'embauche et l'éducation en Corée
- ⑤ Je n'ai pas d'opportunité de faire des études et/ou travailler en Corée
- ⑥ Difficultés financières
- ⑦ Je crains de ne pas pouvoir m'adapter à la culture de groupe au sein d'une communauté ou d'une entreprise
- ⑧ Je crains de vivre seul(e) loin de mes parents
- ⑨ Autres (veuillez préciser _____)

Q23) Quelles sont les principales influences de votre intérêt pour la Corée ? (plusieurs réponses sont possibles)

- ① L'intérêt des parents ou l'éducation familiale
- ② L'intérêt des amis et les conversations avec eux
- ③ Séries coréennes ou K-pop avec la « vague coréenne »
- ④ Visites sur les sites internet ou l'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
- ⑤ Enseignement de la langue coréenne, par exemple à l'école coréenne
- ⑥ Visite personnelle en Corée
- ⑦ Étudiant(e) en échange
- ⑧ Participation aux camps ou festivals pour les coréens organisés en France
- ⑨ Participation aux camps ou festivals pour les coréens organisés en Corée

Q24) Que pensez-vous des phrases suivantes ?

	Non	Plutôt non	Moyen	Plutôt oui	Oui
(1) Lorsque je ne comprends pas une personne, je lui pose des questions pour mieux comprendre ce qu'elle veut dire	1	2	3	4	5
(2) Même si je n'ai pas les mêmes idées que les autres, je peux parler avec eux	1	2	3	4	5
(3) Je fais attention à ce que les autres pensent de mes paroles et de mes comportements	1	2	3	4	5
(4) Je respecte les opinions et les pensées des autres même si elles sont différentes des miennes	1	2	3	4	5

Q25) Que pensez-vous des phrases suivantes ?

	Non	Plutôt non	Moyen	Plutôt oui	Oui
(1) J'ai souvent de nouvelles idées auxquelles mes amis ne pensent pas	1	2	3	4	5
(2) Même si j'entends partiellement un contenu, j'ai la capacité d'en imaginer la totalité	1	2	3	4	5
(3) Je fais souvent des liens entre des choses qui semblent ne pas avoir de rapport	1	2	3	4	5
(4) Je résous les problèmes selon leur priorité et leur difficulté	1	2	3	4	5
(5) Avant de régler un problème, je pense à une manière concrète pour trouver une solution	1	2	3	4	5
(6) Quand je commence une nouvelle tâche, je me questionne sur l'efficacité de la méthode que j'ai employée précédemment et si elle s'applique au cas présent	1	2	3	4	5

Q26) Que pensez-vous des phrases suivantes ?

	Non	Plutôt non	Moyen	Plutôt oui	Oui
(1) Je m'intéresse aux actualités qui se passent dans le monde (l'environnement, la paix, la famine etc.)	1	2	3	4	5
(2) Je pense qu'il faut faire des efforts pour que tout le monde vive une vie meilleure	1	2	3	4	5
(3) Je pense qu'il faut être honnête dans la vie en société	1	2	3	4	5
(4) Je pense qu'il faut s'intéresser à la communauté locale et aux voisins	1	2	3	4	5

Q27) Que pensez-vous des phrases suivantes ?

	Non	Plutôt non	Moyen	Plutôt oui	Oui
(1) Je me sens proche d'autres pays	1	2	3	4	5
(2) J'ai l'esprit ouvert sur le monde	1	2	3	4	5
(3) Je suis favorable aux personnes venant d'autres pays	1	2	3	4	5
(4) Je suis une personne qui comprend et accueille la culture des autres pays	1	2	3	4	5

Q28) Que pensez-vous des phrases suivantes ?

	Non	Plutôt non	Moyen	Plutôt oui	Oui
(1) Je pense que la culture française est excellente	1	2	3	4	5
(2) Je pense que le peuple français est excellent	1	2	3	4	5
(3) Je pense à faire connaître au monde la réputation de la France et à la protéger	1	2	3	4	5

○ Merci de vos réponses. Veuillez vérifier à nouveau si vous avez répondu à toutes les questions. ○

ABSTRACT

Research on the Policy Initiative for Support and Development of Overseas youths as Country's Future Human Resource

This research aims to set a policy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Overseas youths as Korea's future human resource, to assess current situation of the Overseas youths in the study countries, and to establish suitable policy initiatives on the issue.

This research in 2018 focu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Overseas youths in Europe, specifically Germany and France, and offered detailed and customized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Survey and interview were mainly utilized as the research method. Surveys were taken from 235 youths living in Germany and 249 in France, regarding their current situation, experience from Korean language schools, perception on the Korean ethnicity, communication with fellow the Korean youths, desire to contribute to the Korean society, and competency as future human resource.

On the other hand, interviews in narrative method were held among 34 respondents composed of Overseas youths enrolled to Korean language schools, their parents, teachers and next generation from Germany and France to further comprehend and explore the

experience of research participants. Focus Group Interviews were implemented among the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s of two countries to discuss on the improvement strategy of Korean language schools and development of Overseas youths.

Upon the results, the researchers proposed 4 policy recommendations as below: 1) Establish infrastructure for Korean language schools to educate the Overseas youths, 2) Expand support for Korean language schoo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Overseas youths, 3) Provide customized programs for growth of the Overseas youths, 4) Build cooperative ecosystem to support the growth of the Overseas youths

To concretize the 4 areas mentioned above, 20 detailed tasks were offered as policy initiatives.

Keywords: Overseas Korean, Overseas youthss, Future human resource, Korean ethnicity, Overseas youths in Germany, Overseas youths in France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해정·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해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황여정·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 정은주·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IX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 18-R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 18-R14-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 18-R14-2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2018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모상현·진성희·최효선·김근희 (자체번호 1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Ⅴ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홍영란·김미란·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임정아·이지연·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배상률·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양정승·김민경·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수 시 과 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김기현·김인규
- 18-R24 청소년 통일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외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옥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태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아동·청소년의 적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II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I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혜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론회(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까요?(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외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애 및 유학외식에 관한 조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S 2016) 결과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 협 력 진 ◆

- 김 세 원 (외교부 재외동포과·과장)
김 정 혜 (재외동포재단·차장)
김 지 우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대리)
김 태 진 (삼육보건대·교수)
나 은 정 (충북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학사)
백 나 래 (외교부 재외동포과·행정관)
손 리 사 (콜롬비아대학교·교수)
윤 강 우 (교육부·교육연구사)
이 영 란 (순천향대학교·연구교수)
이 종 미 (재외동포재단·부장)
정 기 섭 (인하대학교·교수)
전 혜 립 (외교부 재외동포과·사무관)
최 영 미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감 수 · 윤 문 ◆

- 김 재 기 (전남대학교·교수)
최 영 미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연구보고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인 쇄 2018년 12월 26일

발 행 2018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02-5 93330



연구보고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